

경기도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2012. 12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
I
序
-

I. 무엇을 하려했는가?

이 사업은 근대적 문화지평을 넘어 이제는 현대적 문화지평에 발을 딛고 서야한다는 절박한 고민위에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안 문화를 고민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다.

수없이 많은 용어들과 개념들이 생산되고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무수한 사례들이 있다.

새로운 개념과 용어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지역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양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그 만큼 다양해짐에 따라 그 만큼의 그릇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시대를 읽어내야 한다.

이제는 동일한 문화적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고, 어떤 형태의 문화가 ‘올바른 문화(?)’임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과 맞지 않다.

다양한 문화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저마다의 가치와 지향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다.

그 안에서 탄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의 연결고리를 확장하고 다시 엮는 것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거기서 대안문화의 싹을 발견할 수 있다.

‘카지노’화 하는 현대의 금융자본주의시대.

젊은이는 자본주의라는 게임에서 패자의 불행과 굴욕을 맛보고 싶지 않으려면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매일 ‘승자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이나 노하우가 있다’는 메시지로 샤워를 하고 있다. 이렇게 게임화한 자본주의 발전의 앞날에 어떤 유형의 ‘인간’이 등장하게 될까?

그렇게 등장하는 인간의 유형은 어떤 문화로 담아내야 하는가?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가 결합하여 문화원 활성화, 문화원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과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보고서로서 책장에 암전하게 꽂혀 있고, 참고 서적이었을 뿐, 실제로 합의하고, 함께 연구해서 활성화를 위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했다.

수많은 이유를 들 수 있고, 그 이유마다 타당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화원 활성화, 문화원 발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논의만 있다. 서로 고민과 문제를 공유하는 기회만 많았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지금까지는 문화원이 개별 독립법인이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알아서 활성화하거나 발전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을까?

본 기획은 경기도문화원의 중, 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3개년사업의 2차년도 사업의 결과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3차년도 기획의 최종 결과물을 위한 과정이 녹아져 있는 ‘과정물’이다.

2013년도 최종년도 아젠다(Agenda)채택을 위한 사업이 이제 시작되어야 할 시점에 과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앞서 말했듯이 연합회에서 연구하고, 확정된 보고서가 왜 구체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의 결과,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그것이 전국 229개 문화원의 합의에 기초한 산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문가가 결합하여 시대흐름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 설정이 되었으나, 정식으로 보고서로 상정되어 채택되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실제로 지방문화원의 현실적 여건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발전방향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연합회 차원의 발전방안이 정식으로 채택되는 과정과 맞물려 각 지방문화원 나름의 중장기 발전방향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군수가 바뀌거나, 원장, 국장이 바뀌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는 항상 질곡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었으며, 그것은 결국 조직의 불안정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적 비전이 개별문화원마다 달라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지 않은 듯 하다.

셋째, 연합회가 되었건, 지회가 되었건 문화원의 발전방향에 대해 공론화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 방법, 실행차원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II. 어떻게 하려 하는가?

이러한 문제제기 위에, 229개 문화원을 아우려야 하는 연합회 차원의 노력은 노력대로 빛을 발하기 어렵다고 판단,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세웠다.

규모를 축소시켜 광역단위 시,도 지회 차원의 중, 장기 발전방향 수립이다.

그래서 16개 시, 도지회 차원의 중, 장기 발전방향이 수립되면 그것들이 모여 현실적인, 그리고 합의된 방향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몇 가지 원칙을 세우게 된다.

첫 번째, 현재 지방문화원의 현황을 정량적 평가 차원을 넘어선 정성 평가를 겸한 밀도있는 수요, 요구 조사활동 전개.

즉, 현재 지방문화원에서 겪고 있는 조직, 법제, 사업추진과정, 직원처우, 시민과의 관계맺음, 당면한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그것을 기초자료로 하여 발전방향을 세운다는 원칙이다.

두 번째, 현재 지방문화원이 시행하고 있는 각 사업의 심층 분석, 평가 작업 시행.

즉, 지방문화원 사업이 현재 시대적, 문화적 흐름의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다. 그것도 어느 특성화된 하나의 사업이 아닌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방향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과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연구진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무국장 중심의 논의구조로 간다.

네 번째, 사업 시행 도중, 각 문화원 임, 직원에게 실행과정을 홍보, 공유하는 과정을 전개한다.

즉, 임,직원 교육과정을 개설, 현재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 공유하는 과정이다.

다섯 번째, 수요, 요구조사를 통해 각 부문별 아젠더(Agenda)를 도출, 최종적으로 문화원장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결정하는 최종보고서를 채택 함으로써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단기,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과제를 넘어야 했다.

첫째, 경기도지회 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이었다.

그동안 서로 독립적으로 시행되던 사업을 하나로 카테고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또한 경기도지회와 각 지방문화원과의 관계 회복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회 사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게 된다.

1. 지방문화원간 긴밀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의 극대화
2. 소통의 구심체로서의 역할
3. 경기도 차원의 문화정책과 각 시, 군 문화정책과의 접점 만들기.

둘째, 경기도 31개 시, 군 지방문화원의 구체적인 현황파악.

셋째, 경기도지회 단독사업의 최소화, 지회-지방문화원 간 협력사업의 확대.

경기도지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에 의거, 모든 사업의 목표, 추진방향,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재배치하게 된다.

그 동안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 약 2 배이상 증액되면서, 사업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드디어 정책사업 3개년 사업이 시작하게 된다.

-

II

경기도 문화원
중·장기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1차년도 사업경과

-



2011년!

앞에서 제기한 문제제기에 근거, 그리고 경기도지회 전반적 체질개선을 통해 경기도 31개 시, 군 지방문화원이 함께 추진하는 중, 장기 발전방향 수립 및 아젠더 도출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1) 사전준비단계

이 TF팀을 만드는데 있어서 도지회 차원에서 고민한 내용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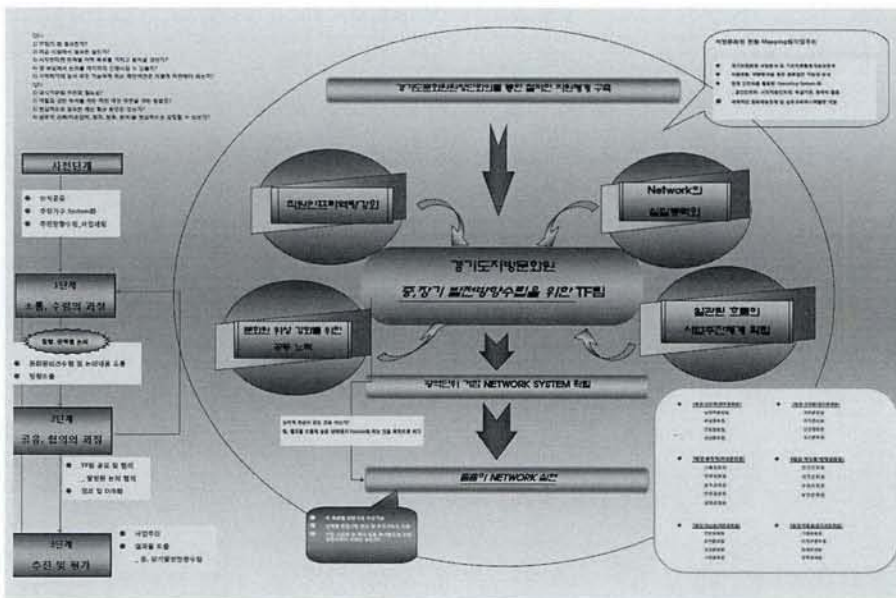


그림 1 경기도문화원중장기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추진모형

Question

- ▶ TF팀이 왜 필요한가?
- ▶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일인가?
- ▶ 시작한다면 단계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
- ▶ 시작하기에 앞서 추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여건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 ▶ 공식기구화 추진이 가능할까?
- ▶ 역할과 권한 부여를 위한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한 방법은?
- ▶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가?
- ▶ 실무적 과제 (자료집적, 정리, 분류, 분석)를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경기도지회가 연합회로서의 자기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첫째로, 경기도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는 그 방향에 대해 신뢰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업 추진에 있어 각 지방문화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문화원 직원의 환경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추가로 더 해야 함을 의미하는 데, 효과적으로 직원들이 움직여줄 수 있을까의 문제이다.

세 번째, 사업추진에 있어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대표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으며, 사업추진결과 그 성과를 어떻게 공식화할 수 있을까의 문제이다.

2) TF 구성과 추진 방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이 사업이 목적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문화원의 중, 장기적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Top-Down 방식이 아니 Down-Up 방식의 추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범업과 함께, 도출되기까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제반 조건의 구비가 필요했다.

그것을 위해 두 가지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1. 중, 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TF팀 가동과 함께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 1) 실태, 요구조사 사업 가동
- 2) 경기도 문화원 사업분석
- 3) 문화원 직원을 위한 문화예술경영 및 실무교육마스터플랜 개발
- 4) 기초자료 D/B화 집적을 통한 향후 발전 가능성 모색
 - 현재 인프라를 활용한 OS 활용방안 마련
(공간인프라, 시민자원인프라, 부설기관 및 동아리 활용 등)

2. TF팀 구성을 두 단계로 나누어 구성. 구체적 목표를 다시 설정한다.

- 1) 1차 TF팀의 역할
 - * 사업 추진 방향 설정 및 실태, 요구조사 추진을 위한 구성
- 2) 실태, 요구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2차 TF팀 재구성.

위의 고민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진행프로세스를 작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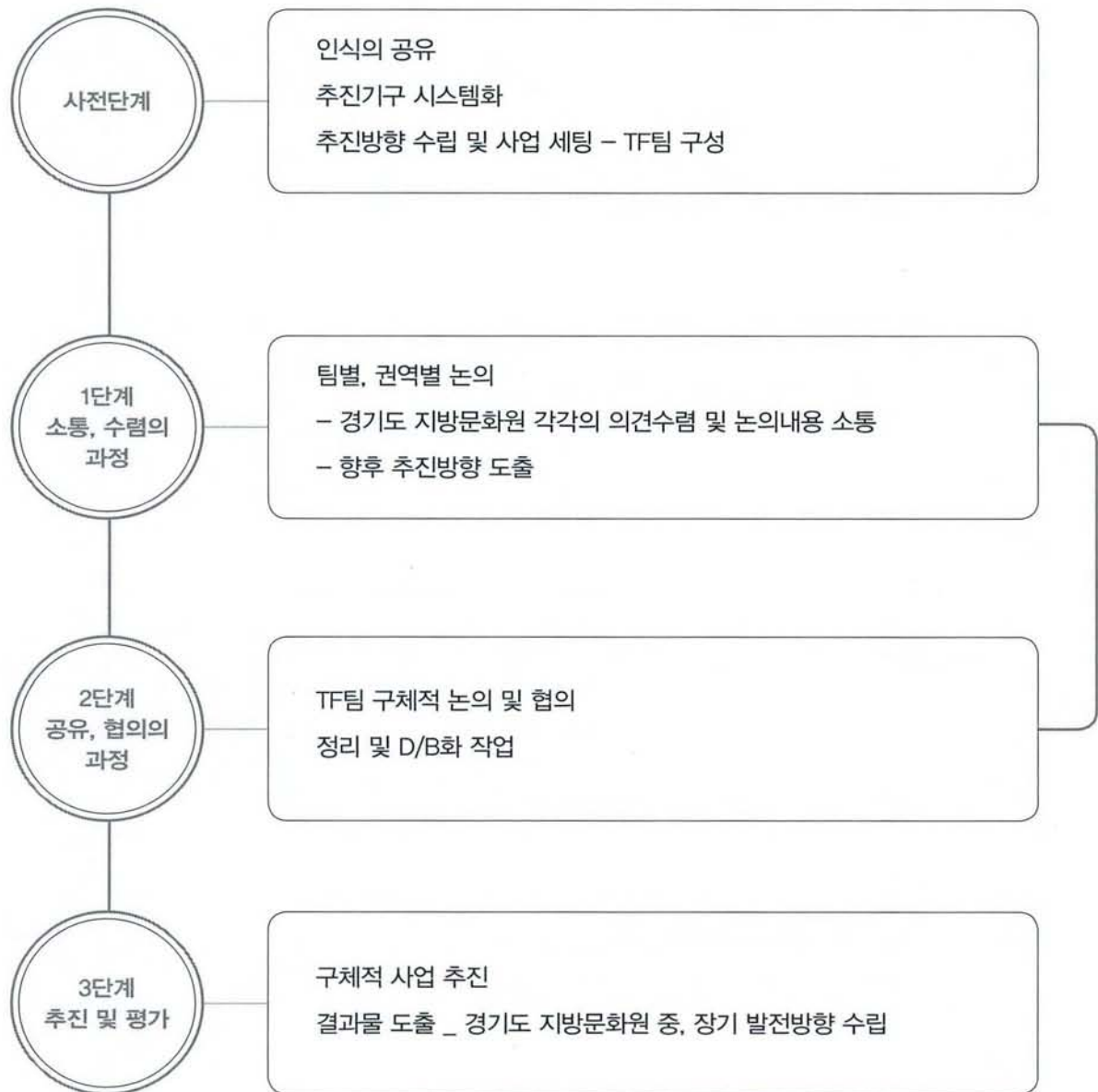


표 TF팀 운영 알고리즘

위의 알고리즘에 의거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1차 TF팀이 구성되어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3) TF회의 결과 및 방향 도출

경기도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을 위한 경기도 사무국장 TF 1차 회의

- ◎ 일 시 : 2011. 3. 21(월) 오후 3시
- ◎ 장 소 : 경기도지회 사무처
- ◎ 참 석 자 : 한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사무처장, 사무과장
광주문화원사무국장, 화성문화원사무국장, 용인문화원사무국장
파주문화원사무국장, 동두천문화원사무국장
- ◎ 목 적 : 경기도 문화원 TF팀 발족 및 향후 활동계획 및 역할에 대한 논의
- ◎ 안 건 : 1. TF팀 구성 취지 및 역할에 대한 논의
2. 경기도 시, 군 문화원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3. 기타 안건

안건 1. TF팀의 구성 취지 및 역할에 대한 논의

- TF팀 운영방향 수립
- 역할과 권한 부여에 대한 논의

안건 2. 경기도 시, 군 문화원 발전방향을 위한 논의

- 도지회 사업과 문화원간의 네트워크 및 소통구조 마련은?
- 경기도 문화원 발전방향 수립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 도지회 사업 공유 및 평가

안건 3. 기타안건

- 경기도 문화원 현황 공유
- 경기도문화원 TF의 역할에 대한 논의결과
 - 도지회가 경기도문화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경기도문화원의 특색 사업 구조화, 체계화
- 경기도문화원의 문제점 및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제시

TF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 정리하여 협의회 모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경기도 임직원간 간담회, 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 문화원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

- 문화원 고유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고민: 전통, 향토문화와 관련한 사업 이외의 문화전반에 걸친 사업으로의 전문성 및 외연 확대 필요.
- 시, 군 문화원의 고유자원 및 대표사업을 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함.
- 각 지방문화원의 위상이 다른 단체(예총 등)에 비해 낮은 편, 이에 문화원만의 특화된 새로운 사업 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임.
- 도지회는 지방문화원들이 빛날 수 있는 사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함. 청소년, 복지 쪽은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으나, 문화원의 여건은 여러 가지로 많이 열악한 상황임. 이에 정관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조직의 안정화에 기여해야 함. 더불어 지방문화원 대표행사(명절 및 국경일 기념식 등)를 개발하여 정례화 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지방문화원은 지자체 및 원장의 교체로 인해 직원의 인사이동이 잦은 편임. 즉 실무조직의 안정화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 중앙연합회의 경직성이 있음. 이에 체질개선이 필요함. 원장 및 실무자 각각의 역할별 교육이 필요할 것임.
- 지방문화원은 구조적 취약점이 있음. 이에 연합회(도지회 포함)가 중심이 되어 이에 관련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함. 도지회는 단독 사업 대신, 지방문화원의 사업 특색을 꿰어 내는 역할을 해야 함.
- 경기도에 일관된 육성진흥조례를 재제정하여 시군에서 이에 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要

1차 TF팀 가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큰 주제를 뽑아낼 수 있었다.

1. 도지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

- 1) 지방문화원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한 조직 안정화에 기여
- 2) 경기도 문화원 사업의 구조화, 체계화
- 3) 경기도문화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위상 강화

2. 지방문화원의 현황과 문제 해결 방안 논의

- 1)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의 자기 위상 확립
- 2) 문화원 사업의 전문성 증진과 외연의 확대
- 3) 잦은 인사이동 등 조직의 구조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위의 결과에 의거, 2011년도 정책예산을 편성, 지방문화원 실태 및 요구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2차 TF 회의를 소집, 사업 계획에 대한 브리핑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을 위한 경기도 사무국장 TF 2차 회의

◎ 일 시 : 2011. 5. 12(목) 오후 4시

◎ 장 소 : 경기도지회 사무처

◎ 참 석 자 : 한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사무처장, 사무과장

광주문화원사무국장, 화성문화원사무국장, 용인문화원사무국장

파주문화원사무국장, 동두천문화원사무국장

◎ 목 적 : 경기도 문화원 TF팀 발족 및 향후 활동계획 및 역할에 대한 논의

◎ 안 건 : 1. TF팀 역할에 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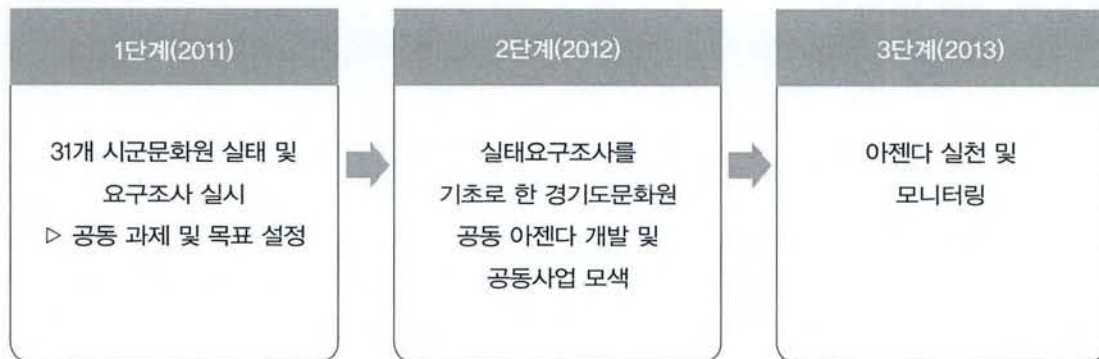
2. [경기도 문화원 발전방향을 위한 실태 및 요구조사] 자문회의

3. 기타 안건

안건 1. TF팀의 역할에 대한 논의

역할 1. 경기도 문화원 발전방향 수립의 핵심그룹

- 경기도 문화원 발전방향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의 핵심그룹으로 11년 실시되는 '경기도 문화원 실태 및 요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문화원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아젠다 개발, 제시



〈경기도 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 과정(안)〉

역할 2. 31개 시, 군문화원의 소통 통로

- 도지회와 31개 시, 군문화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 3. 도지회 사업방향 및 실무진행 관련 자문

-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 관련 실무진행에 대한 자문
ex) 정책토론회, 문화원형 심포지엄, 민속예술제, 합동연수 등등

안전 2. 경기도 문화원 발전방향을 위한 실태 및 요구조사 관련 자문회의

- 실태 및 요구조사 관련 계획(안)_ 첨부 1(p. 5)
- 심층 현장인터뷰 문항개발을 위한 F.G.I (Focus Group Interview)
: 실태 및 요구조사에 앞서, 심층 현장인터뷰에 사용될 인터뷰 문항의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해 함께 살펴봄으로써, 인터뷰 진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보다 쉽게 즉석에서 수렴, 참여자 상호간의 논의를 통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쟁점이나 새로운 시각을 도출하여 앞으로 진행될 현장 인터뷰의 완성도를 높이하고자 함.

안건 3. 기타안건

- 경기도 문화원형 개발을 위한 심포지움 관련(협력:경기학연구실) :
 - 시기, 주제, 내용 등에 대한 논의
- 경기도 지방문화원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토론회(협력:경기학연구실)
 - 시기, 주제, 내용 등에 대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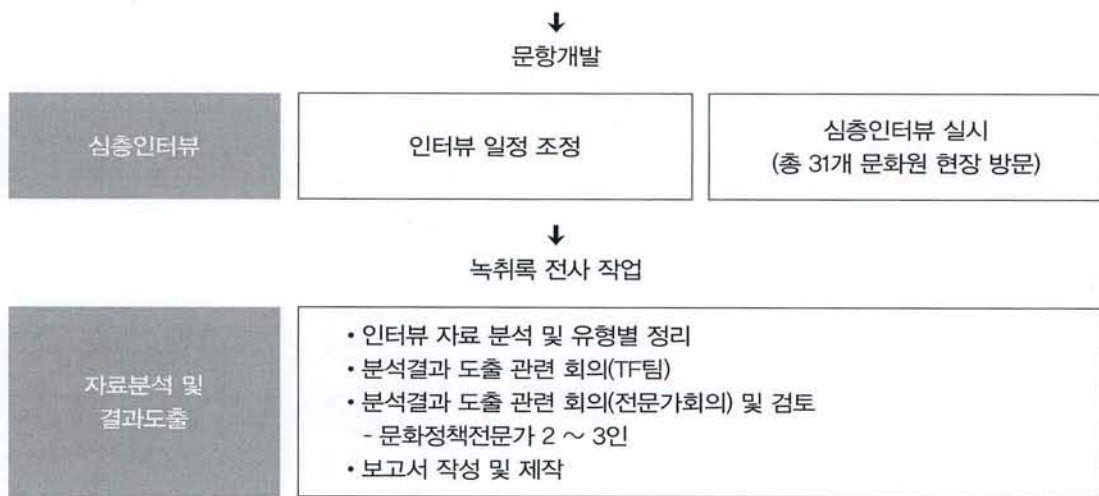
경기도 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을 위한 실태 및 요구조사 계획서

■ 연구개요

- 연구명 : 경기도 문화원 발전방향을 위한 실태 및 요구조사
- 연구기간 : 2011년 5월 1일 ~ 2011년 10월 31일까지
- 연구대상 :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원
- 연구형태 : 공동연구
- 연구진 : 구신자 외 2인 // 도지회 사무처
- 연구목적 :
 - 경기도 지방문화원 지원 방안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1단계로 경기도 문화원들의 실태 및 요구조사 실시
 - 정량적인 데이터 수집과 더불어 현장 심층인터뷰(정성조사)를 통해 지방문화원의 역할 및 공과를 영역별, 유형별로 파악하여 향후 지방문화원 정책 수립 시 객관적이고 정확한 참고자료 산출.
 - 이를 통해, 현재 지방문화원들의 문제점 공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공동 비전 및 목표, 발전 방향, 아젠다 도출.

■ 연구진행 과정

사전 단계	문헌조사	지방문화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선행연구 분석	질적연구 방법 문헌조사
	사전조사 인터뷰	F.G.I(TF위원) 1회	파일럿 인터뷰 (과천, 평택) 5월 3~4주	전문가 회의



■ 세부 일정

시 기	내 용	담 당
4월	책임연구원(단체) 선정, 계약체결, 연구진 구성	과업 주관 책임연구원(단체)
5~7월	문헌조사 및 인터뷰 문항 개발 지방문화원 심층인터뷰 실시	
8~9월	인터뷰 내용 분석 및 유형별 정리, 보고서 작성	
9~10월	최종 보고서 완료	
11월	연구보고서 제작 및 배포	한국문화원연합회 도지회 진행

■ 기대효과

- 계량적인 조사에 의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지방 문화원의 구체적인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경기도 지방문화원들이 발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비전 및 수립 방안을 제안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방문화원의 설립 법령에 기술된 활동범위 점검을 통해 지방문화원의 정체성 재확립과 함께 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 도출 가능
- 경기도 문화원의 운영 실적의 성공사례 및 그 요인을 분석하여 경기도 전 문화원에 확대·보급하고, 운영 실적이 미비한 사례 및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선처방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 각 지역의 고유한 유형·무형의 전통문화 발굴 및 전승, 나아가서는 보급, 발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두차례의 회의를 거쳐 1차년도 사업의 큰 방향을 잡고, 동시에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4) 경기도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

1.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

항목	실 태	요구	정책적 고려사항
지방 문화원의 고 유한 역할 및 기능	•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 선도적·지속적으로 창의적인 향토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문화기관에 전수 및 보급 • 지역단위 문화 활동의 거점 역할 – 문화원이 지역문화 행사 및 활동의 중심기관 •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문화원의 비전 재정립 필요 • 경기도전체문화원에 문화기획전문가 총원 정책 • 문화원 구성원의 문화원에 대한 정체성 재인식 필요

2.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행정제도 및 조직운영

항 목	현 황	요 구	정책적 고려사항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제정	• 2/5가 제정되어 있음 • 대부분의 문화원이 조례 제정 필요하다고 인식 • 제정 필요 이유 – 안정적 재원 확보, 문화원 사업 보호 • 제정에 부정적인 소수 문화원의 의견 –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 – 문화원의 방어능력이 선결되어야 함	• 조례 자체보다 조례 내용이 중요 • 연합회 차원에서 조례제정 위한 정책 지원	• 연합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 추진 방안 모색 – 문화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례 조항 개발 및 공유
사무국 인력	• 양적 자원 부족	• 직원 2명 총원 요망	• 연합회 차원의 정책

사무국 인력	• 질적 자원 부족	• 인력충원 분야 - 문화기획 전문인력, 학예사 (역사·고고학) • 기타 인력요구 분야 : - 평생학습사, 재정담당 인력 • 직원들의 능력개발 지원	• 연합회 차원의 정책 - 정부에 인력 충원 요구 - 전국 모든 문화원에 문화기획 전문인력, 학예사 지원요청
처우 만족도	• 처우만족도 : '나쁘다' 로 인식 평균 2.3 (5점 만점 중) • 처우만족도가 낮은 이유 - 낮은 급여 - 불안정한 신분 · 계약직 신분 · 정규직도 원장교체에 따른 신분 불안정 • 문화원간의 임금 편차가 큼	• 임금 인상 • 체계적인 임금체제 도입 : 연봉제, 호봉제 • 직원의 안정적 신분 보장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원장의 교체에 따른 직원 물갈이인사 타파 - 법적인 신분보장 요구	• 연합회 차원의 정책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 체계적인 임금체제 도입 요구 - 원장의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직원의 법적 신분 보장 체제방안 도입 시도
경상비 대 사업비 비율	• 경상비 대 사업비 비율 높음	• 경상비 비율 제고해야 함 - 인건비, 시설비 등 보충	• 연합회 차원의 정책 - 경상비 비율 제고방안모색 • 문화원 - 안정적 재정확보 노력 - 수익사업 도입
봉사단체 운영	• 운영 실태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됨 1. 자체운영 1) 문화원 자체봉사단 운영 2) 행사에 투입할 단기봉사자 모집 3) 회원, 동아리 멤버가 필요한 경우 봉사에 투입 2. 외부 봉사단체(지자체 등) 지원 받음 • 봉사 분야 1. 단순 업무(행사, 축제보조 등) 2. 전문분야(작가, 무용 기획 등)		• 문화원의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자원봉사로 활용 방안 모색
이사진의 참여	• 이사진의 참여도는 문화원마다 천차만별임 • 이사진의 참여가 높은 문화원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음 • 이사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 - 이사진들에게 완수할 임무 제공 - 이사진들에게 업무 할당하여 업무책임제 도입 - 이사진들과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 - 원장님을 통한 이사진의 참여 독려		• 문화 관련 전문능력을 갖춘 이사진의 전문능력의 적극적인 활용 • 이사진의 홍보대사로서의 역할강화

3.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사업개발 및 운영

항 목	현 황	요 구	정책적 고려사항
주요 이용층	• 어르신 - 특성 : 다른 유사문화기관에 비해 고학력자 은퇴자 - 창의적이고 참여형 프로그램 선호 • 주부 - 특성 : 여가활용 및 자기계발 목적 • 청소년 - 특성 :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지식과 경험을 접함 • 주 이용층은 동아리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문화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함		• 어르신과 주부의 참여형 수익사업 모색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한 방안	• 2/3의 문화원이 노력하고 있음 • 방법 - 각 계층이 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타기관(학교, 교육청, 영어마을 등)과의 협업		•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타기관(학교, 교육청, 영어마을 등)과의 협업 확대 및 강화
중점사업	• 축제 / 행사 - 이유 :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보, 지자체의 요청, 문화 도시 마케팅 • 문화교육 프로그램 - 이유 : 주민수요, 문화원과 시민과의 만남의 연결고리, 문화원을 창의·체험 학습의 장으로 성장시킴 • 발간사업 - 이유 : 향토사 계승 발전		
성공적인 사업	• 향토사 대중화 사업 - 한문연의 기획하의 공모사업 성공 -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교육과의 연계 • 지역축제 - 지역 문화 정체성 강화 - 지역 전통문화를 잘 활용한 콘텐츠 월미두레풍물놀이, 독산성문화제, 만안문화제, 구비문학 중 합모음 사이트, 노을브랜드화 사업, 오월문화행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등 • 회원의 예술 공연 - 동아리화된 문화예술 공연단의 활성화 • 기타 어르신들의참여형사업(인터넷신문사, 실버시장방송사업, 실버예술단), 가족답사프로그램(주말문화탐방), 방문교육사업 등		• 한문연, 경기도지회가 선도적으로 창의적이고 우수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유도 • 각 문화원에 문화기획전문가 총원 • 우선적으로 경기도 내 우수사업공유 필요 • 전국문화원에 우수사업공유 및 확대보급 필요 •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예시) - 학생 : 문화원 프로그램과 공교육의 교육 과정과 창의·체험학습 프로그램 연 계 시도 - 어르신 : 수익창출과 연계 • 각 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 그룹의 동아리화 유도 및 지원

항 목	현 황	요 구	정책적 고려사항
대표적 문화 학교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향토문화교육 예절교육, 전통예술, 가래해설 전설교육, 향토문화체험답 사, 역사문화 학교 등 - 여가 및 문화실기교육 서예, 가야금, 민요, 도자기, 풍물강좌, 민화, 규방공예, 드럼, 노래교실, 전통미술, 통기타 등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한국어학당,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강좌, 주한미군 대상 교육 - 가족단위의 문화 프로그램 : 주말문화탐방 - 청소년 프로그램 : 주말체험학습프로그램, 평택 - 중장년층 프로그램 : 지역문화교육(문화나들이, 지역문화 지킴이) - 군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 문제점 몇몇 문화원만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우선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우수프로그램 공유 필요, 전국의 문화원에 프로그램 공유 및 확대보급 할 정책 도입 • 지역 학교, 복지기관, 평생교육 기관, 대학, 지역소재 외국기관, 군부대, 병원, 교도소, 문화관련 지역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한 사업 개발 • 이후 정부기관(한국국제교류협력단), 국제기구(유네스코) 등과의 연계 모색
수익 사업 도입	• 수익사업이 필요한 이유 - 문화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 - 안정적인 재정확보 •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이유 - 법적 규제 - 수익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가능한 수익사업 분야 문화사업 위탁, 문화교육, 문화프로그램 창출을 통한 수익사업, 대관, 카페 등		• 문화원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규제 해제
홍보 수단	•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 - 전단지(신문, 아파트 메일함 등), 지역신문홈페이지 • 기타 홍보 수단 현수막, 브로셔, 지방신문, SMS, 지역TV(인터뷰, 자막), 운행중인 시내버스 차체 간판,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 첨단매체활용(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은 거의 하지 않고 있음(1개 문화원만 활용)		• 젊은층의 참여를 독려 • 첨단 홍보매체 활용(SMS,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방안

항 목	현 황	요 구	정책적 고려사항
지역인물 활용 프로그램	- 인물을 활용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음 - 향후에도 지역인물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콘텐츠 개발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		- 현재 개발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및 전국에 공유 및 상호교환 사업 필요 -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역문화콘텐츠의 지속적 발굴 및 개발 필요 - 보다 감성적이고 다양한 스토리텔링 필요
사업기획 방식	- 사무국기획 → 이사진 합의 - 지자체의 요구, 주민의견 고려, 외부전문가, 연속사업, 이사진 회의에서 사무국으로 전달		
프로그램 기획시 주민의 수요조사	- 체계적 실시(지필, 인터넷 설문조사) - 전혀 조사하지 않음 - 간단한 실시(회원에게 묻기 등)		
수입을 창출한 프로그램	- 문화교육 수강료 - 소액의 수익이지만 문화원 사업에 재투자 - 문화원 회비 적립 - 기타 : 타 기관과의 연계(CGV와 할인혜택 등을 통해 회원 수 늘림)		

4.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지역 기관과의 네트워크

항 목	현 황	요 구	정책적 고려사항
문화원의 위상 인식	- 문화원 위상이 대체로 높다고 인식 - 매우 높다(10개) - 높다(10개) - 보통(6개) - 낮다(4개)		
지자체와의 관계	- 지자체와의 관계는 대체로 원만하다고 인식 - 지자체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노하우 - 운영사업에 대해 의사소통 원활 - 정치적인 중립 유지 - 지자체의 업무 진행 시 애로사항 - 담당공무원이 문화 전문가가 아님 -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 - 지자체는 문화원을 지자체의 하위 기구로 간주	- 문화원을 지역문화의 행정거점화 문화원이 자생력을 길러 지자체의 위탁사업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수행할 사업 원천 제공 (예 : 이천 도자기 축제) - 지자체,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에 의해 문화원 지원 강화	

항 목	현 황	요 구	정책적 고려사항
유관 기관과의 협력	• 대체로 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2/3문화원) • 협력분야 - 1순위 : 문화교육 - 2순위 : 문화행사 • 협업 성과 - 문화원이 지역문화행정의 허브 역할 •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 - 1순위 : 각 기관의 이해관계 대립 - 2순위 : 협업 시 협력에 참가한 기관들의 정확한 역할의 부재	• 문화원이 유관 기관들의 협업의 허브가 되어야함 • 이상적인 협력 형태 - 1순위 : 협업기관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 2순위 : 공익이 충족될 수 있는 협력 - 3순위 : 공동된 목표를 위한 상부상조	• 공교육기관, 교육청, 대학, 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영어마을, 군부대, 주한미군, 병원, 교도소 등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협력사업 모색

5.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발전 방안

항 목	현 황	요 구	정책적 고려사항
자체종합 발전계획	• 많은 문화원이 추진계획 부재 - 추진계획 없음(17개) - 추진계획 있음(11개) - 추진 중(2개) • 대부분의 문화원은 자체종합발전 계획 수립 필요성 인식 • 추진하지 못한 이유 -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장기계획 수립할 여력부족 - 신분 불안정으로 추진 동기 미흡 - 기타 : 독립원사가 확보된 뒤로 유보		•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한문련 차원에서 공통된 종합발전 계획 수립
개별 문화원의 개선 사항	• 1순위 :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차별화된 업무추진 미흡 • 2순위 : 공간문제(부족, 노후된 시설) • 3순위 :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부족 • 4순위 : 경영마인드부족과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 미흡 • 5순위 :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미흡	• 공동 1순위 : 직원 처우개선, 직원능력 개발 지원 • 3순위 : 문화원의 고유 역할(전통문화계승) 강화 • 4순위 : 안정적 재정 확보 • 5순위 : 지자체, 정부와의 열린 소통 통해 문화원과 협력 강화 • 기타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협력하고 문화원이 선도적 리더 역할 담당	• 한문련, 경기도지회의 문화원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선결 -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수립 필요 • 위와 연계하여 각 문화원의 중장기적인 자체종합발전계획 수립 필요

항 목	현 황	요 구	정책적 고려사항
문화원장의 역할		• 1순위 : 유관기관들과 소통하고 협력 • 2순위 : 문화원과 문화원장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인식 • 3순위 : 재정 지원 및 확보, 문화원의 정신적 지주	• 문화원장의 연수 내용 채신 - 문화에 대한 젊은 감각 체득 - 문화원의 비전, 정체성 재인식 - 재정확보 방안
경기도지회 이 역할		• 각 문화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구축 • 경기도 문화원의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예산지원	• 경기도 문화원의 원활한 네트워킹 및 네트워킹사업 방안 모색 - 우수사업 및 사업 운영방식 공유 - 컨설팅 제공 - 상호 컨설팅 시스템 제공(상호 모니터링제 등) - 네트워크 사업 모색
한문련의 역할		• 문화원의 제도적·법적 지원 (지방조례 제정, 인건비 체제 통일) • 문화원과 공동이익증진 도모(협조자의 역할) • 문화원 직원의 처우개선 지원 정책 지원 • 기타 비전제시, 예산지원, 문화원 위상 제고, 지역 간 균형발전 유도, 우수운영사례 공유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전체 지방문화원의 제도적·법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다차원적인 지원 방안 모색 • 정부와 지방문화원의 가교 역할 수행 • 지방문화원의 경영과 운영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 모색 • 21세기 문화원의 비전 정립 및 제시 - 보다 젊은 문화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수립 - 세계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비전 수립 • 문화원에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하여 선도적 역할 - 현대적 관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전통문화 콘텐츠 발굴 및 보급 - 주제공모 및 자유주제 공모사업 확대 •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수립 •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여 디지털매체를 통한 지방 문화원 정보 공유 및 보급

항 목	현 황	요 구	정책적 고려사항
전국 지방 문화원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순위		• 1순위 :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문화원 발전계획수립 - 타당공론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한 문화원발전계획 수립 요구 • 2순위 : 지방문화원 컨설팅지원 - 문화원간의 상호컨설팅 필요 • 3순위 : 직원연수 - 직원의 능력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연수콘텐츠 요구(문화기획, 회계능력 등) • 4순위 :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 실용적인 정책토론 및 워크숍 필요 - 우수사업 및 운영방식 공유 • 기타 : 문화원장의 젊은 마인드 - 문화원의 정신적 지주로서 젊은 마인드 갖춘 원장필요	• 한문련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문화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경기도지회, 한문련은 문화원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수립(운영, 재정적 차원) - 문화원의 정확한 실태 파악하여 처방적인 지원정책 수립 필요 - 효과적인 컨설팅 방안 모색 및 제공 - 직원의 능력 개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직원연수 제공 - 실용적인 정책토론 및 워크숍 필요 (우수사업 발굴 및 운영방식 공유) - 네트워크 방안 모색 - 문화원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 지원

6. 경기도 지방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적 고려 사항

- ❶ 지방문화원의 명확한 비전 수립과 공유
- ❷ 다양한 세대를 위한 보다 젊은 문화원 구축
- ❸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강화
- ❹ 지방문화원의 역량강화
- ❺ 정부와 지자체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 강화
- ❻ 지역 네트워크 강화
- ❼ 다문화 대상 사업 개발 및 보급
- ❽ 다양한 영역의 사회교육 확대
- ❾ 경기도 지역문화의 세계화

[그림 N-1] 경기도 지방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적 고려 사항¹⁾

향후 추진 방향 도출

• 4개 집중 Key Word 도출

1. 조직, 법제
2. 문화예술교육
3. 축제와 문화사업
4. 향토문화연구 및 네트워크

• 경기도 지방문화원 주요사업의 카테고리 도출

1. 마을만들기 사업
2. 문화원형 연구, 조사 사업
3. 지역적 특수성에 근거한 지역브랜드화 사업
4.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마을조사사업

1차년도 사업의 결과 추출된 4개의 키워드는 향후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과 추진에 있어 선택될 아젠더를 훨씬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주요 기제다.

1) 2011년도 경기도 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수립을 위한 실태 및 요구조사 연구 보고서 참조

-

III

경기도 문화원
중·장기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2차년도 사업경과

-



1차 간담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의 간담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의 간담회」
- 일 시 : 2012. 6. 1(금) 12:00
- 장 소 : 수원시 솔가한정식
- 주요내용 : 문광위원회와의 친선 및 교류, 현안사항 및 시낭송회 관련 논의

□ 기획배경

- 경기도 문화원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의 교류 및 친선 도모
- 상호 정보 교환과 경기도 지방문화원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 요구
- 지역민을 위한 문화향유권 확대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논의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논의 필요

□ 세부일정

시 간		소요(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2:00	12:05	5	인사말씀(한문연 경기도지회장 정상중)	
12:05	12:10	5	격려말씀(문광위원장 김광회)	
12:10	13:10	60	중식 및 현안사항 논의	
13:10	13:30	20	간담회 마무리	

2차 간담회

경기문화재단과의 사업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간담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 지방문화원과 경기문화재단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간담회」
- 일 시 : 2012. 9. 5(수) 11:00
- 장 소 : 경기문화재단 6층 회의실
- 공동주관 :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
- 주요내용 : 문화원과 경기문화재단간의 파트너십 구축 방안 논의, 현안사항 관련 논의

□ 기획배경

- 경기도 문화정책이 실제로 구현되는 현장에 대한 이해 증진
-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사업의 일관된 사업 전개 시스템 구축을 필요
- 재단과 문화원의 지속가능한 사업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논의 필요

□ 세부일정

시 간		소요(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사회 : 최영주(문화원도지회 사무처장)
11:00	11:10	10	인사 말씀	한문연경기도지회장 정상종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	
11:10	11:20	10	참석자 소개	재단 참석자 소개	정상종 지회장
				문화원장 소개	
11:20	12:10	60	간담회		
12:10	13:30	80	중 식		일식 흐림
13:30			폐 회		

□ 제안사항

1. <재단과 문화원장 정례협의회(가칭) 구성>제안

- 경기도의 문화정책 수립 및 흐름에 부합된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31개 시, 군 문화원과 경기문화재단과의 사업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논의 구조(정례협의회) 필요.
- 재단 관계자와 시, 군 문화원장과의 협력구조 강화

2. 지방문화원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설 요청

- 문화원 자체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플랜을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음
- 광역단위 마스터플랜에 의한 체계적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설 요청
- 해외연수프로그램 지원 확대

3. 사업추진시스템의 다양화

- 현재 개별 시, 군문화원은 지자체 예산 비중이 대부분
- 향후 예산지원구조를 다양화 하여 사업의 질과 규모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사업예산구조의 다양화 모색
 1. 국비
 2.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 확대
 3. 국비-도비-지방비 매칭 사업 확대(재단과의 협력구조가 필요한 지점)
 4. 도비 - 지방비 사업 확대 (재단과의 협력구조가 필요한 지점)

3차 간담회

경기도청 문화체육관광국과의 간담회

□ 개요

- 사업명 : 「경기도 시, 군문화원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의 간담회」
- 일 시 : 2012. 11. 27(화) 12:00
- 장 소 : 일식 <호림>

□ 기획배경

- 경기도 문화정책이 실제로 구현되는 현장에 대한 이해 증진
-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사업의 일관된 사업 전개 시스템 구축 필요
- 경기도와 문화원의 지속가능한 사업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논의 필요

□ 제안사항 : 경기도와 시, 군 매칭사업의 확대 필요

1. 사라져 가는, 사라진 마을조사사업

- 경기도 전체적 차원에서 접근 필요
- 지역축제 등 정체성이 희박한 사업에 지역특성화 적용 가능
- 사라져 가는 근현대 기록 보존 절실(식민지 이후 근대사가 단절된 것과 같이 현대사 단절의 위기)
- 경기도와 각 지자체가 매칭사업 전개

2. 경기도 지역문화브랜드 개발, 육성 사업

- 경기도 문화정체성 회복을 위한 사업
- 마을조사를 통한 지역문화의 원천소스 개발
- 특성화 된 작품 창작, 개발 가능
- 정기적 홍보, 마케팅을 통한 도시브랜드화 가능

3. 문화원 특성화 사업 지원 요청

- 문화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 지원 확대 요청

경기도문화원 <조직과 법제> 아젠다 회의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을 중심으로 지방문화원의 조직 운영 및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들을 정리해본다.

1. 지방문화원의 조직 및 운영

1. 지방문화원의 회원 관리

- 가.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정관 제7조 1항)
- 나. 일반회원은 당해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써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정관 제7조 2항)
- 다. 특별회원은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지방문화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 가입원서를 제출한 자(정관 제7조 3항)
- 라. 원장은 회원가입 승인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정관 제7조 4항 2)
- 마.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지방문화원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정관 제8조)
- 바.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정관 제10조)

2. 지방문화원의 임원

- 가.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정관 제13조 1항)
- 나. 선임된 원장은 이사정수의 1/3범위 내에서 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정관 제13조 4항)
- 다. 임원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정관 제13조 1항)
- 라. 지방문화원은 정치·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정관 제16조)
- 마. 임원은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자격이 상실되며, 임원이 정관 제9조 3호(회비 및 채부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연도 말일날 자진사퇴한 것으로 한다.(정관 제17조 1항, 3항)
- 바. 원장 유고시 부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원장도 유고시 이사 또

2) 종전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었으나, 보고로 개정됨.

한 같다.(정관 제18조 2항)

사.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임원을 선임한다.(정관 제13조 3항)

아.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이사회 등의) 원장이 추대할 수 있다.(정관 제19조 1항, 2항)

3. 지방문화원 총회 운영

가.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정관 제20조, 21조 1항)

나.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정관 제21조 2항)

다. 총회 결의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의 1/3 이내로 한다.(정관 제20조 2항)

라.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은 총회 의결로 간주한다.(정관 제20조 2항)

마. 총회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14일 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정관 제21조 4항)

바. 총회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할 경우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안건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어야 한다.(정관 제21조 5항)

사.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는 앞의 “바”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정관 제21조 6항)

아.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산처분,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정관 제23조 1항 3)

자. 총회의결권은 제3자에게 1인에 한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정관 제23조 3항)

4. 지방문화원 이사회 운영

가.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회의개시 5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정관 제27조 2항)

나. 이사회는 이사에게 통지된 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정관 제27조 3항)

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정관 제 29조 1항)

3) 의사 정족수 따로 명기 없음.

라.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3자에게 위임 할 수 있다.(정관 제 29조 2항)

마. 의안이 정미하고 명백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정관 제29조 3항)

II. 지방문화원의 재정 운영

1. 지방문화원의 재정 관계 정관 규정

가. 지방문화원의 세입은 회원 회비, 기본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정관 제34조)

나. 지방문화원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정관 제35조)

다. 예산 편성은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결산서 작성은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관 제36조, 38조)

라. 회계감사는 년 1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정관 제40조)

2. 지방문화원 재정 운영 사례

가. 사례 I (○○ 문화원)

(2012년 기준)

재 원 별		세입 예산액(단위 : 천원)	비율(%)
합 계		632,620	100
자 체 수 입	소 계	160,970	25.4(100)
	회원회비	30,100	4.7(18.7)
	임원회비	9,600	1.5(6.0)
	협찬금	52,600	8.3(32.7)
	기 타	68,670	10.9(42.6)
보 조 금	소계	471,650	74.6(100)
	시.군비	345,250	54.6(73.2)
	도비	2,000	0.3(0.4)
	국비	60,000	9.5(12.7)
	특별지원사업비(연합회, 문화재단 등)	64,400	10.2(13.7)

나. 사례 I (○○ 문화원)

(2012년 기준)

재원별		세입 예산액(단위 : 천원)	비율(%)
합계		228,666	100
자체수입	소계	25,000	10.9(100)
	회원회비	6,000	2.6(24.2)
	임원회비	8,000	3.5(32.0)
	협찬금	4,000	1.7(16.0)
	기타	7,000	3.1(28.0)
보조금	소계	203,666	89.1(100)
	시·군비	115,666	50.6(56.8)
	도비	2,000	0.9(1.0)
	국비	60,000	26.2(29.4)
	특별지원사업비(연합회, 문화재단 등)	26,000	11.4(12.8)

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문화원 세입은 70~90% 이상이 의존재원인 보조금에 의존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라. 지방문화원이 착실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문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재정(세입) 대책이 있어야 하나 헌법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은 모두 선언적 의미로 실제 문화원에 보조금으로 집행되기까지는 거리가 있음.

3. 지방문화원 재정 운영의 문제점

가. 안정적인 자체 세입 재원의 빈약

나. 불안정하고 한시적인 시·군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음.

다. 지방문화원 사업의 추진 여부는 시·군비 지원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임.

라. 문화 관련 예산 지원의 근거

1) 헌법 제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 1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4)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 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책 방안 건의

가. 지방문화원이 착실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문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재정(세입) 대책이 있어야 하나 헌법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은 모두 선언적 의미로 실제 문화원에 보조금으로 집행되기 까지는 거리가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일정 부분(0.5% 내외)을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금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원됨으로서 안정적인 세입 대책 및 예측 가능한 중·장기 문화원 사업계획 수립 추진해야 함.

경기도 문화원〈축제와 문화사업〉아젠다 회의

- 일시 : 2012년 11월22일(목) 11시
- 장소 : 경기문화재단 6층 회의실
- 주요안건
 1. 경기도 문화원의 축제 및 문화사업
 2. 문화예술교육
- 목표
 - 두 안건에 관한 2013년도 아젠다 도출
 - 내년(2013)부터 각각 도출된 의제별로 별도의 논의구조를 가지고 심도깊은 논의, 공유하여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까지.

○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자!

적어도 경기도문화원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하는 사업 마련 필요

○ 이야기 할머니 사업(할머니가 들려주는 파주 이야기)

- 노인복지사업과의 차별성 문제 (중복지원-차별성 있는 사업 구상 필요)
-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 어르신 문화예술교육의 차원에서 접근
(학교문화예술교육 vs 어르신문화예술교육)

○ 구리 전래놀이

- 사전 소양 교육
- 커리큘럼개발
- 설화, 민담을 중심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의 현대적 재해석 필요
- 오산문화원에 전래놀이 양성교육 실시 (광진, 남양주, 오산)
: 특성화 된 사업이 몇개의 문화원과 협업하는 문화사업 구상이 필요

○ 육성기금 조성 연 가용이자 4-5000만원 정도 가능

(지역문화재단이 감당하는 기금사업 전개의 가능성)

○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의 비율의 줄이는 방법

1. 각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공통된, 비슷한 사업의 연계 필요

예) 문화답사를 하나로 묶자!

2. 해설사 양성(문화원에서 공통되게...)

-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시행 중.
 - 문화예술교육 개념(문화원식) 정리 필요
 - 공유하는 방법의 논의가 필요하다. (공유를 통한 선택?)
-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화?
- 사라져 가는 마을 조사, 사업은 문화원이 가지고 가야 한다.
 - 지역 역사교사들의 모임 구축 필요
- 각 지역에 향토사 관련 자료집적 구조를 문화원이 가져야 한다.
 - (지역 향토사 도서관 / 아카이브 구축 사업)
 - (향토사연구소 - 연구위원 조직화 - 구체적 활용)
 - (문화원 발간물 - 전자화 : 웹진 등 활용)
- 홈페이지, 서버구축 (사이버도서관) 활용
- 문화원 축적 자료의 저작물 관리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 문화유적 관리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문화유산 분양제 실시)
 - (1유적1단체자매결연맺기 시민운동적 접근)
 - 포천 27문화재 자매결연 사업 이미 추진 중.
- 회원 : 현재 무조건 수혜받는 존재이다.

축제와 문화사업

문화원다운 축제와 사업이란 무엇인가?

전국에는 이미 수천 개의 지역 축제와 문화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 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뚜렷한 사업목표와 콘셉을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경우에는 현재의 문화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이미 다른 축제 혹은 사업을 통해 소개 되어 지루함의 연속인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문화계의 흐름을 읽어나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해가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 조차에게도 외면 받고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원의 경우, 비영리 단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법인 단체에 비해 비교적 문화적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보니 작은 규모의 지역축제나 사업의 경우, 결국 지역민들의 입소문이 가장 큰 홍보이자 마케팅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화원만의 잔치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미 성공한 사업과 축제라 해서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한다는 법은 없다. 각 지역마다 선호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은 그 지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지역의 문화적 흐름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서교송 파주문화원 사무국장은 이러한 면에서 문화원다운 축제와 사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1절 기념행사, 현충일 추모행사와 같은 민족정기 선양사업과 신년단배례, 대보름축제와 같은 전통문화 전승사업, 향토사업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문화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이 맥락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각 지역의 특색을 얼마나 잘 담고 있는지의 차이일 뿐이다. 각 지역은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특색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사업들 혹은 축제들을 모방하는 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것(문화원형 혹은 특산품 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지역의 정체성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다각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지역의 문화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가능하게 할 전문인력도 문화원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사실상 문화원들이 전문인력을 갖추기 위한 상황은 되지 못한다. 그러기에 현재 문화원에 소속된 직원들을 재교육하기 위한 시도와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트렌드를 읽고, 그에 맞는 문화사업과 축제를 기획함으로써, 그 지역 대표 사업과 축제의 중심에 문화원이 자리 잡아야만 한다.

한번 성공한 문화사업과 축제는 그것을 지속·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무래도 문화원이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다보니 문화원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업의 흐름이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원은 정치인을 위한 단체가 아닌 시민을 위한 단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축제나 사업이 그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성장할 경우, 그것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업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 길이길이 남길 수 있을 만한 문화원다운 사업을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간혹 지자체, 혹은 다른 단체에 의해 사업이 뺏기거나 혹은 문화원의 역할이 작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의기소침해 할 필요 없다. '왜 그것을 문화원이 계속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자기비판을 통해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기 위한 재정비, 그리고 채찍질이 있다면 앞으로 문화원은 한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할 만한 사업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그것들의 중심에서 문화원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문화원 <문화예술교육> 아젠다 회의

- 일시 : 2012년 11월22일(목)11시
- 장소 : 경기문화재단 6층 회의실
 - 문광부 지정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위상이 있는가?
 - 문화학교 프로그램 / 주민센터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문화원 문화강좌는 학원인가?)
 - 문화학교 매뉴얼 정리 필요
 - 1. 문화원은 전통문화 교육 커리큘럼이 중심이다.
 - 2. 문화학교는 문화원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시민과의 접점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다.)
 - 3. 문화학교 강좌는 수준이 다르대?!
 - 4. 지역 문화센터와의 MOU체결 (학원과의 협력)
 - 문화학교를 명실 상부한 학교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 카네기는 시민교양강좌
 - 문화학교 프로그램 고급화 전략
 - 지역학 체계 정립
(지역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담아내는 큰 그릇으로 정립)
 - 문화학교는 기초문화적 욕구를 수용하는 차원이 현실
 - 시민과의 다양한 접점을 만드는 구조로의 활용
 - 문화학교와 문화예술교육 센터를 이원화 시켜서 사고해야 한다.
 - 문화원이 공통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공유, 공동 시행
(경기도 문화학교 설치 - 학교 설립- 인증 절차(교육청과의 연계)
(권역별 문화원 문화학교 특성화 문예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 * 광주문화권협의회 / 시흥문화권협의회 / 화성문화권협의회
 - 문화원이 중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학?)

- 적어도 전통문화 관련해서는 최고의 교육기관이다라는 자기 위상을 찾기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한국전통문화 / 세계전통문화)
- 재원 조성의 다양화 (토요문화학교/ 방과후 학교/ 다문화 사업)
- 문화학교 강좌에 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노령화 된 수강생 문제 해결은?)

문화예술교육

문화원 문화예술교육의 방향모색

1. 환경분석

1) 문제의 심각성

- 정부의 인식수준 : 문화학교는 20년전 컨셉, 이미 지방이양을 한 사업. 문화학교를 기억하는 공무원도 없는 상황(문체관광부 문화예술국 지역민족문화과).
- 정부정책의 변화 : '문화재단' 중심의 지역문화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 문화정책의 큰 방향
- 연세대 김형철교수 강연에서 등장한 '애니'와 '피터'와 '아버지' - 우리 문화원은 어떤 상황인가? 문화학교의 실상에 대한 냉정한 비판이 필요.
- 우리가 사랑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끊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 3C분석 - Customer, Competitor, Culture center

- 문화 소비자의 변화 : 수동적 문화소비자 -> 적극적인 생산자이면서 소비자(경제모호) : 프로슈머
-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 : 문화경쟁단체들(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기관 연합회, 문화의 집, 예총, 민예총 등)의 등장으로 점차 문화원 영역이 위축되고 있음.
- 문화원의 현상 : 대부분의 문화원이 20년전 컨셉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차별성이 없는 강좌식 문화학교를 운영. 한국문화원연합회도 개선방안이나 대안 없이 방치.

2. “현주소” - 문화원의 상황, 위기

- 전통문화와 향토사 분야의 독점적 영역을 갖고 있지만 문화강좌는 다양성이 없고 수동적인 강좌 위주임.
 - 2006년 한문연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연구 p.87를 보면 ;
“문화원의 정체성 확립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원만의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통성에 기반 한 문화프로그램이라도 사설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단순 문화예술 강좌나 펠트, 어학 강좌,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스피치 토론, 꽃꽂이 등 실용적인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양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하지만 그 이후에 문화원은 뭘 했나?
 - 문화원은 주로 강좌(예절교육, 전통예술, 고전강독 등 향토문화교육 강좌, 가야금, 풍물, 미술, 성등 여가 및 문화실기교육), 체험프로그램(주말문화탐방, 체험학습)이 주된 교육사업으로 지역 내 다른기관단체의 교육사업과 그리 큰 차별성과 강점이 없는 상황.
- ▶ 다른 새로운 문화기관들의 등장과 문화사업 확장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문화원은 사업의 다각화에 대한 그런 인식도,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음.

3. 방향 모색

1) 다른 강좌와 큰 차이가 없는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이 아니라

- 지역사회 속의 문화, 지역특성화가 담보된 ‘문화예술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경쟁자 모델이 아닌 협력자, 파트너 모델 제시) 문화학교의 역할과 기능, 교육내용을 개선해서 새롭게 포지셔닝하는 노력이 시급함
- 지역사회에 정말 모범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도입, 개발, 소개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문화강좌 단체와 강사들에 대한 교육,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이천에서도 이런 요구!)

2) 과거형 전통문화 강좌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 전통에 대한 이해 위에 새롭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어야 함.
- 현재의 주민과 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방향 제시를 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함.
- 이제는 문화와 관광, 시장, 농촌, 복지, 교육, 이주민, 국방, 지역재생 등 다양한 문화 외적인 영역과의 접목, 융합, 통섭이 요구됨

3) 단순히 1차적인 기능습득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백화점식 강좌가 아니라

- 자아발견과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이끌어 내고, 다양한 방법과 시각, 감성을 길러주는 것,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성, 감수성, 도전과 사명감을 발견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리모델링
- 기존의 전통강좌와 인기강좌를 잘 그룹핑해서 그것대로 키우면서 새로운 영역, 새로운 분야의 모델 문화예술교육강좌를 시도
-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기존 문화강좌 바꾸기를 해야 한다. 새로운 문화기획강좌가 나와야 함.

4. 결론

1) Re-touching, Re-modeling, Re-structuring

가. 내년 예산수립시 문화학교 예산에 이런 강좌 리-모델링 연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강사교육프로그램, 강좌개발프로그램 등을 할 수 있는 워크숍 필요.

나. 결론적으로 지역에서 가뜩이나 너도나도 하고 있는 기능습득 위주의 강좌에서 벗어나 기존의 틀에 박힌 문화학교 강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 해 할 일은?

다. 기존문화학교의 리-모델링, 리-스트럭처링 위해서 여러 문화장르간 통합, 융합을 통한 창조적인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나 강좌를 어떻게 개발할 것 인가?

▶ 예산문제는 1) 재능나눔강사 활용, 2) 관련사업을 문화학교와 접목해서 강사비 등 교육실시

2)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시도

- 통합적인 지역문화를 해설하는 문화스튜어드 강좌
- 글로벌교류 확대에 맞춘 외국인을 위한 영어, 일어 가이드 양성 강좌
- 해외문화탐방을 위한 소승불교, 힌두교 등 지역별 여행문화강좌 → 문화원은 공정여행 컨셉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 학교현장에 가서 교가를 가지고 문화해설을 하는 양성자과정
- 공정문화탐방, 공정여행 → 문화원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문화탐방을 설계, 가이드해주는 전국망 사회적 기업 설립도 해볼 만함. 각 문화원 1인씩 인력 고용, 문화사랑방 찾집도 가능.

3) 몇 가지 사례

- 논어강좌, 주역강좌 → 지역을 새롭게 해석하고 안목을 열어주는 강좌로 새로운 전형을 보여 주어야 함 → 쉽게 : 신영복교수의 고전강좌 같이, 지역과 관련하여 : '지금 여기에'를 기반으

- 로 단발성이 아닌, 미래 전망과 문화인재역량이 길러지는 강좌로 재설계 필요
- 우리춤강좌 → 단순히 춤동작을 익히는 강좌가 아닌, 우리 지역의 스토리, 테마를 주제로 한 춤을 만들어가는 과정, 축제 때 발표, 공연으로 이어짐
- 인형극 → 지역사회를 소재로 한 설화, 민담을 가지고 매년 한 개씩 새로운 공연물 인형극 과정을 개설해 쌓이도록 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함
- 어르신문화학교 → 어르신문화학교는 문화학교에서 진화해서 살아남았음. 단순 강좌가 아닌, 수혜적 프로그램에서 성취를 느끼고 자립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지역교가를 활용한 향토교육사업 → 지역 학교의 교가를 활용해 지역의 인물, 지명, 사건, 키워드를 풀어내는 작업과 지역향토사 교육 사업. 교가 해설사로 그 학교 아이들을 교육하는 시도.

5. 기타 : 한국문화환경의 변화와 문화원

- 다양한 영역의 사업 시도가 필요함. 문화원의 비전,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이를 달성기 위해 필요한 공모사업과 예산을 끌어올 수 있게 전체를 파악해서 신청공모사업의 범위와 시기, 대상을 플래닝해야 함.
- (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공모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경기도문화원 <향토문화네트워크> 아젠다 회의

향토문화연구소와 함께하는 문화원 위상 높이기

이미 경기도 시군문화원 대부분이 향토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문화원에 따라 연구소 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문화원이 향토사업을 중시하는 만큼,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은 각 문화원 사업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향토문화연구소에서는 향토위원을 두어 연구논문집 발행과 학술회의 개최 등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문화원에 따라 이러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문화원형개발의 일환으로 음악·미술·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장르와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를 이용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정체성 살리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윤종준 성남문화원 상임연구위원의 발표는 현재 그가 소속되어 있어 '성남문화원'의 사례를 통해 향토문화연구소가 지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것이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곧 성남문화원의 사례가 아닌,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 넓게는 전국에 설치된 향토문화연구소들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첫째, 향토문화연구소의 가장 큰 역할은 연구사업이다.

현재 지방문화원은 그 지역에 대한 가장 많은 향토자료를 가지고 있는 곳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가장 광범위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진행형에 있다. 또한 이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논문집이 발행되고 있어 많은 역사가들이 문화원, 그리고 향토문화연구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다. 대부분의 자료가 1차 사료, 즉 자료집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한 2차 연구, 3차 연구가 이뤄져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문화원이 한정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겹치기 자료도 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토문화연구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각 자료를 중심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해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향토문화연구소를 통한 문화사업의 진행이다.

성남문화원의 경우, 국경일 기념식, 민속문화 사업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민속문화나 국경일 기념식을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전개 중에 있다. 특히 성남문화원의 '새해 천제봉행'처럼 매해 1월 1일부터 각 문화원은 각 지역의 문화 사업을 지역주민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요즘 젊은 층들은 국경일이나 명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원들을 통해 진행되는 문화사업들을 통해 국경일이나 명절의 진정한 의미를 전할 수 있어 그 의의는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의미가 강한 풍습들이 지역사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칫 특색 없는 생색내기 행사가 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아이템 개발이 필수일 것이다. 또한 문화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하는데, 고증에 의한 전통 모습을 그대로 보존·전승하기 위한 시도가 다 각면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매우 중요한 향토문화연구소의 역할이다.

이미 문화원이 아니더라도 각 지역에는 그 지역의 역사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존재한다. 각종 보존회나 문중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연계는 그들 단체뿐만 아니라 문화원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그들과 지속적인 사업을 연계해 나간다면, 그 단체는 수준 높은 강사와 자료를 제공하고, 문화원들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이다.

윤중준 향토연구위원은 위에서 제시한 3가지 외에도 교육, 해외 문화교류, 문화재 보존활동 등 다양한 향토문화연구소의 역할을 성남문화원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문화원이 지역문화 전문기관으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확립하는 데에 있어 향토문화연구소가 큰 역할을 맡고 있음에는 믿어 의심치 않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향토문화연구소의 역할도 변화해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역사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며, 전문성 있는 역사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

IV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성과 및 경과

-



I. 계획수립 개요

II. 현황 및 문제점

III. 문화원 환경과 전망

IV.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V. 중점추진과제

1. 문화원 자체역량 제고

- 1-1. 내부 운영혁신을 통한 자생력 강화
- 1-2.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자율 · 선도기능 강화
- 1-3. 전략 및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 1-4. 주요 정책 및 연계사업 추진 중심역할 수행
- 1-5. 전국문화원 운영평가제도 도입

2. 지역문화발전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 2-1. 지역문화아카데미 개설 · 운영
- 2-2. 향토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 2-3. 문화역사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 2-4.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
- 2-5. 대한민국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3. 문화원 발전기반 조성

- 3-1.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등 법 · 제도 개선
- 3-2. 시설 및 공간 확충 지원
- 3-3. 문화원 사업 활동여건 개선
- 3-4. 지역문화기관 ·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 3-5. 지역문화재단과의 역할정립

VI. 기대 효과

- 별첨<1> 권역별토론회_결과보고
- 별첨<2> 권역별토론회_사업별 내용
- 별첨<3> 권역별토론회_전문가조사
- 별첨<4> 2009 지방문화원실태조사_총괄(표)
- 별첨<5> 2009 지방문화원실태조사_권역별세부현황
- 별첨<6> 2009 지방문화원실태조사_우수프로그램

1. 계획수립 개요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거점으로서 지방문화원 활성화 필요

- 중앙 및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을 민간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거점센터로서 전국 지방문화원의 활성화 대책 필요

□ 지역문화 정책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원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필요성

- 문화원이 지역문화활동의 매개자와 촉매자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발전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필요

□ 법적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및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 지방문화원 정책 변천

구분	세부내용
1961~1981년 (제 3·4 공화국)	- 국고보조금 지원(1962~72) - 지방문화사업조성법 공포(1965) - 문예진흥기금 지원(1981~1990)
1982~1992년 (제 5·6 공화국)	- 국고보조금 재개(1991)
1993~1997년 (문민정부)	- 지방문화원진흥법제정(1994) - 설립 허가 및 지도감독권,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 (1996) - 경상사업비 국고(1,900만원/지방비 50%매칭별도)지원(1997)
1998~2002년 (국민의 정부)	- 경상사업비 국고(1,900만원/지방비 50%매칭별도)지원
2003~2007년 (참여 정부)	- 설립 인가 및 지도감독권, 시·도지사에게 이양 (2003년) -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일반회계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2005), 1,900만원(지방비 50% 매칭별도) 지원
2008~(현정부)	- 분권교부세 지원 5년('10년~'14년) 연장(2010)

II.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1) 문화원 현황

□ 조직

- 227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중(7개 지자체 미설립)
- 문화원 회원 수 : 127,619명
- 운영조직 : 총회, 이사회, 사무국, 운영위원회, 향토사연구소 등

□ 사무국 인력 및 시설

- 인력 : 총 227개 문화원 696명, 현재 약 70%가 3명 이하 운영
※평균 3.1명, 문화예술분야 전공인력 26%
- 시설·공간 : 문화원평균 운영기간 32.3년
※법정 기준(330㎡) 미달 문화원 77개원(34%), 복합시설 및 개인건물 임대 73개원(35%)

□ 재원

- 현재 분권교부세로 1개 문화원 당 5,800만원(지방비 매칭포함) 지원
- 전체 227개 문화원 중 82개 문화원 기금 조성(평균 기금규모 275백만원)
- 재정자립도 21.78%(2009년 기준)

□ 사업 및 프로그램

- 총 7,650여개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문화원당 평균 33.7개)
 - 사업유형은 문화예술·사회교육(52.8%), 축제·행사(10%), 공연(9%), 연구·발간(8%) 등

2. 문제점

□ 조직 운영상 문제점

-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약화
- 원장 등 문화원 운영진의 경영마인드 부족
- 지역문화 구심체로서 네트워크 미흡

□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점

-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전략프로그램 개발 미흡
- 특색 없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원의 정체성 문제 제기
- 향토문화자료를 방대하게 축적하고 있으나 활용율 저조

□ 인적 자원 및 재정여건 등 열악

- 필수 운영인력 미확보 및 낮은 보수로 전문인력 확보 곤란
- 사업비 등 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국고, 지방비 등에 의존 (약 78%)
- 다양한 기능 수행을 위한 공간 및 시설 부족

□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부족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와 대응 미흡
- 지역문화 수요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부족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도기능 미약

- 16개 시도지회 및 227개 지방문화원과의 강력한 네트워크 부족
- 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 등 지방문화원 선도 기능 미약

III. 문화원 환경과 전망

□ 지방문화원 정책환경

- 문화의 다양성 강조와 향토문화,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고
- 지역별 고유한 문화콘텐츠를 살린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조 필요
 - ※지역의 문화자원 유형 파악 및 진단, 전략적 선택을 통한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저출산 고령화와 다문화 등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문화복지 정책 강화에 따른 지방문화원 역할 증대
- 기초지자체별 다양한 문화기관·시설 등이 설립되면서 기관 단체 상호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역할 조정 필요성 제기

□ 문화원 환경변화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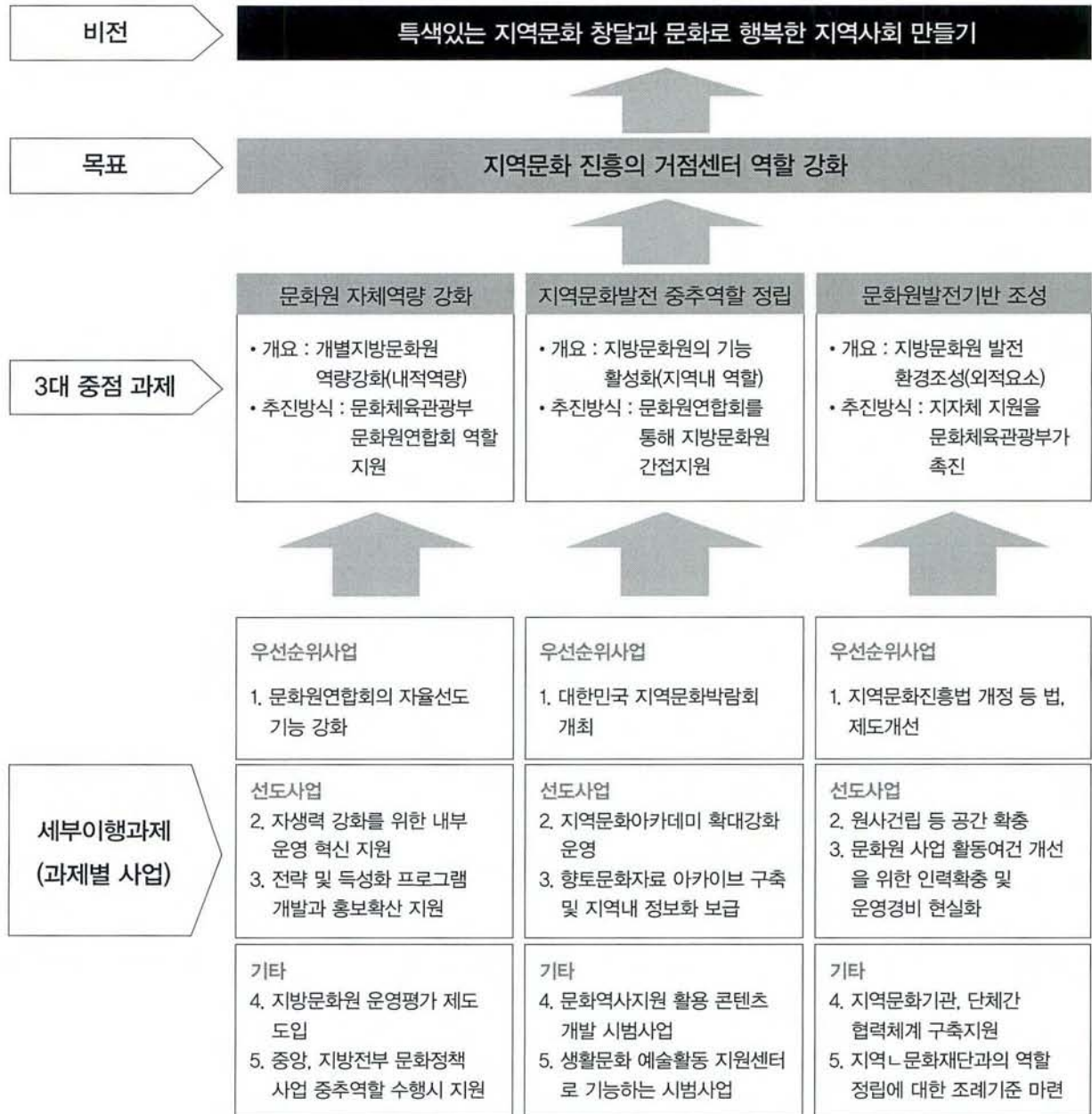
정 책 환 경	전 망
문화정책 구현과 지역문화 활성화	· 국가 및 지자체 문화정책 구현을 위한 지역거점 역할 · 지역의 타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복지 강조와 문화향유권 강화	· 주민의 경제적 제약과 주민 접근성 문제해결 / 밀착형, 생활맞춤형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확충 및 프로그램 확대
지역문화 창달 기반마련	· 지역문화예술전문인력 및 활동가 육성(문화예술교육기관과의 연계) · 지역의 고유자원활용을 통한 특성화된 지역문화 창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지역문화의 자원, 문화원형 보존 기관으로 관리 · 새로운 지역문화 창조의 원천으로서 문화원 활용

□ 단위별 문화원 현황 및 향후 역할

구분	현 황	현 황
시단위	· 설립, 운영된 지 대부분 오래됨 · 군, 구(광역시)에 비해 기능 및 역할 활성화 ·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확산 · 지역문화예술 인력의 활동지원 ·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환경조성
군단위	· 설립, 운영된 지 대부분 오래됨 · 지역 유일한 문화시설이 다수 · 재정 열악한 편	· 생활밀착형 문화생활 환경 제공 · 전통문화자원의 콘텐츠 개발 · 기층단위 문화예술교육기관
구단위(광역시)	· 역사가 짧은 문화원 다수 · 타 문화시설과의 경쟁에서 열세 · 정체성과 차별성 부족한 편	· 지역문화선진화 및 서비스 확대 ·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활성화 유도 · 지역의 역사성 발굴

Ⅳ.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1. 목표 및 기본방향



□ 기본방향

1. 환경변화와 지역 여건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새로운 역할 정립

- ▶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형 등 지역특성에 맞는 역할 수행
- ▶ 축적된 향토문화자료 등을 활용, 문화 발신지로서 기능 강화
- ▶ 생활문화활동과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지방문화원의 역할 강화

2. 지역문화 종합정보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 ▶ 지방문화원 소장 자료 및 지역내 보유 문화자원들을 수집·분류 정리하여 DB구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비스 확대
- ▶ 지역의 역사, 문화 등 지역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기능 강화

3. 지역 고유문화의 조사·연구중심에서 창조적 계승 및 활용으로

- ▶ 창조적 문화콘텐츠 생산 및 활용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 ▶ 고품격 문화콘텐츠의 창출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실현, 품격 있는 지역사회 구현

4. 사회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 다문화사회 대비 한국사회가 다양한 문화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로 지속·발전하기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 요구
- ▶ 지방문화원이 전통문화 보존·전승기관에서 즐기면서 배우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역할 강조
- ▶ 소외 지역·계층 대상 프로그램 강화

5.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사업 추진기관으로서의 중추역할 수행

- ▶ 국가 또는 지방정부 추진 정책 사업을 민간차원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집행 역할 강조

2. 추진 전략

- 간접지원방식을 통해 지방문화원의 자생력 기반 조성
-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 전국 확산
- 지역내 문화관련 기관·단체간 상생협력·발전체계 확립
-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발전 모델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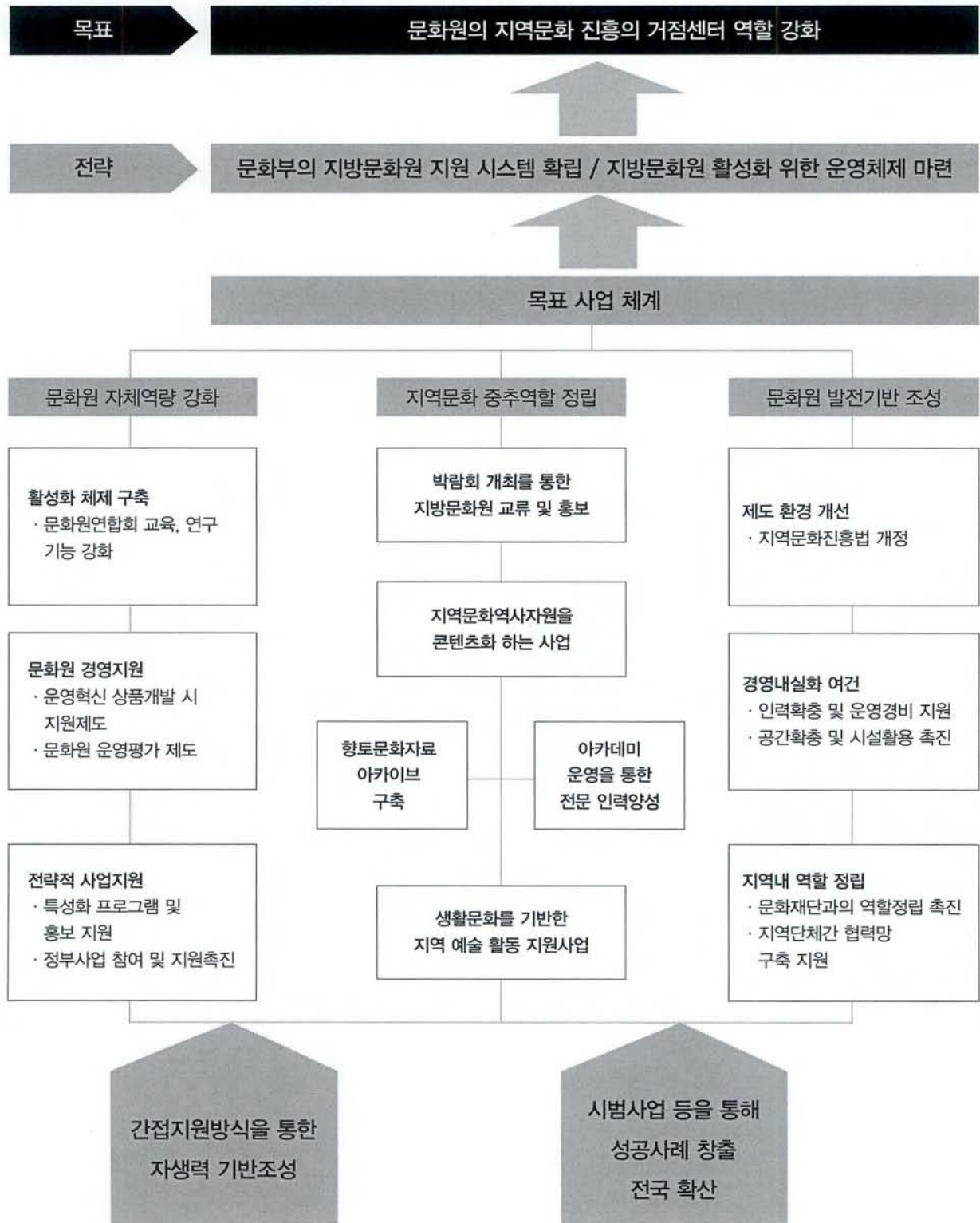
3. 추진 과제

정책방향	추진과제
문화원 자체역량 제고	• 내부 운영혁신을 통한 자생력 강화 •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자율·선도기능 강화 • 전략 및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 주요 정책 및 연계사업 중추역할 수행 • 전국 지방문화원 운영평가제도 도입
지역문화발전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 지역문화아카데미 개설·운영 • 향토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 문화역사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 • 대한민국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문화원 발전 기반 조성	•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 시설 및 공간 확충 지원 • 문화원 사업 활동여건 개선 • 지역문화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문화재단과의 역할 정립

4. 추진 주체별 역할

실행 주체	내 용
지방문화원	문화원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자체 역량을 위한 구체적 사업 발굴·추진 등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자생력 및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방문화원에 대한 예산 및 정책사업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법, 제도 개선 등 문화원 발전기반 구축 지원, 국가 정책사업 실행기관화를 통한 간접 지원

5. 목표 사업 체계



V. 중점 추진과제

1. 문화원 자체역량 강화

1-1 내부 운영혁신을 통한 자생력 강화

문화원 자체 내부운영 혁신을 통한 자생력 강화

- 선진형 조직 구조 및 운영체계 개편
- 문화행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자율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으로 대부분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외 의존적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독립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문화원이 20~30년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외부의 변화에 둔감하고 폐쇄적 조직운영으로 지역의 대표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함

■ 추진방향

-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선진형 조직 구조 및 운영체제로 개편, 자체역량 강화
- 문화원 운영에 경영개념 도입, 자구노력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 추진계획

- 전국문화원 경영혁신 추진
 - －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각 2개원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전문기관에 의한 경영진단 및 발전 모델 마련
 - － 경영진단 결과 및 도출된 발전방안에 따라 각 지방 문화원 자체 경영쇄신 방안 마련, 시행
 - － 우수 추진 문화기관에 대해서는 시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사업 수요에 부응한 사무국 조직의 연성화
 - 지방정부와 지역기관의 여성, 가족, 환경관련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문화원 외연 확장
 -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인턴 또는 자원봉사제를 통해 지역의 잠재적 인력 활용
- 자구노력을 통한 자체 재원 확충('09년 평균 84백만원 → '15년 126백만원: 평균 50%증대)
 - 지역문화자원 활용 문화원 고유상품 개발·판매
 - 예) 평택문화원(숫대 제작, 연간 수익 약 30백만원 / 평택 옷다리 농악 캐릭터 활용·상품개발 연간수익 약 10백만원)
 - 향토기업, 지역기반 기업 등과의 '1기업 1문화원 결연' 추진, 후원금 유치
 - 예) 울주문화원 - 삼창기업, 평창문화원 - 허브나라/축협
 - 각종 운영프로그램의 수익자 부담 원칙 확대
 - 예) 동작문화원 각종 강좌 수익금 62백만원 기금적립
 - 회원 배가 운동 전개, 회비수입 증대

■ 기대 효과

- 자생력을 높여 문화원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 지역내 문화활동 중심 거점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
- 내부 운영혁신을 통해 자체역량을 강화하여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

■ 추진 주체 : 지방문화원

1-2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자율·선도기능 강화

전국 지방문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기능 강화

- 지방문화원 선도·지원기능을 통해 문화원 역량강화 도모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지도 및 지원, 문화원 종사자들의 자질향상 등이 주요 사업이나 조직체계 및 전문성 부족
- 현재 소수의 인력으로 국가정책사업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등의 업무과다로 연구 기획, 교육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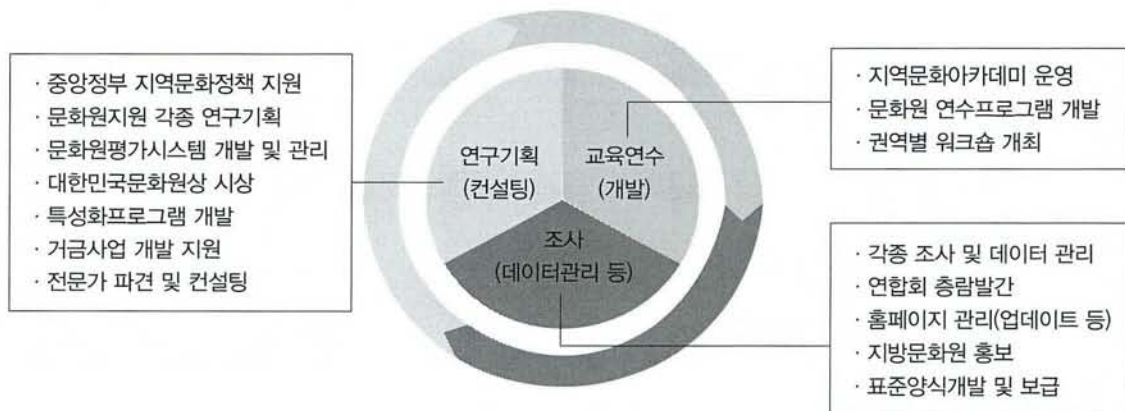
수, 평가, 컨설팅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

■ 추진방향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 연합회 사업 조정 및 확대
- 문화원연합회의 자체 경영혁신을 통한 역량 강화
- 문화원연합회를 중심으로 자율적 발전 지원
- 문화원장과 사무국 직원에 대한 재교육 강화, 자체역량 제고

■ 추진계획

- 문화원연합회의 경영혁신 추진
 - 경영 컨설팅 전문기관에 의한 경영진단 실시
 - 경영진단 결과 및 도출된 발전방안에 따라 한국문화원 연합회 자체 경영쇄신 방안 마련, 시행
- 지방문화원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
 - 분야 : 기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문화상품 개발, 홍보 등
 - 방법 : 전문가 풀 구성, 상설 컨설팅단 운영
(온·오프라인 컨설팅/재능 기부제 도입, 최소실비 지급)
- 문화원 종사자 재교육 강화
 - 대상 : 문화원장, 사무국장 등 총 600 여명
 - 방법 : 위탁 교육 또는 연합회 주관 교육(연간 3회)
 - 내용 : 경영기법, 프로그램 기획, 홍보전략 등
- 한국문화원연합회 주요기능 및 역할 확립



■ 기대효과

- 지방문화원의 역량 강화 및 운영활성화에 기여
- 중앙단위 정책사업 기획 등의 자문역할 수행 및 타부처 연계사업 유치 등을 통한 지방문기획, 전산, 교육 등 전문인력 4명 보강

■ 추진주체 : 한국문화원연합회

1-3 전략 및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문화원별 전략 프로그램 개발, 브랜드화

- 지역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방문화원의 경쟁력 강화
- 문화원연합회는 프로그램 은행 구축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문화원의 역량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며, 특히 대도시 문화원의 경우, 타 시설과의 경쟁 불가피로 특화된 전략프로그램 절실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차별성 부족

■ 추진방향

- 대표적인 향토문화자원의 아이콘화를 통해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 지역별, 생활권별, 유형별 특화 사업 개발
- 우수 프로그램 은행 구축, 활용

■ 추진계획

-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예시)
 - 대도시형 : 지역문화 답사프로그램(도·농 문화교류), 문화강좌 등
 - 예) “박물관대학”(송파문화원)

- 중·소도시형 : 다문화, 환경·시민단체 등과 연계 프로그램 등
예) 신들의 만남 '다문화를 이야기 하다' (강릉문화원)
- 농·산·어촌형 : 향토문화자원 활용 프로그램,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등
예)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 사랑 여행' (문경문화원)
- 문화원연합회 특화 프로그램 개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축매자로서 전국적 홍보 및 확산

■ 기대효과

- 문화원 경쟁력 제고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 추진주체 : 지방문화원/한국문화원연합회

1-4 주요정책 및 연계사업 추진 중심역할 수행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지방문화원의 정책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타 문화기반시설과 비교하여 지방문화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능력 보유

■ 현황 및 문제점

- 기초 생활권 단위에서 추진할 중앙정부의 다양한 정책사업을 공모방식 등을 통해 선정하는 사례가 많으나 문화원의 인식부족 또는 역량 미흡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함
예)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 - 강릉 문화원 등 전국 8개원 참여
- 도시에 비해 역사성과 영향력이 큰 편인 시·군 단위 문화원의 경우 중앙 및 지자체의 정책사업 수행 시 파급력이 강해 정부에서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추진방향

-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연계 정책사업 개발 추진
- 창의적인 문화프로그램 기획으로 각종 공모사업 참여
-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시스템 구축, 위탁사업 및 정책 연계사업 추진

■ 추진계획

• 문화부 정책연계 사업 추진

- 고령층,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사업
예1) 고령층 : “산촌음식에서 문화를 찾다” (평창문화원), “잉벌로밴드” (시흥문화원)
2) 문화소외계층 : 찾아가는 문화한마당 (고흥문화원), 찾아가는 문화원 (연수문화원)
3) 다문화가족 : 다문화국악뮤지컬 “러브인아시아” 지역 순회공연(부안문화원 외)
- ‘문화로 촘촘히’ 사업 등 찾아가는 프로그램 사업
예1) 전문강사파견 프로그램 (북구낙동문화원 외 14개원)
2) 문화나눔봉사단 (은평문화원 외 25개원)

• 타 부처 연계 협력 프로그램 유치 및 프로젝트 수주

- 정보제공 및 문화원연합회를 통한 컨설팅 지원
※연합회 연구기획기능 강화(전문조직화), 분야별 전문가뱅크 구축 및 지원
-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등의 정책사업 참여(공모사업 등)
예1) 향토문화 소재발굴 창작뮤지컬 제작 『뮤지컬 의순공주』(경기도교육청 / 의정부문화원)
2) 어린이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철원교육청/ 철원문화원)
3) 다문화전문강사지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구리문화원)
- 타 부처 소관 지역시설(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등) 운영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협력
예) “강따라 문화따라”(전북대 평생교육원과 함께 만경강을 따라 완성된
문화와 생태를 아우르는 만경강 생태·문화해설가 양성 : 완주문화원)
•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시스템 구축, 위탁사업 및 정책 연계사업 추진
- 지역축제, 공연·전시·교육 프로그램 등 지자체 위탁 또는 정책 사업 주관
• 지역 내 문화기관·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 상호 교류와 공동·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대효과

- 문화원 역량강화 및 운영활성화에 기여

■ 추진주체 : 지방문화원/지자체/중앙정부

1-5 전국 문화원 운영 평가제도 도입

문화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원 경영평가 체계도입

- 문화원 발전 유도, 바람직한 모델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원의 경우 지역에 따라 규모 및 역량에 편차가 커서 차별화된 평가체계 확립 필요
- 문화원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경쟁원리에 입각한 문화원 운영 개선을 하기 위해 평가에 대한 문화원의 인식 필요

■ 추진방향

- 지방문화원 운영 평가제 도입, 상호경쟁을 통해 자율적 성장 견인
- 지방문화원(연합회 포함) 정기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 추진계획

- 문화원 운영 평가체계 확립 및 활용
 - － 평가주체 : 문화부 / 문화원연합회
 - － 평가대상 : 전국 227개 지방문화원
 - － 평가주기 : 매년(※외부 평가단 운영)
 - － 평가내용 : 내부 운영 혁신, 지역문화발전 기여도, 프로그램운영 수준, 문화인력 양성·교육, 경영성과 등
 - － 평가 활용 : 시상, 인센티브 등 지원 차별화, 우수사례발표 등

■ 기대효과

- 운영평가제 도입을 통해 지방문화원간 경쟁유발 동기 부여
- 우수한 문화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격려함으로써 성장 견인

■ 추진주체 : 문화부 / 문화원연합회

2. 지역문화발전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2-1 지역문화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지역문화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역문화아카데미 개설

- 문화부 지역문화아카데미과정과 문화원연합회의 지역문화경영과정 통합,
- 지방문화원 내 '지역문화아카데미' 일반 과정 개설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문화경영과정은 2006~2010년까지 초급135명, 중급 129명, 고급 20명이 수료하였으나 문화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확실한 교육 인센티브가 없어 동기유발이 부족함.
- 기존의 문화부와 연합회가 운영하는 지역문화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체계화한다면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

■ 추진방향

- 우리부 내 유사 사업과의 효율화, 전문성 제고
 - 우리부의 「지역문화아카데미」사업(연간 2~3회)과 문화원연합회의 「지역문화경영과정」(연간 1회)을 통합·운영
- 지방문화원 활용 지역문화아카데미(일반과정) 시범실시 후 연차적으로 확대

■ 추진계획

- 전문가 과정
 - 대상 : 지역문화활동가, 문화관련 기관·단체 종사자·지자체 공무원 등
 - 주관 : 문화원연합회 또는 전문단체 위탁
 - 교육 횟수 : 연간 3~4회(회당 5일 과정) 운영/ 회당 약 40명
- 지방문화원 아카데미 과정(일반 과정)
 - 대상 : 일반인, 문화관련 종사자 등
 - 주관 : 지방문화원 ('12년 10개문화원 시범실시 후, 연차적 확대)

- 교육 횟수 : 매주 1회, 연간 총 20회 / 문화원 당 약 40명
예) 통합 명칭사용 및 인증 방안
- (가칭)통합명칭 : (가칭)RCMC(regional culture management consulting)
- 수료방법 : 문화부장관인증 문화원연합회 발행

■ 기대효과

- 문화원인력의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인 교육실시 가능
- 지역문화아카데미를 통한 지역문화 활동인력의 허브 역할
- 지역문화활동가들의 인력뱅크 및 업무 네트워크 가능

■ 추진주체 : 문화부 / 문화원연합회 / 지방문화원

2-2 향토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227개 문화원이 축적해온 문화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필요

- 우리문화 원형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식하고 통합형 아카이빙 구축
※'11~13년까지 온라인상 정보센터구축 및 표준모델 개발·보급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문화원에서 약 145만여점(227개원)의 향토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생산되는 도서 자료만도 1천여점이 넘지만, 일부 문화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리역량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음.
※관리대상 : 도서, 영상, 소리, 사진, 포스터, 마을지, 리플렛 등

■ 추진방향

- 소장자료의 단순 보관에서 창조적 활용을 위한 아카이빙으로 전환
- 중앙은 정보시스템 기반 개발을 통해 인프라 구축, 지방문화원은 수집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

- 고가치 향토문화자료를 보유하고 선진적으로 활용하는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시범모델 개발 및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
 - 2015년 까지 기반구축 후 지방정부에 이양,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산재한 향토문화자료의 종합DB 구축 및 통합적 활용체계 구축
- 자료수집 및 관리항목설계를 통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 전국 네트워크망 구축·운영
- 선도기관 선정 및 시범 아카이빙 모델 개발

사업추진절차



■ 기대효과

- 분산된 우리문화원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함으로써 창조적인 활용 및 서비스 가능
- 지방문화원 및 지자체가 발굴해온 지적콘텐츠를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가치화함으로써 대중적인 확산 가능
- 자료관리를 표준화함으로써 향토문화자료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증대

■ 추진주체 : 문화부/지방문화원

2-3 문화역사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지역의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경제적 가치 찾기

- 지역 향토문화자원의 재가치화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지역문화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및 지역특화프로그램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별 대표 문화브랜드 개발을 위해서는 독특한 지역역사문화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원에서 비슷한 형태의 연구·개발형태를 보이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 추진방향

- 콘텐츠개발을 위한 지역 고유의 유·무형 문화자원 발굴
- 기존 향토사 대중화사업과 연계,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확산

■ 추진계획

- 설화, 인물, 향토사 등 고유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제작
- 공연, 영화, 미술, 전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 연극 ‘심청이야기’ (곡성문화원)
 - 주민이 만드는 ‘하품 영화제’(인천남구 학산 문화원)
 - 설화영어연극 ‘감투봉 명당 싸움’(군포문화원)
- 대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 여행’(문경문화원)
 - ‘직지 나이트 투어’(김천문화원)

■ 기대효과

- 문화원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업으로 문화경쟁력 제고

- 지방문화원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 **추진주체** : 문화부/지자체/지방문화원

2-4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

지역단위의 생활문화예술 활동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문화원이 거점이 되어 지역의 자생적 동아리 형성 지원
- 일반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시민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단위 문화예술단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거점이 될 수 있는 중심기관 필요
- 생활공감형 문화정책 맥락에서 보다 광범위한 일상 속에서의 문화예술활동 개발지원사업 추진 필요
- 지역문화예술동아리의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한 문화예술단체 육성 필요

■ **추진방향**

- 지역 내 아마추어 동아리, 클럽 등 자생적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또는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평생교육이나 주민의 자발적인 동아리 지원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 **추진계획**

- 생활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실태 조사
- 생활문화예술 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 각 장르별 전문가(유명 문화예술인 등) 파견 활동 지원
- 연습, 공연 및 전시 공간 등 제공
- 지역, 소외계층 대상 문화공헌 활동 추진

■ 기대효과

-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증진
-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

■ 추진주체 : 문화부 / 지자체 / 지방문화원

2-5 대한민국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전국 문화원의 날’ 기념행사를 지역문화 홍보를 위한 문화박람회로 확대 실시

- ‘2007 문화비전 선언’을 통해 10월 10일을 문화원의 날로 선포하고, 2008년부터 기념행사를 갖고 있음.
- 227개 문화원네트워크를 활용,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로 발전시킬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문화 전반을 보여주는 문화행사로 발전시키려면 문화원의 결속력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
-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려면 비용이 많이 소요됨으로 지역문화박람회로 확대할 경우 각 주체의 매칭과 민간협찬을 적극적인 유도 필요

■ 추진방향

- 지역의 문화, 역사, 민속, 관광 등 지역전반을 소개 하는 장 마련
-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고 지역간 특성과 함께 국가적 공동체의식을 일깨우는 열린 문화축제로 구성
- 지역별 특색과 경쟁력 있는 사업소개 및 공유로 우수 프로그램 확산과 지역문화발전을 자극

■ 행사내용

- 행사일 : 문화의 날과 연계(10월, 2~3일간)

- 행사장소 : 서울 또는 지자체(전국대상으로 공모)
- 참여대상 : 문화예술인 및 일반인
- 공간 및 프로그램 구성(안)
 - 공 간 : 테마전시마당, 지역문화홍보마당, 지역문화전수난장
 - 프로그램 : 야외공연, 축하공연, 지역향토자료전시(도서 등), 출향민 만남의 장 등

■ 기대효과

- 지역문화 선도기관으로서의 문화원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
-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기회
- 전국의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함으로써 우리문화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기회
- 문화원의 날을 통해 지역문화와 문화원의 비전을 점검하고 지역문화 중심으로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 추진주체 : 문화부 / 지자체 / 문화원연합회 / 지방문화원

3. 문화원 발전기반 조성

3-1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문화원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방문화원 진흥법 개정 및 조례제정

- 공무원 파견조항 신설, 시·도 지회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

■ 현황 및 문제점

- 1994년 지방문화원법 제정이후 변화된 환경변화를 적절히 반영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 지지 못함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조례제정 근거가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곳은 2010년 3월 현재 76개에 불과함

■ 추진방향

- 정책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항 개정
- 지방문화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항 신설
- 지방문화원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 추진계획

-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시책 수립 근거조항 신설
 - － 지방문화원 사무국 설치 및 채용과 신분보장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 규정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
 - － 지자체 소속 공무원 문화원 파견조항 신설
 - － 연합회 및 지방문화원 사업범위 확대조항 신설
 - － 법인 설립인가 취소 조항 신설 등
- 지방문화원 지원 조례 제정 전국 확대
 - － 현 76개 시군구 →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제정토록 권고
 - － 지방문화원 경비 보조, 공무원 파견, 문화원사 운영관련 사항,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등
- 지방문화원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가 지정 추진
 - － 기획재정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요구

■ 기대효과

- 지방문화원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 구축
- 지방문화원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 추진주체 : 문화부 / 지자체

3-2 시설 및 공간 확충 지원

다양한 기능 수행을 위한 지역거점 문화 공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시설 확보 필요

- 법정시설기준 미달 문화원 원사 건립 지원
- 노후 시설 개·보수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문화원 중 법정 시설기준 미달 문화원이 77개원(34%)에 달하며 35% 이상이 '90년 이전에 건립된 문화원으로 노후화됨
- 현재 교육수혜자들의 문화적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공간 필요

■ 추진방향

- 법정 시설기준 미달 문화원 우선 원사 건립 지원
- 문화원별 고유한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원사 리모델링 추진
- 부족한 공간은 최대한 유휴 공간 활용

■ 사업내용

- 문화원 원사 건립 확충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 지원 확대
 - 농어촌 지역의 법정시설기준 미달, 노후시설 문화원
 - 우선지원 : 연간 10개원 ⇒ 15개원 내외로 확대
-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한 사업운영 공간마련
 - 마을회관, 읍·면·동 사무소 등 공공청사 활용
 - 폐교를 활용한 정책사업 연계 추진

■ 기대효과

- 지역문화활동의 거점 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 다양한 기능 수행을 통해 지역민에 대한 문화서비스 제고

■ 추진주체 : 문화부 / 지자체

3-3 문화원 사업 활동여건 개선

다양한 기능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충과 지역거점 문화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 및 사업 활동비 지원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문화원 중 82개원에서 기금 조성 중(평균기금 규모 275백만원)이나 재정자립도는 21.7% (2008년 기준) 수준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음
- 일반회계로 지원하던 사업 활동비와 문화학교 운영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전환, 지원되고 있으나 이후 동결되어 지방문화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업 활동비 : 1개문화원 당 3,800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인건비 20백만원, 경상사업비 18백만원
 - 문화학교 운영비 : 1개문화원 당 600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다양한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처우미흡
 - 상근직원 2~3명으로 운영중인 문화원이 72%
 -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등 전문 인력이 필요
 - 업무량 과다로 인해 다양한 문화사업 확장에 한계
 - 2003년 사무국장 공채제도 실시 이후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액(20백만원) 동결

■ 추진방향 (관계부처 협조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원 운영경비 및 사업활동비 증액 추진

■ 추진내용

- 문화원 운영경비 지원확대(지방자치단체)
 -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예산에서 포괄 지원되고 있는 것을 지방문화원육성지원 사업 예산으로 분리 편성, 확대 지원 (현행 20백만원 내외→ 30백만원 이상)
 - 전문인력 확충 및 기본 운영경비 현실화
- 문화원 사업활동비 확대 지원(지방자치단체)
 - 현행 1개 문화원당 평균 5,800만원 → 7,000만원으로 증액(2011년)

－ 문화원 운영 활성화 및 사무국장 인건비 현실화

■ 기대효과

- 지방문화원의 자생력 기반 강화
-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3-4 지역문화 기관·단체간의 협력 체계 구축

지역 내 문화기관·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 다양한 방법의 네트워킹 체계 구축을 통해 상생협력, 발전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문화기관·시설 간 프로그램 중복 심각, 백화점식 프로그램 운영에서 각 기관의 강점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 육성 필요
 - － 타 문화기반시설과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 지방문화원만의 특화성 제시 어려움

■ 추진방향

- 지역 내 문화기관·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 유형별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교류 및 협력 등 추진

■ 사업내용

- 기관·공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 － 기초자치단체, 지역대학, 문화예술단체, 문화기반시설 대상
 - － 지역문화관련 정보공유, 홍보, 간행물 공동 제작 등 협력
 - － 각급학교, 문화기반시설 등과 공간 활용 협약 추진 등

-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운영
 - 문화예술인, 자원봉사, 지역문화활동가 등 대상
 - 문화원 자문단, 지도위원 위촉, 강좌 · 세미나 · 워크숍 참여기회 확대
- 사업 네트워크 구축 · 운영
 - 지역문화 조사 · 발굴, 문화예술 · 학술행사,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공동 · 협력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유사 중복 프로그램 운영 방지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가능
- 기관 · 단체별 정체성을 살리고 시너지 효과 제고

■ 추진주체 : 지자체 / 지방문화원

3-5 지역문화재단과의 역할 정립

지역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지방문화원과의 역할정립 필요

- 문화재단은 지방문화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자치조례에 의해 설립
-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와 관련, 국가목적적인 가치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

■ 현황 및 문제점

- 광역단위 문화재단은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시작으로 현재 10개 시 · 도에서 설립, 운영 중
 - ※ 2010년 경남, 전북, 충북, 2012년까지 경북, 충남, 울산 설립 예정
- 또한, 231개 기초자치단체에도 1998년 강릉문화재단을 선두로 현재 23개의 시 · 군 · 구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음
- 현재 광역단위 문화재단은 지방문화원과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시 · 군 · 구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주 기능으로 하면서 점차 문화예술지원기능을 아우르고 있는 추세로 문화원의 입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4)

4) 대부분 문화시설 운영을 주 기능으로 함(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주 기능인 재단 : 6개(강남, 강릉, 춘천, 아산, 익산, 대구중구), (정책개발을 주 기능인 재단 : 1개(전주)),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확장 재단 : 성남, 청주 등 (점차 증가예상)), (축제관련 문화재단 : 진주문화예술재단(개천예술제 관련), 통영문화재단(윤이상국제음악제 관련), 수원화성문화재단(수원화성국제연극제 관련))

• 문화재단과 지방문화원과의 비교

구분	설립기초	목적사업	재원조성	비고
문화재단	자치조례	- 자체적으로 조성된 문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시·도출연금 및 기금이자	광역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제4조에 의한 특수법인)
		-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과 소규모 문예진흥기금 지원	시·도출연금 및 기금이자	기초문화재단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 지역 고유문화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등 지역문화사업 등	분권교부세, 지방세	

■ 추진계획

- 기초지자체(시·군·구)의 경우 별도의 문화재단 설립보다는 문화원의 전문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
- 기초지자체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할 경우,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문화원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등 기준 마련
 - 재단 설립 시 문화원장을 문화재단 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원과 역할 분담 및 협력관계 명시

■ 역할 정립 방안

- 시·군·구의 경우 별도의 문화재단 설립보다는 문화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동 역할 대체
- 문화재단 설립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문화원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지자체)
 - 문화원은 지역의 정체성확립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문화재단은 기금조성,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정

구분	지역문화재단(기초지자체 설치)	지방문화원
설립근거	민법 및 자치조례	지방문화원진흥법
주요기능	기금의 조성 및 확충과 배분 (지역내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지역문화진흥 사업(개별사업과 지역문화기관·단체간 협력 사업 추진중심 역할 수행)

목적사업	1. 지역 문화예술정책 연구 및 개발 2. 지역 문화단체 기금 지원사업 3. 지역 문화단체 사업 및 운영 평가 4. 지역 문화기반시설 운영관리 5.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 지역 고유문화 계발, 보급, 전승 2. 향토사 발굴, 조사·연구 3. 지역 문화 창달 사업 4.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사업 주관 5. 지역주민 문화향수 프로그램 제공
------	--	---

VI. 기대 효과

- 문화원 운영혁신 및 자생력 강화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을 민간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안정된 행정시스템 확보
- 문화원 네트워크를 통해 획일적인 중앙 중심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간 문화 불균형 해소 및 문화 향유권 확대 실현
- 문화원 강점사업을 개발·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가치의 재발견과 창조역량 제고를 위한 중추역할 수행
- 법, 제도 등 문화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정책을 견인하는데 효과 극대화

■ 별첨<1> : 권역별 토론회_결과보고

I. 토론회 개요

- 행사명 :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 권역별 종합토론회
- 목 적 : 지방문화원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문화원 및 지자체 관계자 등 의견수렴
- 장 소 : 서울·강원·제주, 인천·경기 등 6개 권역
- 참석자 : 810여 명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160명
 - 지방문화원장, 사무국장, 일반직원 등 : 600명
 - 전문가 및 토론패널 등 : 50명
- 내 용
 - 문화정책 기조 및 지방문화원 발전방향 (문화예술국장)
 - 종합계획안 시안 발표, 패널발표, 자유토론
 - 분임토론 등
- 행사일정

횟 수		일 정	개최장소	권역구분	토론회(명)
1차	3월	15(월) 16:00~18:30	서울 교육문화회관	인천, 경기	130
2차		19(금) 16:00~18:30	장성 백양사 호텔	광주, 전남, 전북	150
3차		26(금) 16:00~18:30	칠곡 대구은행 연수관	대구, 경북	130
4차	4월	2(금) 16:00~18:30	합천 해인사 관광호텔	부산, 울산, 경남	130
5차		6(화) 16:00~18:30	유성 흥인 호텔	대전, 충북, 충남	130
6차		19(월) 16:00~18:30	서울 올림픽파크텔	서울, 강원, 제주	140
합계					810

II. 주요 의견 및 제안사항

□ 지방문화원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방안 관련

- 지역문화예술 사업의 창구기능을 부여하는 등 다른 단체를 지원하는지원센터 역할에 중점(문화예술 지원체계 조정)
- 지역문화재단은 재원의 배분, 문화원은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는 역할 분담 방안 마련 필요
- 무형문화재 발굴 및 보존, 지정단체 관리체계에 지방문화원이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 문화시설 관리 운영체계 개선, 지방문화원에서 총괄 관리운영
- 문화원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사교육양성소로서의 역할
 - 타문화단체 강사들의 위탁교육, 보급
- 향토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재발견 필요 (자기가치발굴사업)
-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원 사업기능강화
- 청소년 인성교육 센터로서의 역할 담당

□ 지방문화원 조직 및 운영개선 관련

- 문화원장에 전문 문화인 배치 필요
- 지자체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문화원 파견 방안 검토 필요
- 회원 영입방안 강구(젊은 층의 참여 기회 확대)
- 문화원 분원장 또는 지부장제의 도입을 통해 회원확보 책임제 실시
- 종합계획안을 토대로 각 문화원별 자체 계획안 작성
- 문화학교 개선방향 및 모델 제시 필요

□ 지방문화원의 자생력 강화 관련

- 예산의 제도적 보장 (지자체의 본예산에 문화원 예산 반영)
- '1기업 1문화원 결연' 사업을 통한 지방문화원 재정 확충
-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제도적 정비
(현행 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15%까지만 가능)

- 지방 문화원 육성 지원 조례 제정(현재 76개 지자체 제정)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원방안을 필수 항목에 포함하도록 지침 시달(문화부)
-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지원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전환
- 지방 문화원 기금설치 조례제정
- 분권교부세의 확대
- 문화원을 상징할 수 있는 콘텐츠 및 브랜드 강화

□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역할 강화 관련

- 문화원연합회의 지방문화원 우수사례 발굴 및 선도기능 강화
- 전국 문화원의 중심 연결고리로서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
- 정책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행안부와 문화부 및 기초지자체와 연계한 문화프로그램 추진
- 지역문화CEO 교육등 한국문화원 연합회 차원의 교육사업 필요

□ 시·도 지회의 법인화

- 법인화는 절차상의 해결사항들과 더불어 다양한 장단점 존재
- 시·도 지회 강화를 위한 다각적 연구 및 단계적 검토 필요

□ 종합계획안 목표설정 등 관련

- 단기(2012), 중기 계획으로 추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으로 유형화, 발전 방안 마련
- 문화원 모델 만들기(대도시, 중소도시, 군단위), 선진형문화원의 기본틀 만들기 필요

□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 대중적 프로그램을 도입, 평생교육원과 연대한 차별화된 교육
- 개정된 제8차 교육과정에 부합할 수 있는 지역화 교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전통문화 자원인 향교, 서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방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운

영하고, 네트워크화를 통한 시너지 제고

- 어르신과 청소년을 연계한 세대공감프로젝트의 도입
- 문화관광해설사를 향토문화해설사로 변경, 문화원에서 교육양성
-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수익창출 및 인지도 확대

□ 중앙 및 지방정부 문화정책사업 중추역할 수행 관련

- 행정부(문화부, 시·도, 시·군·구)와 문화원(연합회, 시·도 지회, 지방문화원) 합동 지역문화 정책워크숍 개최, 정부의 지역문화정책 시달 및 공유기회 마련
- 문화원이 지역문화지도를 제작하여 지역문화정책 지원⇒지역문화네이게이션

□ 향토사(문화원형) DB화 추진

- 향토문화자원의 지적 콘텐츠화
 -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포털사이트 구축 (문화재, 인명DB, 문화소식 등)
 - 사진과 자료파일들을 디지털 도서관으로 보내어 통합관리
- 전국 문화원에서 발간되는 도서에 대한 연합회 차원의 DB 구축
 - 지방문화원별 지역향토사 메뉴얼 구축
 - 각 단위별 향토사 자료를 연합회 홈페이지 게재, 공유 및 통합
 - 향토사 자료들의 꾸준한 업데이트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 책자형식을 탈피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애니메이션, 공연 등)
- 근·현대 문화자원의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통합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폭넓은 콘텐츠 제공

□ 문화원 브랜드 강화방안

-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전문화(예: 대덕문화원의 '대덕學' 운동)
- CI작업을 통한 전체 문화원 이미지의 통일화
- 문화원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투어 프로그램 개발
- 문화원을 상징할 수 있는 콘텐츠 및 브랜드 강화

□ 지역연계프로그램

-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담인력 확보가 우선
- 축제보다는 지역특색 프로그램 강화
- 문화원간 교류 시범사업 추진 (지역문화탐방 대체사업 개발)

□ 네트워크 어떻게 할 것인가

- 축제 등을 진행할 때 지역의 문화예술 동아리 적극활용
- 지역의 타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상호소통 및 관계확대
- 네트워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소통의 매개역할 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인드 필요

□ 지방문화원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 문화원 일반직원의 지역간 급여 편차가 심해 현재 전국 급여액을 조사하여 최저 임금 보장 방안 마련
- 사무국장의 급여 전액 국비지원 건의 (현행 국비:지방비= 50:50)
- 문화유산해설사 자격증 취득시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 기타 토론회 분위기

- 정부 주도의 종합계획안 수립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치적 해석을 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고무적이고 기대감을 갖는 한편, 실천을 강조함
- 문화원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있는 시점에서 비관적인 의견들이 많았으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
- 최초의 권역별 토론회 개최를 반기고 향후 지속적 개최를 희망함
-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못지않게 문화원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선행되 어야 한다는데 공감
- 권역별 토론회 의견의 심도있는 검증과 연구를 통해서 지방문화원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

● 1차 토론회 ●

□ 토론회 개요

- 장 소 : 서울 교육 문화회관
- 대 상 : 인천, 경기지역 문화원 직원 및 관계 공무원 130명
- 사회자 :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패 널 : 장동철 (과천시 문화체육과장)
김원옥 (인천 연수문화원장)
박성복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이병민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안이영노(기분좋은 트렌드하우스 QX대표)

□ 주요 의견 및 제안사항

• 종합토론회 주요내용

- 문화원 종사자 처우개선 (직원급여 최저임금 수준)
- 인력확보 (사무국장, 총무담당자만으로는 사업운영 곤란)
- 지역사회 표준화를 위해 정기적인 시,군지 발간
- 지자체, 교육기관과 중복되는 사업 다수
- 사업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의 본예산에 문화원예산 반영
- 독립원사 확보

• 분임토론 주요내용

- 문화원은 독립채산제가 되어야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의 경영필요
- 시청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문화원의 자율성 부재
- 문화원장의 문화사업에 대한 능동적이고 진취적 마인드 필요
- 다문화 가족사업의 타 기관과의 (시 문화센터, 대학교육기관) 중복성
- 문화원의 명확한 위상정립

- 재정구조의 독립성 확보
- 기부금 확보의 법적 구조 확립
-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
- 그림자 인형극, 문화원 교육등이 언론에 노출된 후 공연의뢰 증가 지역적 특색을 살려 특성화시킬 계획 (부평문화원)
- 농촌지역 사업운영 힘들. 현재 자체운영하는 사업전무 (강화문화원)
- 회원제 운영으로 문화원 재정에 도움, 가족단위 회원모집에 포커스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 (이천 문화원)

□ 기타 토론회 분위기

- 지방 문화원의 현주소와 어려움을 재확인
- 심도있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과 향후 진로 탐구

● 2차 토론회 ●

□ 토론회 개요

- 장 소 : 장성 백양호텔
- 대 상 : 광주, 전라지역 문화원 직원 및 관계 공무원 150명
- 사회자 : 이흥재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 패 널 : 송병호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장)
- 이정훈 (영암군청 문화관광과장)
- 김기홍 (장흥문화원장)
- 조준원 (곡성문화원 사무국장)
- 이정덕 (전북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이태호 (익산문화재단 정책연구실장)

□ 주요 의견 및 제안사항

• 지방문화원의 기능강화 방안 관련

- 지역문화예술 사업의 창구기능을 부여하는 등 다른 단체를 지원하는 지원센터 역할에 중점(문화예술 지원체계 조정)
- 문화원장에 전문 문화인을 배치, 원장의 명예직 전환 필요
- 문화원이 지역문화지도를 제작하여 지역문화정책 지원
- 지자체의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 문화원 지원 발전 방안 포함
- 지자체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문화원 파견 방안 검토 필요
- 문화시설 운영체계 개선, 지방문화원에서 총괄 운영
- 시군이 통폐합되더라도 지역문화의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문화원의 역할과 역량 변화가 필요
- 젊은 층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젊은 회원 영입방안 강구

• 종합계획안 목표설정 등 관련

- 단기(2012), 중기 계획으로 추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으로 유형화, 발전 방안 마련
- 문화원 모델 만들기(대도시, 중소도시, 군단위), 선진형문화원의 기본틀 만들기 필요
-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방법

•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역할 강화 관련

- 연합회가 신규예산 확보 아이디어를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고 문화원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 문화부 지원 필요
- 문화원연합회는 성공사례집을 제작 타문화원에서도 활용토록 배포
- 행안부와 문화부 및 기초지자체와 연계한 문화프로그램 추진

• 컨설팅 지원 등 권역별 소모임 활성화

- 권역별 공동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 단체를 연결하는 공동프로그램 개발 등

• 지방문화원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 문화원간의 급여 편차가 심해 현재 전국 급여액을 조사하여 최저 임금 보장 방안 마련

- 현행 사무국장의 계약제(3년)를 정년제로 전환
- 문화유산해설사 자격증 취득시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 기타 토론회 분위기

- 정부 주도의 종합계획안 수립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치적 해석을 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고무적이고 기대감을 갖는 한편, 실천을 강조함
- 최초의 권역별 토론회 개최를 반기고 향후 지속적 개최를 희망함

● 3차 토론회 ●

□ 토론회 개요

- 장 소 : 대구은행 연수원
- 대 상 : 대구, 경북지역 문화원 직원 및 관계 공무원 130명
- 사회자 :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패 널 : 권삼문 (구미시청 학예사)
 김사열 (대구 팔공문화원장)
 안수경 (포항문화원 사무국장)
 신동호 (리서치21 대표)
 박승희 (영남대 국문과 교수)

□ 주요 의견 및 제안사항

• 종합토론회 주요내용

- 문화원 사업대상 확대 필요(젊은 세대와 다문화가정 등)
- 향토사의 중요성과 자료들의 DB화 강조

- 새로운 아이디어보다 지역문화 ‘원형’이라는 전제가 필요
- 문화원형 발굴에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할 필요
- 문화원의 모든 사업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사하고 평가하는데 실제로 군단위 말단 문화원의 사정을 모름
 - ※사업공모시 문화원 관계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
- 사무국장 급료만이라도 국비로 준다면 시의 눈치를 덜 받고 일을 추진할 수 있음
- 지자체 공무원과 공동 워크숍(문화원에 대한 이해 부족)

• 분임토론 주요내용

1. 회원확충관련

- 문화원 이사나 지부장제의 도입을 통해 회원확보 책임제 실시
- 대중적 프로그램을 도입, 평생교육원과 연대한 차별화된 교육
- 비회원도 비용을 지불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여 정회원 유도

2. 재정확충관련

- 출향회원, 후원회, 향우회 통한 재정확보
- 예산안의 기준안 필요, 공인된 근거가 없으니 시, 군에 지원 요청시 어려움
- 예산의 제도적 보장 (지자체의 본예산에 문화원 예산 반영)
- 기부금 제도와 발전기금 운영 (세제혜택 등, 기부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필요)

3. 한국문화원연합회 관련

- 연합회의 공모사업이 지방문화원의 실질적인 재정향상에 도움
- 연합회 사업공모시 지방문화원 의견수렴 및 신청 양식 단순화
- 지방문화원의 사무국 환경 열악, 연합회 차원의 개선작업 필요
- 전체 문화원의 CI 작업 (각종 문서, 간판 등 통일화)

4. 시도지회 독립법인화 논의

- 연합회 소속 지회보다 위상강화 및 예산확보에 유리
- 법인, 비법인 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시각과 대우가 다름

5. 종합계획안 및 정책 관련

- 종합계획안을 각각의 문화원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연구필요
- 보편화된 정책보다는 특성과 차별화된 기능을 강조할 필요

□ 기타 토론회 분위기

- 토론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들이 제기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첫 권역별 토론회에 대해 의욕과 기대감이 컸음.

● 4차 토론회 ●

□ 토론회 개요

- 장 소 : 경남 합천 해인사 관광호텔
- 대 상 : 부산, 울산, 경남지역 문화원 직원 및 관계 공무원 130명
- 사회자 : 추미경 (다음문화예술기획 상임이사)
 - 패 널 : 노정동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사무관)
 - 박길주 (남해군청 문화관광과장)
 - 박동선 (사천문화원장)
 - 황원준 (부산시연합회 사무처장)
 - 김영현 (유알아트 대표)
 - 전수철 (참사랑 포럼 사무국장)

□ 주요 의견 및 제안사항

1. 종합토론 주요 내용

- 부족한 인력에 대한 행정인턴 지원
- 종합계획안의 세부적인 타당성 분석과 대책제시
- 시도지회와 문화원연합회와의 매개고리 및 공감대 형성 부족
- 사단법인에서 공익적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변화
- 지역의 문화 현황을 조사하거나 통계를 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음

- 문화원을 법정 지정기구에 포함시켜 기부활성화 유도
- 지자체 문화관련부서는 전문 담당자가 맡을 필요
 - ※지자체와 문화원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려움
- 문화원형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
- 대한민국 문화교육연수원 설립을 통한 국민 의식 개혁 필요
- 문화콘텐츠 활용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 필요
- 각 문화원의 환경과 처지를 생각해 지원해 줄 필요
 - ※전문가파견을 통한 운영활성화 지원
- 문화원회원카드발행 등을 통한 회원들의 문화혜택과 자긍심 유도
- 향토사를 지역사로 확대할 필요
- 향토사 전자출판을 통한 DB화 /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시행

2. 분임토론의 주요 내용

- 지방문화원의 자생력 강화 관련
 - 후원 및 기부금에 관한 제도적 정비 (현행 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80%까지만 가능)
 - 향토문화사업은 지방문화원이 총괄, 특별예산으로 이를 지원
 -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문화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지방 문화원 육성 조례 제정
- 한국문화원 연합회의 기능과 역할
 - 개별 문화원의 특성을 감안한 기준적용 필요
 - 회원모집방안등, 지방문화원의 실질적 문제에 대한 지원책마련
 - 전국 문화원의 중심 연결고리로서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
 - 정책연구개발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상대적으로 사업환경이 열악한 문화원들에 대한 집중 지원
- 시도지회의 법인화
 - 법인화는 절차상의 해결사항들과 더불어 다양한 장단점 존재
 - 시도지회 강화를 위한 다각적 연구 및 단계적 검토 필요

- 문화원 회원 확충 및 관리방안
 -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수단 모색
 - 지역의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문화원 역할 확산
 - 각 동 중심의 회원 소모임 구성 (회원 자체 커뮤니티 활성화)
- 향토사 (문화원형) DB화 방안
 - 먼저 예산 확보 필요
 - 각 단위별 향토사 자료를 연합회 홈페이지 게재, 공유 및 통합
 - 사진과 자료파일들을 디지털 도서관으로 보내어 통합관리
 - 향토사 자료들의 꾸준한 업데이트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 책자형식을 탈피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애니메이션, 공연 등)
- 시·구·군별 지방문화원관 연계 프로그램 사업추진
 - 프로그램 통합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폭넓은 콘텐츠 제공
 - 지역문화원간 자매결연 (각종 프로그램 및 사업인력 공유)
 - 권역별 직원 연수 및 문화 교류 (체육대회, 문화탐방)
- 일반직원들의 건의사항
 -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지원
 - 간사명칭 폐지 및 근무연수에 따른 직책 체계화
 - 호봉제에 따른 급여 인상
 - 공모사업 계획시 인센티브 제공

□ 기 타

- 정기적인 개최 요망, 각 지방문화원장 및 종사자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토론을 하게 된 것에 의미 부여
- 각종 난제가 산적한 지방문화원의 현실에 고충을 토로하면서도문화체육관광부, 연합회의 노력과 열의에 기대와 희망감 표시

● 5차 토론회 ●

□ 토론회 개요

- 장 소 : 대전 유성 흥인 호텔
- 대 상 : 대전, 충남지역 문화원 직원 및 관계 공무원 140명
- 사회자 : 박덕규 (단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 패 널 : 노정동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사무관)
 - 이창주 (공주시청 미래도시팀장)
 - 장현석 (청주문화원장, 충북도지회장)
 - 송재민 (대전서구문화원 사무국장)
 - 이춘아 (한밭문화마당 대표)
 - 문희순 (지역여성문화연구소 대표)

□ 주요 의견 및 제안사항

1. 종합토론 주요 내용

- 종합계획안을 토대로 각 문화원별 자체 계획안 작성
- 타문화단체와 변별력을 가진 프로그램 제작
- 문화원의 전체이미지를 만드는 공동브랜드 개발
- 문화원활성화를 위한 지역내 인력자원 네트워크 구축
- 단독 사업이 어려운 경우, 다수 문화원들의 공동추진
- 문화학교 개선방향 및 모델제시 필요
- 동아리 지원사업 필요성(청주·사랑방 문화동아리 육성사업)

2. 분임토론 주요 내용

- 지방문화원의 자생력 강화 관련
 -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지원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전환

- 지방문화원기금설치 조례 제정
- 현재로선 분권교부세 확대가 실질적이고 유일한 대책
- 타문화단체와의 차별성 강화방안
 - 문화원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사교육양성소로서의 역할
(타문화단체 강사들의 위탁교육, 보급등)
 - 품물, 택견 등 타문화단체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 집중개발
 -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토문화와 역사에 대한 특화교육
 - 지역특성을 감안한 각 문화원별 차별화 방안 필요
 - 타문화단체와 차별화를 갖기보다는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
 - 국가의 정책관이나 국민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문화원만의 자구 노력은 역부족
- 문화원 브랜드 강화 방안
 -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전문화
(예: 대덕문화원의 '대덕學' 운동)
 - CI작업을 통한 전체 문화원 이미지의 통일화
 - 문화원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투어 프로그램 개발
- 네트워크 어떻게 할 것인가
 - 축제등을 진행할 때 지역의 문화예술 동아리 적극활용
 - 지역의 타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상호소통 및 관계확대
 - 네트워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소통의 매개역할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인드 필요
- 지역연계프로그램
 -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담인력 확보가 우선
 - 축제보다는 지역특색 프로그램 강화
- 향토사 DB화 사업
 - 지방문화원별 지역향토사 매뉴얼 구축
 - 전국문화원에서 발간되는 도서에 대한 연합회 차원의 DB구축
 - 향토문화자원의 지적 컨텐츠화

- 근,현대 문화자원의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통합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폭넓은 콘텐츠 제공

□ 기타 토론 분위기

- 문화원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있는 시점에서 비관적인 의견들이 많았으나,
- 지역 문화원장 및 근무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한 자리를 가진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 문화원의 도약을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한층 더 협력을 강화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

● 6차 토론회 ●

□ 토론회 개요

- 장 소 : 서울 올림픽 파크텔
- 대 상 : 서울, 강원, 제주지역 문화원 직원 및 관계 공무원 140명
- 사회자 : 이흥재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
 - 패 널 : 송병호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장)
 - 이명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
 - 김형순 (동해문화원장)
 - 심오섭 (강릉문화원 사무국장)
 -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윤성진 (안양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 주요 의견 및 제안사항

1. 종합토론 주요 내용

- 문화원을 상징할 수 있는 콘텐츠 및 브랜드 강화
- 향토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재발견 필요 (자기가치발굴사업)

- 청소년 인성교육 센터로서의 역할 담당
- 중앙 및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 문화원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대한 냉정한 평가 및 자성필요

2. 분임토론 주요 내용

-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수익창출 및 인지도 확대
(예 : 아버지 합창단, 한강경음악단 - 영등포문화원)
- 지자체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조를 통해 우호관계 유지
- 문화관광해설사를 향토문화해설사로 변경, 문화원에서 교육양성
- 공모전 심사시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문화원에 대한 신뢰 및 회원확보
- 문화원간 교류 시범사업 추진 (지역문화탐방 대체사업 개발)
- 향토사의 체계적인 집대성 필요
-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문화포털사이트 구축필요
(문화재, 인명DB, 문화소식 등)
-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원 사업 기능강화
- 어르신과 청소년을 연계한 세대공감프로젝트의 도입
- 지역문화CEO 교육등 한국문화원연합회 차원의 교육사업 필요

□ 기타 토론 분위기

- 문화원의 위기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못지 않게 문화원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공감
- 권역별 토론회 의견의 심도있는 검증과 연구를 통해 지방문화원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

■ 별첨<2> : 권역별 토론회_사업별 내용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실 태 조 사	지역문화현황실태조사	지역문화의 다차원적 분석과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문화자원 관리
	지역주민수요실태조사	특히 농·어·산촌형 시군소재 문화원의 지역주민 문화향유 및 수요실태조사
시 스 템 구 축	지역문화 아카이브 구축	지역문화지도(Regional Culture Map) 작성 ※문화원에서 가능한 지역문화지도제작
	향토문화콘텐츠 DB	향토문화자원의 현대적 문화콘텐츠화 및 DB구축
	향토사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각 단위별 향토사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마련 ※향토사/마을지 아카이빙, 향토문화 메뉴얼 구축
	영상 디지털 서비스	무형의 향토문화 기능 보유자들과 유형문화재를 동영상 채록 및 디지털 서비스
	문화포털사이트 구축	문화재, 인명DB, 문화소식 등 문화원홈페이지 활성화 ※지자체 홈페이지와 연계-지역문화발신거점으로 활용
문 화 콘 텐 츠 활 용	무형문화자원 발굴	근현대 무형문화자원 이야기 발굴,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정리
	근·현대자원의 활용	콘텐츠개발 및 프로그램 통합운영 및 서비스 제공
	문화공간이야기 발굴	근현대 문화공간에 담긴 이야기 수집 및 책자화, 공간의 보존과 운영에 관한 연구
	문화공간보존 및 활용	발굴된 근현대 문화공간의 보존 및 현대화사업
	스토리텔링 개발	지역의 자연자원과 향토자원의 스토리텔링, 관광상품화 ※옛길과 옛지명 스토리텔링 개발, 애니메이션, 공연 등
	지역 재발견 프로젝트	주민참여로 '사진', '글' 등을 활용한 지역의 자원 찾기와 발굴 프로젝트
	전통음원과 동영상 제작 지원	지역의 보존/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문화유산 조사 및 제작지원
네 트 워 크 · 파 트 너 쉽	지역문화 네트워크 모델 구축	지역네트워크, 인적네트워크, 사업네트워크, 정보네트워크, 공간네트워크 등 유형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모델 구축
	온라인 플랫폼 제작(홈페이지 활용)	아카이브와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온라인 플랫폼 제작 ※예/지역문화아카데미, 지역문화네트워크 활동 등
	문화원 지원체계 구축	인력풀 및 프로그램뱅크를 통한 문화원지원 및 컨설팅
	지역의 공동사업 개발	동일한 프로그램의 경우 자원조성과 프로그램 계획, 전략적 집객 및 효과적 홍보 등 협력적인 공동 수행 ※유형별 WASF(워크숍+아카데미+세미나+포럼)체계화
	지역문화정책협의회구성	지역의 문화인, 문화단체, 문화에 호의적인 인사, 전직공무원, 유지들로 구성된 구체적인 협의체 결성
	중앙정부와의 파트너쉽 구축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중심축을 맡고 있는 문화원을 통한 지역문화 파트너쉽 구축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문화예술교육사업거점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역센터 기능으로서 문화원 시너지효과 극대화
	프로그램 협업 시스템 구축	지자체의 문화시설, 문화교육, 문화활동, 문화생산, 문화유통정책의 전 과정에서 문화원의 기획력과 전문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협업 시스템 구축
	타 부처 문화사업 리스트 및 연관 관계 작성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문화사업 정책 리스트 파악과 공유
	타 부처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협력	복지·교육시설의 문화프로그램들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한 분야별 협력
	성공사례집제작	타 문화원에서 활용하도록 성공사례집 제작 배포
프 로 그 램 개 발 · 육 성	문화원 개방 확대	동호회나 모임 같은 지역민의 문화공간으로서 문화원 개방의 확대
	대표 프로그램 육성	1원 1대표 동아리 및 문화원 내부 프로그램의 충실도를 심화를 위한 집중적인 기획
	청소년대상 동아리운영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 유도 및 지원
	지역의 대표콘텐츠 육성	문화원 사업과 연계하여 대표 프로그램을 전문가와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선정, 집중 개발 ※예)향교, 서원활성화, 아버지합창단, 그림자인형극, 풍물, 택견, 국악분야 등
	지역문화 브랜드 개발	중장기적인 지역문화브랜드 개발을 통한 정체성 찾기 예) 대덕學 처럼 각 지역의 oo學 만들기/배울학
	사진 기록화 사업	지역내외 사진작가나 사진단체와 연계, 유무형 자원들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작업
	대중적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원과 연대한 차별화된 교육 연구
	유희 공간 활용	유희공간 활용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연구
	지역간 연계프로그램	지역문화탐방 및 지역투어프로그램 개발 ※문화원간 교류사업 시범 추진
	세대공감프로젝트	어르신과 청소년을 연계한 세대공감사업 개발
	향토사(지역학) 교육	중, 고생들 대상의 향토문화역사에 대한 특화교육
	스토리 뮤지컬 제작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뮤지컬 공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다문화가정에 한국문화, 예절 등 교육
조 직 · 인 력	공간·시설중심의 사업	프로그램중심에서 공간·시설중심으로 사업전환
	문화원연합회 조직 강화	다양한 정책연구, 프로그램개발 조사, 기획, 컨설팅, 데이터 확보 등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구성
	지방문화원 조직 강화 (표준인력배치)	지역문화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전문인력 충원 ※문화기획자, 학예연구사, 전산요원, 문화행정 등
	임원선출 기준 강화	문화원 정체성과 목적에 맞는 객관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영입을 위한 객관적 제도장치 마련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예술경영 개념 도입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부문 및 기업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전략적 경영 개념 도입
	선진형 문화원 모델	대도시, 중소도시, 군단위형 문화원 표준모델 개발
	최저임금보장	현재 급여액을 조사하여 문화원직원의 최저임금보장
	사무국장 국비지원	현행 50:50을 국비 전액 지원함으로써 중앙정부 지역거점 강화
	인력확보방안 마련	지자체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행정인턴 등 파견
	직원 인센티브	문화유산해설사, 공모사업 기획시 인센티브 부여
	자원활동가 활용	문화예술동아리 등을 활용한 인력충원
시설	독립원사 건립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독립원사 건립 추진
	원사 리모델링 추진	문화원 사업에 적합한 원사 리모델링 추진
재 원 · 회 원	안정적인 재원확충	법제도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충 ※지자체 본예산에 문화원 예산 반영
	고유상품 개발	지방문화원 본연의 취지에 맞는 지역 고유브랜드 개발을 통한 재원확보
	스폰서십(기금확보) 확대	지역의 중소기업과 상호연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한국메세나협의회와 연계)
	사회적 기업화 추진	문화예술을 통한 일자리 및 수익창출과 연계
	수익창출 프로그램 개발	지자체 문화예술 프로그램 위탁 운영
	회원확보책임제 실시	문화원분원장 또는 지부장제 도입
	회원제 운영의 변화	가족단위 및 젊은회원모집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방안 마련
	회원카드발행 등	회원들의 문화혜택과 자긍심 유도를 위한 회원카드발행 및 배지 제공
	1기업 1문화원 결연	재정확충을 위한 결연사업 추진
	문화원 기금조성	문화원진흥기금 조성
법 · 제 도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안정적인 예산지원 및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항목 개정 등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제도적 정비	문화원을 법정지정기구로 포함시켜 기부활성화 유도
	지방문화원육성조례 제정	조례미비 지자체에 대한 해당 문화원의 권고 및 중앙정부의 문건 지원 ※2010년 상반기 내 완료
	광역시·도지회의 특수법인화	시·도 지회를 도 단위 특수법인화하여 지방문화원 지원
	지방문화원업무 관할변경	업무 관할을 시도지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안정적인 인력확보	법/제도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수급
	사무국장 임기 변경	현행 계약제(3년)에서 정년제로 전환
민 화 원 의 성 · 지 원	지방문화원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지자체 중장기계획 등을 고려한 지방문화원의 중장기 발전계획 자체 수립 ※단기, 중기, 장기발전방향 제시
	문화원 평가시스템 구축	지방문화원경쟁력 유도 문화원 발전 전략수립 체계에 따른 평가시스템 구축
	전문컨설팅 지원	분야별 전문가 파트너십을 통한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지역문화 브랜드상 제정	'지역문화 브랜드 상'을 제정, 매년 1년 동안의 엄격한 활동심사를 통해 문화원 활동의 모범적 상(像)을 정립
	세계 지역문화 교류 사업	문화원과 유사한 세계의 지역문화 공간운영 기관과 교류
	향토사연구소 활용	향토사연구소 지역문화정보센터로 활용(온·오프라인)
	차별화정책시행	각 도시별 유형을 설정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시행
	거점센터기능 강화	중앙정부 지역문화예술사업 창구기능 부여
	중앙정부 지원정책	지자체'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 수립시 지방문화원육성 및 지원방안 항목 포함하는 지침시달
교 육 · 인 력 양 성	향토문화 해설사 양성	문화관광해설사→향토문화해설사로 변경, 문화원에서 교육양성
	지역문화CEO교육	연합회에서 지역문화 CEO교육 등의 실시로 문화예술관련분야 고급인력양성 인프라 지원
	청소년 인성교육센터	토, 일요일을 활용한 청소년대상 인성교육 실시
	강사교육 양성소 역할	타문화단체 강사들의 위탁교육 및 보급 실시
홍 보	CI 개발 프로젝트	문화원 현재 포지셔닝 점검 및 기본적인 이미지 구축
	서포터즈 커뮤니티 결성	문화원 홍보대사 선정과 홈페이지 기반의 커뮤니티 강화
	대표사례 홍보방안 연구	문화원의 성공적인 대표사업을 구체적 지역특성을 부각시킨 책 발간, 홍보 영상, 웹 활용 등 다양한 매체 활용
기 타	문화재단과의 역할정립	문화재단은 자원배분에 문화원은 지역문화활성화사업에 중점 ※사전협의회를 통한 프로그램 및 사업조정
	문화원 명칭 변경	지역문화센터로 변경하여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강화
	사업 심사 참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등 사업심사 시 문화원관계자 참여
	문화학교개선	문화학교운영 개선방향 및 모델 제시

■ 별첨<3> : 권역별 토론회_사업별 내용

- 이 조사는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종합토론회 및 권역별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임 <답변 18명>
- 질문은 이메일을 통해 하였으며, 사업주체(연합회/문화원)와 사업시기(시급/중장기)를 구분해서 한 분 당 총 5개의 사업을 선택하도록 함.

질문내용

1. 문화원평가시스템 구축(문화원 지원체계 마련)
2. 분야별 전문가파트너십을 통한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3. 지역문화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및 프로세스 구축(연합회차원의 플랫폼)
4. 지역문화자원 정보시스템 구축(자료 · 자원 수집 및 지적콘텐츠 구축)
5. 지역문화아카이브 구축(지역문화지도 개발 등)
6. 지역문화현황 실태조사(지역문화지수 조사수행)
7.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원 모델프로그램 개발(대도시, 중소도시, 군단위)
8. 지역문화아카데미 개설(지역유형별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9. 농 · 산 · 어촌형 시군소재 문화원의 지역주민 문화향유 확대사업 개발(실태조사)
10. 우리지역 근현대 무형문화자원 발굴 및 가치화 사업
11. 우리마을 전통문화자원의 이야기 발굴사업
12. 옛길, 옛지명 다시보기 사업
13. 생활문화 동아리 사업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축제 운영)
14. 문화학교 운영개선 및 확대사업(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역센터 기능)
15. 사진으로 기록하는 우리문화 이야기
16. C개발사업(문화원 브랜드 강화)
17. 문화원연합회, 시 · 도지회, 지방문화원 조직 재정비
18. 법, 제도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및 인력수급
19. 지방문화원 근무여건 개선
20. 지방문화원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규 또는 시행령 명문화

조사결과

순위	시급한 사업	중장기적 사업
1	문화원연합회, 시·도사회, 지방문화원 조직 재정비	지역문화 네트워크 시스템개발 및 프로세스 구축 (연합회차원의 플랫폼)
2	지역문화 아카데미 개설	지방문화원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규, 또는 시행령 명문화
3	법·제도개선을 안정적인 재정 및 인력수급	분야별 전문가 파트너십을 통한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4	지방문화원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규, 또는 시행령 명문화	법, 제도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 및 인력수급
5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원모델프로그램 개발 (대도시, 중소도시, 군단위)	문화원평가시스템 구축 (문화원지원체계마련)

■ 지방문화원 사업

순위	시급한 사업	중장기적 사업
1	우리마을 전통문화자원의 이야기 발굴 사업	지역문화 아카이브 구축 (지역문화지도 개발 등)ㄴ
2	생활문화 동아리 사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축제운영)	지역문화자원 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문화지도 개발 등)
3	지방문화원 근무여건 개선	지역문화현황 실태조사 (지역문화지수 조사수행)
4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원모델프로그램 개발 (대도시, 중소도시, 군단위)	농,산,어촌형 시군소재 문화원의 지역주민 문화향유 확대사업 개발 (실태조사)
5	우리지역 근, 현대 무형문화자원 발굴 및 가치화 사업	우리지역 근,현대 무형문화자원 발굴 및 가치화 사업

■ 기타의견

제안자	내 용
김 원 욱 (연수문화원장)	- 제시된 사업 중 구체적으로 연합회 사업과 지방문화원 사업을 구분하기 모호함. -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며 전국적인 범위로 펼쳐야 하는 것은 연합회가, 그 이외는 지방문화원이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
박 동 선 (사천문화원장)	- 문화원이 국가적 가치가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장 현 석 (청주문화원장)	- 시도지회가 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화 설립 시급 - 각 문화원 및 시도지회는 종합계획안을 토대로 상황에 맞는 MATRIX 수립.
김 사 열 (팔공문화원장)	- 연합회에 정책개발연구소를 세워 전국단위의 정책개발

심 오 섭 (강릉문화원사무국장)	- 연합회는 문화원 전체적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방문화원은 지역민과 가깝게 소통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필요
조 준 원 (곡성문화원사무국장)	- 지방행정개편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통,폐합 등 급격한 조직변화에 대비한 T·F팀 구성제안
황 원 준 (한국문화원부산광역시지회 사무처장)	- 내부 조직 및 법, 제도 개선 등 현실적이고 적은 투자로도 실행 가능한 부분을 최우선 시행 - 각 문화원 및 시도지회의 내실을 다진 연후에 다각적인 발전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김 영 현 (유알아트 대표)	- 문화원이 사업수행단체로서의 위상이 아닌 지역적, 문화적 삶의 가치와 지역의 각 단위들과의 조율자로서 성숙한 모습을 갖춰가는 점을 고민
박승희 (영남대학교국문과 교수)	- 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이 독립된 사업을 하기는 어려움. 기본적으로 문화원연합회를 중심으로 플랜을 세우고 지방문화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이 춘 아 (한밭문화마당대표)	- 광역단위의 지회 역할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개별문화원이나 연합회 단독으로 추진이 곤란한 사업은 연합회와 지회가 함께 추진.
이 현 식 (인천문화재단사무처장)	- 타문화단체와 경쟁관계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이 양 수 (부산대학교 관광컨벤션교수)	- 지방문화원은, 지자체나 광역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 관광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공유하여 문화원의 입지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v

나가면서

-



문화원은 지난 50년 동안 해방공간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적 구심체 역할을 했다고 자부해 왔다.

문화원장은 지역의 가장 덕망있고 존경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시대가 변해가고 또 이미 많이 변했다.

휘몰아치는 논리의 홍수 속에서 문화원은 어떤 논리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깊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회의와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올 한 해 여러 차례 마련되었고, 보다 더 진지하게 현재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였다.

그렇게 등장한 네 가지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문화원의 자기 위상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렇다면 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거점인가 하는 고민과 문화원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의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질문이다.

둘째, 문화원이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 걸 맞는 문화 사업을 개발, 시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시대적 흐름은 어떠한가 그 흐름에 적합한 지표는 개발되어 있으며 그 지표에 따른 각 지방문화원마다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복합적인 의미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문화원이 현재의 시대정신을 담보하는 문화담론을 생산하고 있는가?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정책을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넷째, 문화원이 그 대안 문화를 고민하고 있는가?

가치와 지향의 문제이다. 목표설정의 문제이며 비전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문화원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지향하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고민의 흔적이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아닌, 어느 하나의 길만을 합의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원 마다 저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고, 그 특색들이 모여 다채로운 문화의 빛깔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이하 부록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만들어진 중, 장기 발전방향(안)들이다.

모두 한 자리에 모아보면 대동소이하지만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미래비전 설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교해보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다.



-
VI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 1)
-

1) 이 보고서는 2012년 10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발췌함.

I. 수립배경

II.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3. 사업진단

III. 목표 및 추진전략

1. 비전 및 목표
2. 추진전략
3. 지방문화원운영모델
4. 업무추진구조

IV. 중점추진대책

1. 추진과제 요약

I. 수립배경

우리 문화의 정체성확보가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됨에 따라, 차별화된 전통문화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지역문화자원을 발굴 및 보존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지방문화원의 발전적 역할이 재조명 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부각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문화의 사회적 역할이 기대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지방문화원의 사회적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

1. 21세기 문화정체성과 경쟁력은 ‘지역’으로부터 창출

- 국경 없는 문화 유통의 시대에 들어선 현대사회에서 우리문화의 정체성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전통의 대중화·현대화’, ‘생활문화의 유지발전을 통한 전통화’가 선진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음

→ 따라서, 지방문화원의 역할 재조명 및 지속적 발전 여건의 마련이 필요함

- 차별화된 전통문화콘텐츠의 원천인 지역문화자원을 발굴·보존하고 새롭게 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키는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주목함
- 지역문화 활성화는 국가적 문화브랜드 형성의 원천이므로, 이를 발굴하고 알릴 수 있는 주요 역할을 지방문화원이 해야 함

2. 문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역할 증대

- 경제적 양극화, 초고령화 및 다문화 사회에서의 공존 등이 사회적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임

→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문화의 기능이 부상함에 따라 문화거점으로서의 지방문화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각 지역의 거점으로서 문화원은 '문화'를 통해 한국인들의 해체·배제·소외를 극복하는 통합장치가 되어야 함
-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현장의 자생적 노력과 현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3. 지방문화원의 강점과 기회요인

- 지방문화원은 그 동안 지역 내 문화공간과 단체·예술가 등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왔으므로 지역문화 자원발굴과 모집이 용이하다는 강점을 가짐
 -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전문인력양성'교육 후 과정의 수요처 개발이 용이하다는 강점을 가짐
 -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지회, 지회에서 지방문화원으로 연결되는 그물망 형태의 구조로 정책 전달체계가 용이한 강점을 보유함
- 지역 내의 지방문화원 간의 네트워킹 및 지방의 문화관련단체와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보유함

→ 이상으로 볼 때, 지난 50년간의 활동들을 통해 지역문화의 성장을 위한 기능적 강점들을 지방문화원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전문인력양성과 이를 통한 창조적 사업들을 '지방문화원'과 '지회' 그리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적절한 협업과 각각의 역할 이행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Ⅱ.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1) 기능 및 주요사업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문화시설로, 지역문화 개발 및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문화사업 진행

-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및 보급, 향토사의 발굴 및 조사, 지역문화행사, 문화관련 자료수집, 지역전통 문화 교류, 사회교육활동,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등

2) 조직 및 인력

- 2011년 기준 전국 299개 기초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에 229개 문화원 설치(5개 지자체 미설치)⁵⁾
- 시설·공간 : 문화원 평균 운영기간 32.3년 ⁶⁾
- 직원현황 : 평균 3.3명(사무국장 1, 직원 1, 기타 1)
- 지방문화원회원수 : 15만여명(평균 650여명/회비납부)

3) 재원

- 2지방문화원당 분권교부세 5,800만원 ⁷⁾ 지원
- 2전체 228개 문화원 중 82개 문화원 기금 조성 ⁸⁾
- 2재정자립도 21.78% ⁹⁾
- 2지방문화원 예산 현황 평균 450억원 ¹⁰⁾

4) 운영현황

• 지방문화원 운영사업현황

계	문화원(수)	교육	공연	전시	공무/경연	축제/행사	연구/발간	국내외교류	기타	계
문화원	205	5,087	586	420	359	866	570	74	583	7,962 ¹¹⁾
비율		63.9	7.4	5.3	4.5	10.9	7.2	0.9	—	100%

[표] 문화원사업 12) *229개 중 205개 문화원 답변(연합회 자체조사)

5) 부산(중구, 해운대구) / 인천(동구, 옹진군) / 충남(계룡) 등

6) 법정기준(330m²)미달 문화원 : 77개(34%) / 복합시설 및 개인건물 임대 73개(35%)

7) 지방비 매칭 포함

8) 지방문화원당 약 2억7천5백만원 기금조성

9) 2009년 기준

10) 한국문화원연합회 자체실태조사 2011년 기준

11) 지방문화원 평균 33.7개 프로그램 운영

12) 한국문화원 연합회, 2010, [지방문화원 활성화 방안], P62

- 연간 이용자수 : 9백만여명 ¹³⁾

계(단위 : 명)	유아	청소년	직장인	주부	60세이상	기타
9,012,208	651,136	1,277,627	827,080	2,563,124	1,501,159	2,192,082

[표] 문화원 사업

- 보유자료 수 : 18만여점(평균, 7913점) ¹⁴⁾

구분	도서	비디오(영상)	테이프(음성)	사진(그림)	채록물(기록)	기타	계	평균
문화원	1,167,354	51,859	14,979	351,952	3,296	8,933	1,598,373	7,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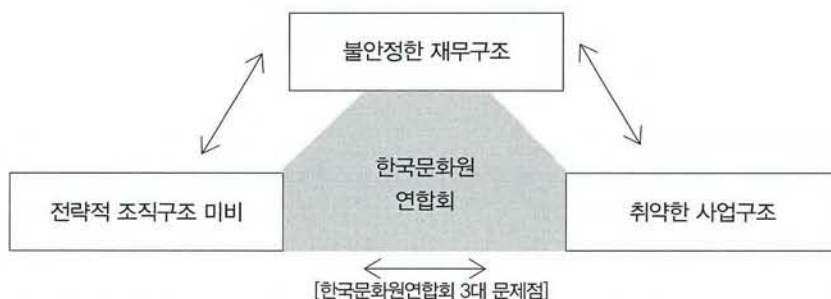
[표] 문화원 사업

2. 문제점

- 지방문화원 문제발견의 관점은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유기적 관계성에 따라, 양쪽 측면을 모두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2.1. 한국문화원연합회

-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외부환경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이어지며, 이는 재무구조의 취약으로 이어짐. 조직의 불안정한 재무구조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실행의 어려움을 주는 동시에 우수자원확보와 조직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13) 한국문화원연합회 자체실태조사(2011년)

14) 한국문화원연합회 자체실태조사(2011년)

-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취약한 재무구조
 - 기금감소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자체사업의 기획과 실행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독립적 수익확보가 어려운 악순환의 구조를 생성함
- 전략적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구조의 미흡
 -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 및 직위 체계의 불안정성은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경영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
- 높은 외부환경 의존도로 인한 취약한 사업구조
 - 주요 사업에 대한 높은 정부의존도에 따라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정해지는 취약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문화원연합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취약한 인적구조 내에서 지역문화를 향상시키는 여러 성과를 내어왔으나, 향후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 재무구조 및 조직구조의 취약함의 극복이 우선 선행되어야함**

2.2. 지회

- 재정적 지원 및 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재정구조의 취약함
 - 지회별 격차가 있으나, 한정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원예산에 의존하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재정구조의 취약함이 드러남
- 법적지위의 부재로 인한 위상의 취약함
 - 지회의 역할에 대한 자발적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명확한 업무 및 지역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한 소통이 필요함
- 지회별 격차
 - ‘연대’와 ‘자발적 능력’에 따라 활동함에 따라 지회별 역량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지회활동에 대한 여러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지회의 활발한 활동들이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 사업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에 따라, 지회를 통한 사업 촉진 및 강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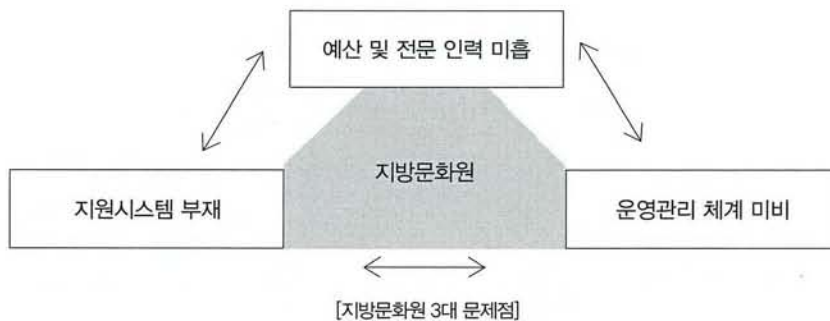
※ 지회별 사례

- 대전지회는 5개 지방문화원의 자체토론회 및 사무국장 연대 등을 통해 짧은 기간 내에 각 지방문화원의 독립원사를 확보함

- 경기지회는 광역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지회로서의 연합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사업비 증대를 통해 자체연수프로그램 및 네트워크사업, 문화유산토론회¹⁶⁾ 및 인력양성 사업 등 지회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2.3. 지방문화원

- 예산 및 전문인력의 부족은 지방문화원의 자체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전문성 결여로 이어지며, 이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시설 및 시스템의 미비, 운영관리체계의 부재로 이어지게 되어 순환적인 문제들로 이어짐



- 예산부족 및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 예산부족으로 인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문화원 경영의 전문성 결여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됨
- 전문적 운영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경영 악화 가능성
 - 관리체계 및 운영시스템 미비는 경영 측면에서의 발전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에 따라 개별 문화원의 자생력 확보와 독립적 운영이 불가하도록 함
- 지역문화 정보수집 체계의 취약으로 인한 일부 문화원의 본연적 기능 약화
 - 정보의 관리 및 운영체계의 부재로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지방문화원 본래의 기능적 역할이 미약해짐

16) 경기문화재단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사업 운영

→ 229개 지방문화원 및 16개 지회의 우수인력들이 활발한 지역문화활동을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 및 인력으로 인한 고질적인 어려움(운영관리체계의 미비와 지역문화정보수집 체계의 취약 등)들로 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가짐

3. 사업진단

- 모든 문제의 발견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지난 50년간 지방문화원의 역사적 근거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원연합회 추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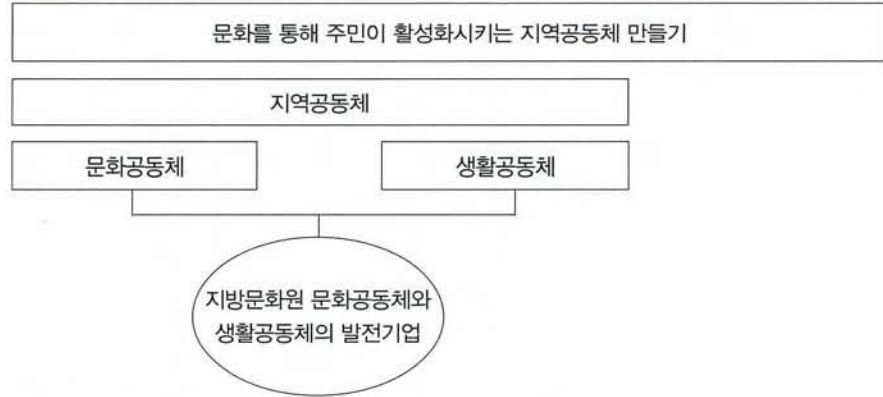
No.	주요사업명	추진연도
1	연합회 기관지 발간	1964~현재
2	해외문화단체 교류	1964~현재
3	문화원 관계자 연수교육	1974~현재
4	한국민속예술축제(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84~1996
5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개최 및 시상	1986~현재
6	정보화 사업	1997~현재
7	문화학교 운영	1992~현재
8	생활문화운동 전개	1983~현재
9	향토문화자원의 조사, 정리, 발간	1999~현재
10	역사마을 만들기	2002~2009
11	지방문화원 육성발전 사업	2003~현재
12	특화사업	2003~현재

- 프로그램의 내용의 우수성 및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예산구조의 취약함으로 인해 중단된 프로그램이 있음
-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 등 제반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음
- 지방문화원의 명확한 역할규명 및 비전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지시 및 전달체계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 공동의 협의 및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함

Ⅲ. 목표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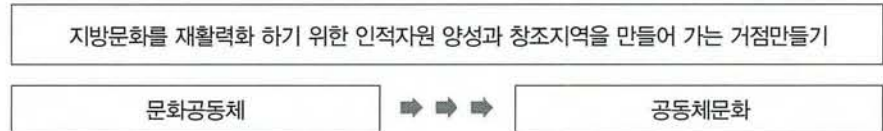
1. 비전 및 목표

비전 Vision



※문화공동체 18)와 생활공동체 19) 양자의 지역 내 발전거점으로서의 문화원 만들기

목표 Global



※문화예술을 통한 공동체 활동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 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적자원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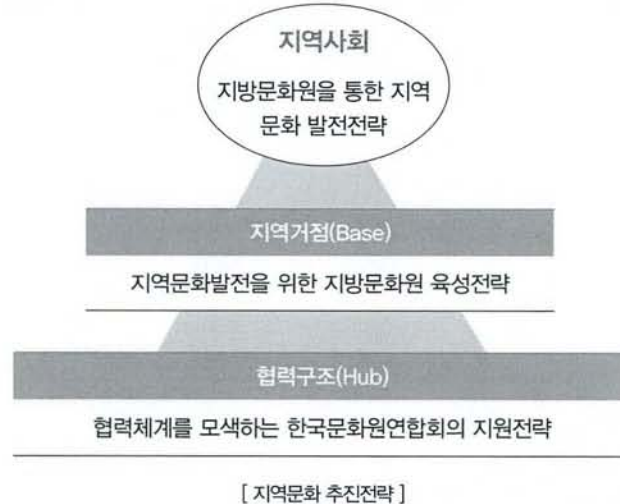
지방문화원 활성화 15대 추진사업		
지역사회(Local) 지역문화 발전전략	지역거점(Base) 지방문화원 발전전략	협력구조(Hub) 한국문화원연합회 발전전략
1) 동네문화여기프로그래 공모전(가칭) 2) 제3세터 개발사업 3) 지역 재생 프로젝트 - 마을기획 양성과정 과정 후 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 4) 창조도시 프로젝트 - 시민연합체 구성 / 창조도시 설계 워크샵	5) 시민기획자교육프로그램 개설 6) 문화원조직강화 프로젝트 - 문화원 전문인력양성 보수교육의무 시간제 / 인턴십 제도 도입 7) 문화거버넌스 사업 8)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전 - 나의 생활문화답사기 스토리텔링 공모전(가칭) / 나도 축제기획자 마을축제 공모전(가칭) / '친구야놀자' 생활문화공동체 공모지원(가칭) 9) 통합아카이브(인적자원, 물적자원) 데이터베이스화 진행	10) 조직환경개선을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 - 경영평가 · HRD · HRM 시스템 11) 연합회 지역문화경영과정 의무화 12) 지방문화원교류협력지원사업 13) 향토문화자원 활용한 특화상품 프로그램개발 14) 역사문화 통하빛식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 15) 문화원 공동홍보프로모션 TF개설

18) 문화를 매개로 이루어진 주민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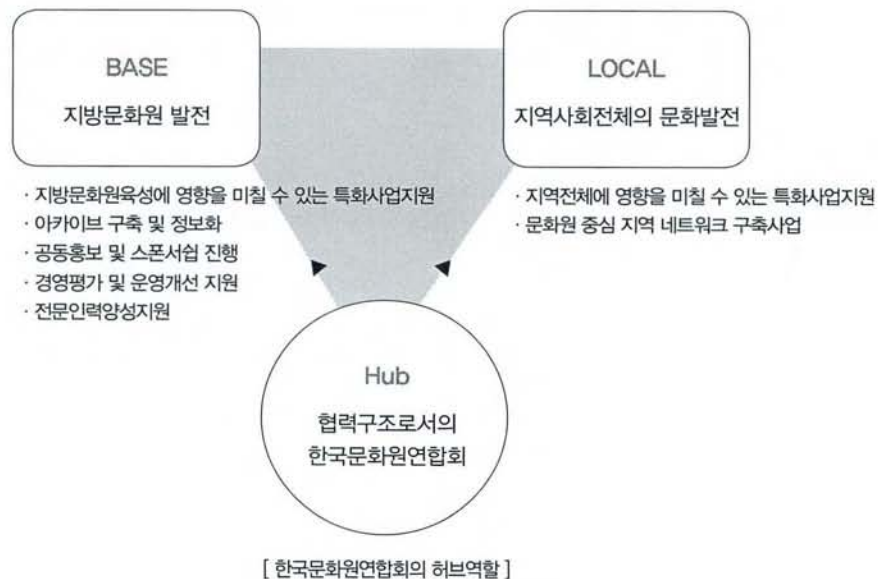
19) 주민들의 생활현안이나 지역 내 문제를 공감하여 이루어진 연대(예시 : 성미산주민공동체)

2. 추진전략

- 지방문화원들의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할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원전략을 구성하고, 궁극적으로 각 지방문화원들을 거점으로 한 지역문화 발전전략을 수립함



- 허브(Herb)의 역할로서의 한국문화원연합회



3. 지방문화원 운영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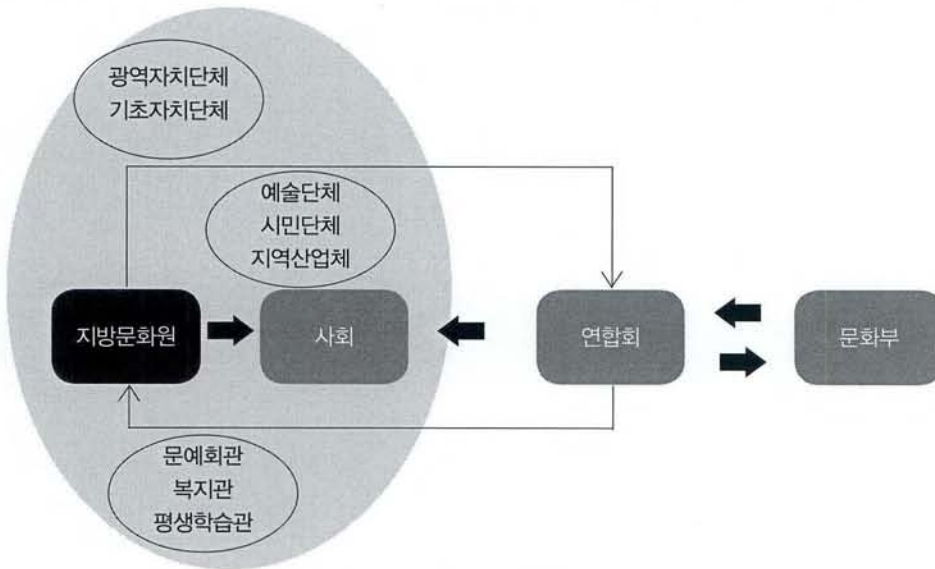
- 국내외 사례를 통해 핵심요소를 도출하고 향후 지방문화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함

사례		키워드	문화원의 역할
국외사례	국내사례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21 ²⁰⁾	대구 삼덕동 마을만들기 ²¹⁾	지역재생	① 민간주도형 문제해결의 거점 ② 주민발의 및 주도의 구조 ③ 예술가를 비롯한 전문가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지역인력양성
일본 시네마현 오키 아마초(커뮤 니티 디자인 스튜디오 엘 (Studio-L)) ²²⁾	태백 철암동 마을만들기 ²³⁾	제3섹터	
꿈의 생태도시 브라질 꾸리찌바 ²⁴⁾	성미산마을 공동체	문화거버넌스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 ²⁵⁾	파주헤이리주민협의체	창조지역	

- 20) 일본의 역사적 항구도시인 요코하마는 지역재생프로젝트인 '미나토미라이21 지구 구상'에 따라, 공공섹터와 민간섹터가 일체가 된 조직체를 설립하여 창의성과 활력을 도모하여 성공적인 지역재생을 이루어냄
- 21) 지역주민과 대구YMCA가 운영주체가 되어 재개발 흐름을 차단하고 마을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높이는 새로운 콘텐츠의 마을만들기 사업 실시함
- 22) 재정악화상태에 놓인 시네마현 오키 아마초는 커뮤니티 디자인 회사인 '엘-스튜디오'와 함께 지역의 종합진흥계획에 있어 주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함. 엘-스튜디오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4개의 워크숍 팀의 활동을 디자인하고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캐릭터 상품을 발간하는 등의 실행으로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는 강력한 지역브랜드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제시함
- 23) 폐광마을로 지속적으로 낙후되는 마을환경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1980년대 폐광된 원형대로 탄광촌을 보존하여 '살아있는 탄광역사마을'의 정체성 회복 및 관광지로 활성화
- 24) 1960년대 초반 자이메 레르네르와 친구들이 만든 대학생스터디 모임에서 시에 제언된 대안프로그램으로 '인간중심의 살기편한 도시를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만든다'는 내용으로 건설계획의 수정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스터디모임은 시의 공공 연구팀으로 채택 '꾸리찌바종합계획'을 만들
- 25) 1965년 프라이부르크시가 연합군 철군지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하면서, 시민자치 모임인 포럼 보봉이 출범하면서 30여명의 시민들은 교통, 에너지, 주민공동시설, 주거환경 등 주제별 소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전문가가 영입되어 본격적인 프로젝트 마련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소망을 바탕으로 마을을 만들

4. 미래지향적 사업추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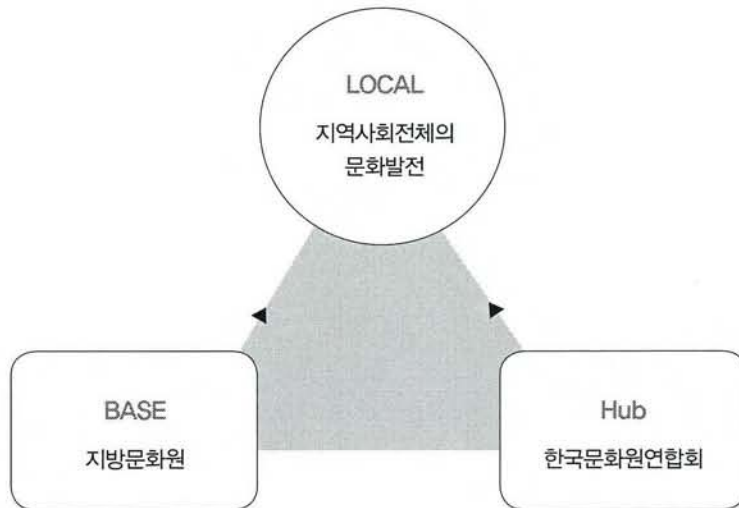
- 문화원 중심의 수평적 추진구조를 통해 효과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구조]

- 타공공문화시설과의 차별화가 필요함
 - 지역문화기획자 양성 및 주민활동가와 문화봉사자에 대한 깊이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문화예술지원 센터 및 평생학습관, 지역복지관 등과의 차별화가 필요함
 - 주민자치센터 및 현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커뮤니티센터와의 기능차별화를 통해 지역의 각종단체의 교류협력 구조를 만드는 봉사자의 역할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중요문화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확보하여 미래지향적 역할을 해야 함
 - 지역문화재단과의 역할 분화를 위해 지역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역문화재단은 지원조직으로, 지방 문화원은 사업발굴조직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함
 - 예술공동체·주민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해 온 지역기관(문화의 집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주민문화인력 양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문화원 자체발전보다 지역사회와 전체문화발전을 목표로 한 새로운 비전 설정을 해나가야 함



- ※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 발전의 필요조건
- 지역협력체제를 구성하는 지방문화원의 간사 기능
 - 이를 지지하기 위한 한국문화원연합회·지회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기능

IV. 중점추진대책

1. 추진과제요약

1.1. 스키마분류에 따른 추진과제 요약

	지역사회 (Local) 지역문화 발전전략	지역거점(Base) 지방문화원 발전전략	협력구조(Hub) 한국문화원연합회 발전전략
우선 순위사업 26)	• (지)문화여가 · 복지사업 - 문화여가를 통한 주민복지사업 • (지)세대간 통합 사업 - 3세대 간 교류 등 추구 • (지)다문화인지 사업 - 다문화가족이 살고있는 지역주민들이 이들과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민인력양성사업 - 동네예술가/마을기획자 • 전문인력양성사업 - 전통문화기획자/지역문화마케터/문화기획자 • 문화원운영인력양성사업 - 인턴십 등 • 기존문화학교 및 사업 개편 - 동아리방 · 사랑방으로서의 기반 제공	※ 선결과제 - 법 · 제도개선 - 경영혁신 • 경영평가시스템 구축 - 조직환경개선 • 문화원 실무능력향상체계 구축 - HRD · HRM 시스템지원/직무능력 교육/지역아카데미 확대운영
선도사업 27)	• 제3섹터 개발사업 - 지자체와 지역산업체의 단계별 동반 사업	• 지방문화원 지역내 문화거버넌스사업을 통한 지역 리더십 확보	• 교류협력사업발굴 • 문화원간 교류 사업 및 협력 구조 지원
핵심 전략사업 28)	• 전통문화거점화사업 - 장소성을 활용한 전통문화의 창조산업을 지원하고 디지털라이징콘텐츠 및 방식을 통한 문화외교 실행 • 이중문화융합지역사업 - 문화를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와 외부문화의 융합을 이끌어냄	• 생활문화사업 - 주민들을 통한 생활문화, 지역사를 통한 향토문화를 활용한 문화자원발굴 및 개발	• 주민문화공간형성사업 - 소프트웨어측면에서의 문화공간 형성 및 운영주체발굴 • (지)문화기초사업 - 지역책임형문화기획자 사업 및 문화활동가 채용사업 등
기반사업 29)	• (지)문화인력을 활용한 지역재생 및 창조지역사업 - 지역재생을 위한 인력자원 발굴 및 협의체 구성으로 지역재생을 통한 창조지역거점사업 지원	• 지방문화원 실태현황파악을 통한 문화원 운영 및 근무여건 개선 - 인력확충 및 사업예산구조 안정화 • 지역문화아카이브 구축 - 지역문화자원 및 지역활동가 관리 기초데이터 구축	• 정보네트워크 지원 - 지역문화자원 정보시스템 /문화원평가시스템 마련 및 현황실태조사 ■ 인적네트워크 지원 - 지역세미나 및 공동체포럼/민간네트워킹 지원 ■ 네트워크지원을 통한 공동홍보채널 마련
비고	■ 경영혁신전략사업 ● 점-선-면 전략사업 ◆ 환경과 자원분석을 통한 전략사업 ※ 선결과제 (지) 지회운영사업		

2. 선결과제

※ 중점추진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 내부의 경영혁신과 더불어 각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제도의 개선을 우선순위사업으로 정하여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시급히 운영함

	지역사회 LOCAL	지역거점 BASE	협력구조 HUB
우선순위사업			
선도사업			
핵심전략사업			
기반사업			

- 법·제도개선
- 각 단위별 경영혁신

[한국문화원연합회]

- 이사회를 통해 합의된 한국문화원연합회 팀(team)제 운영의 정상화
- 업무규정에 따른 팀별 업무 명확화
- 외부위원회의 명확한 기능설정 및 운영활성화를 통해 경영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 예산구조의 다각화를 통한 자체경쟁력 확보
- 교육강화 및 운영지원을 통해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방문화원 선도기능 강화

[지회]

- 자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방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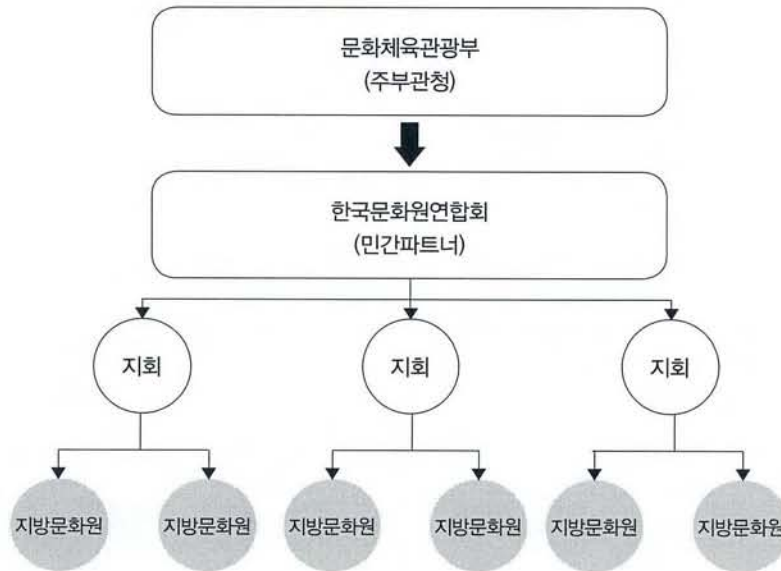
- 지역거점에 적합한 선진적 경영방식 채택

[선결과제의 내용 및 구조]

- 26) 우선순위사업이란 목표달성을 위한 시급사업을 의미함
 27) 선도사업이란 제반사업을 견인할 수 있는 1순위 추진사업을 의미함
 28) 핵심전략사업이란 추진전략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도가 높은 사업을 의미함
 29) 기반사업이란 비전달성을 위해 기초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자원형성 사업을 의미함

2.1. 법·제도 개선

- 한국문화원연합회 및 지방문화원의 효과적인 문화네트워크를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변화에 맞는 법,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지방문화원진흥법, 정관, 규정 등 종합적 제도 개선
- 지회가 지역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 간의 효과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수행 및 질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조직 개선을 통해 신뢰구조를 구축함



2.2. 경영혁신

- 지방문화원의 사업운영체계를 혁신하고 각 지방문화원과 지회 그리고 지역문화간의 '허브'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 지회 및 지방문화원 각각의 내부사업구조의 혁신이 우선 이루어져야함.
-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회 및 지방문화원 각각의 역할 및 업무제반운영에 있어 회계투명성 및 효율적 업무구조 확보를 위해 단위별 회계관련 윤리강령, 단계별 업무매뉴얼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함.

2.2.1. 한국문화원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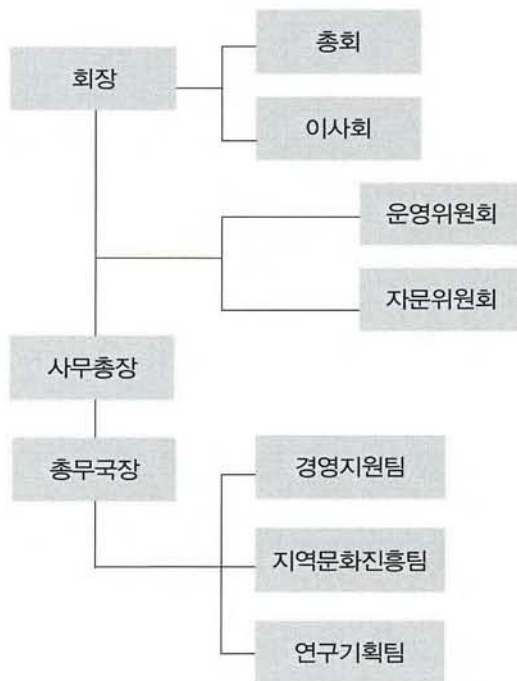
• 제규정 현실화를 통한 내부조직체계 개선

1) 이사회를 통해 합의된 한국문화원연합회 팀(team)제 운영의 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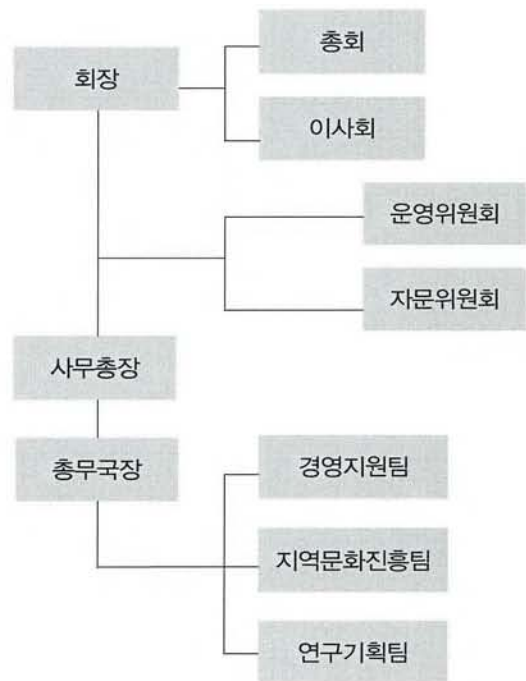
→ 팀장의 권한 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확보

→ 팀별 자율적 권한을 통한 다양한 특화사업 기획력 강화

→ 제규정 조직구조³⁰⁾에 따라 사무총장 보고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내부조직력 강화



[실제운영조직도]



[제규정 내 조직도] ³¹⁾

30) 현재 이사회를 통해 승인된 제규정 조직도와 달리, 총무국장직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의 임명에 따라 조직구성의 직제에 포함되어 있음.

31) 한국문화원연합회 제규정, 2012. 6

2) 업무규정에 따른 팀별 업무 명확화

- 업무에 대한 내부조직원들의 재합의 과정 및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규정의 타당성 확보
- 업무규정 및 내부합의에 따른 팀별 적절한 업무 분배를 통해 업무효율성 확보
- 명확한 업무권한 및 책임에 따른 조직원들의 업무능력 고양 및 충성도 확보

	경영지원팀	지역문화진흥팀	연구기획팀
직제 규정에 따른 업무 32)	- 직인관수 - 서무, 문서관리, 보안 - 인사, 복무, 교육 및 후생복지관리 -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 회계에 관한 업무 - 재산 및 물품관리 - 각종 법규, 정관, 규정, 내규 등의 제·개정사항 - 총회, 이사회 등 각종 회의사항 - 지방문화원 및 시·도지(협)부 지도 및 협조사항 -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 국·내외 문화교류사업 -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국가 및 기관·단체 위탁사업 추진 - 기타 기관 등의 공모사업 등	- 문화원 발전 조사연구·평가 및 컨설팅 - 문화사업 개발,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 (향토자료 DB 등) - 지방문화원 통계자료 관리 - 향토문화 콘텐츠 개발 및 관리 - 인재육성 교육개발 (지역문화경영교육 등) - 연합회 홍보에 관한 사항

3) 외부위원회의 명확한 기능설정 및 운영활성화를 통해 경영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 조직내부의 외부견제기능으로서의 운영위원회의 혁신적 개선을 통해 경영투명성 확보
- 지원기능으로서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팀별 기획력 및 사업전문성 확보

구분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구성	• 16개 지회사무처장 • 사무국장협의회 임원(20여명)	• 회장 직할 경영기획자문 전문가 • 한국문화원연합회의 팀업무별 외부전문가
기능	• 지회의 혁신적 사업개발 • 각 지방문화원과 지회의 의견 수렴	• 필요 시 경영혁신 자문 • 각 팀별 신사업발굴 자문 • 기존사업의 질적 보완 지원
기대 효과	•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선도기능 활성화 • 지회 운영의 활성화	• 사업 연속성 및 일관성 확보 ※ 회장단?임원단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개선 • 장기적 비전에 기반한 사업운영
운영 방법	• 연 2회 이상 • 정기포럼형식, 온라인 상시 소통 체계 등	• 필요시 자문회의 구성 • 팀별 사업단계에 따른 비정기 회의

32) 직제규정 제2장 조직 및 정원, 한국문화원연합회 제규정, 2012.6

4) 예산구조의 다각화를 통한 자체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에 따라, 타기관으로부터의 예산 지원 등을 통한 예산구조의 다각화
- 공동홍보 및 스폰서십을 통한 통합적 재원확보시스템 구축

※ 한국문화원연합회는 공공성을 담보한 문화복지실현의 모체혈관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수익 창출에 대한 역할을 부여할 경우 '공공성'과 '영리추구'의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국가적 문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계층(소외계층)의 문화를 위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역할을 내외부적으로 명확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음

5) 교육강화 및 운영지원을 통해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방문화원 선도기능 강화

- 운영위원회를 활용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와 각 지회 및 지방문화원의 공동의 의사결정구조 확보
- 기존 교육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역할과 수요처를 염두에 두고, 지식전달형 교육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원 운영전략개발 및 이에 대한 공유워크숍 및 연수 운영 등 인력양성의 체계적 구조를 확보하여 지방문화원 인력의 실무능력강화 지원
- 지방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교육 등 기초강화프로그램을 통해 법인운영지원
- 경영개선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방문화원의 경영시스템 개선지원

2.2.2. 지회

• 자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독립적 사업비 운영을 통해 기획력 및 경쟁력 강화
-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 간의 연결고리로써의 지회 역할에 대한 공감을 통해 정체성 확보

※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회의 역할분담을 통해, 기반사업의 경우 문화원연합회에서 예산을 관할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는 세부전략사업(향토문화발전사업 등)의 경우 지회가 직접 예산을 관할하는 구조를 통해 자체기획력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체성 확보에도 기여

2.2.3. 지방문화원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문화원 운영에 지역민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참여형 문화공동체

로서의 지역거점에 적합한 선진적 경영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참여형 공동체사업의 확대

- 이사회 외의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운영위원회 등과 같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 경영정보공개를 통해 지방문화원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높임
- 주민신문고운영 및 문화 활동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주민과 지방문화원간의 소통 채널을 확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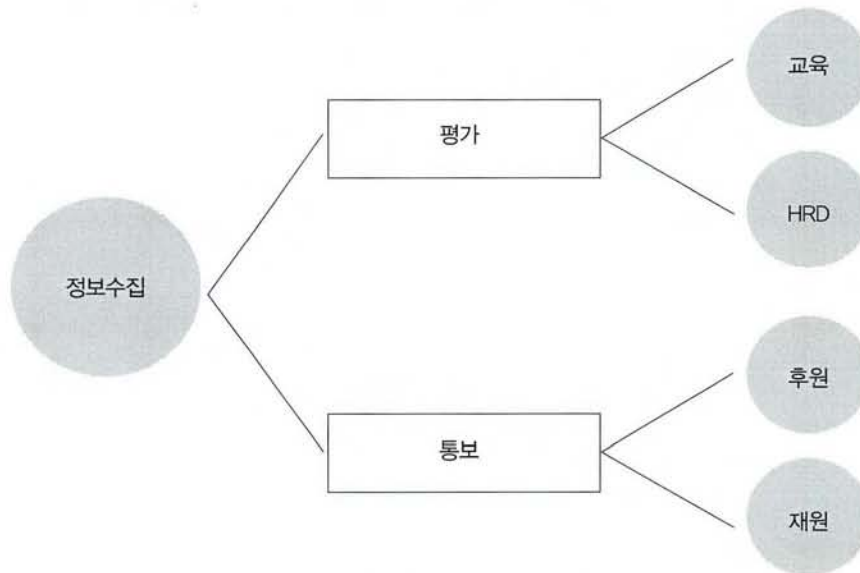
3. 사업운영체계 혁신과제

※ 사업운영체계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우선순위사업과 기반사업을 구성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한 사업들과 비전달성을 위해 기초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자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지역사회 LOCAL	지역거점 BASE	협력구조 HUB
우선순위사업				●	●
선도사업					
핵심전략사업					
기반사업				●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우선 순위 사업	• 경영평가시스템 구축 – 조직환경개선 • 문화원 실무능력향상체계 구축 – HRD · HRM 시스템지원/직무능력교육/ 지역아카데미 확대운영	• 지역민인력양성사업 – 동네예술가/마을기획자 • 전문인력양성사업 – 전통문화기획자/지역문화마케터/문화기획자 • 문화원운영인력양성사업 – 인턴십 등 • 기존문화학교 및 사업 개편 – 동아리방 · 사랑방으로서의 기반제공
기반 사업	• 정보네트워크 지원 – 지역문화자원 정보시스템 /문화원 평가시스템 마련 및 현황실태조사 • 인적네트워크 지원 – 지역세미나 및 공동체포럼/민간네트워킹 지원 • 네트워크지원을 통한 공동홍보채널마련	• 지방문화원 실태현황파악을 통한 문화원 운영 및 근무여건 개선 – 인력확충 및 사업예산구조 안정화 • 지역문화아카이브 구축 – 지역문화자원 및 지역활동가 관리 기초데이터 구축

[사업운영체계 혁신과제 내용 및 구조]

- 지역의 각 거점에 해당하는 지방문화원 조직의 내부혁신을 통해 사업의 효과적 운영체제를 도입하고, 이를 한국문화원연합회 중심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도모함
- 사업운영체계 혁신과제는 크게 자료의 수집과 이를 통한 지식정보 구축, 각 지방문화원과 한국문화원연합회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재원마련과 자생력 확보, 지방문화원의 운영전문화를 통한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확보 및 인적자원관리를 목표로 수립함
- 사업운영체계혁신을 통한 궁극적 지향점은 각 지역의 축적된 정보를 통해, 운영 및 경영 측면에서의 발전을 위한 평가의 축과 사업적 측면에서의 재원마련을 위한 홍보의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경영혁신과제의 목표도달지향점]

• 혁신과제별 기대역할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조직환경 관리 System	지식	정보구축	평가	혁신
사업기반 확보 Infra	자원확보	데이터구축	홍보	재원마련
인적자원 관리 Human	지역민 인력양성	네트워크구성	HRD	H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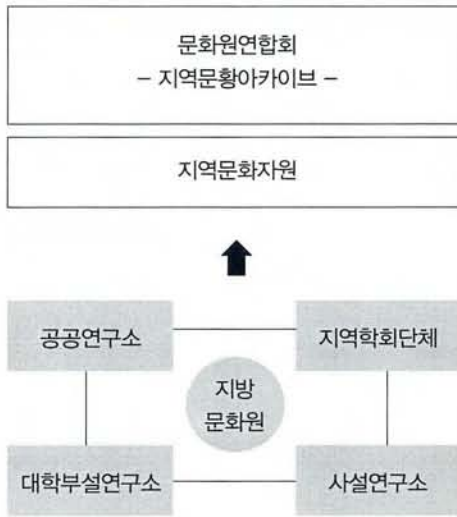
선결과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사업구조 및 조직구조의 개선
------	---------------------------

1) 조직환경관리

- 229여개의 지방문화원에 통합적 조직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의 지식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연합회는 각 지방문화원의 실태조사 및 데이터구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배포하고, 향후 축적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역할이 요구됨
- 자율적 운영권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조직의 운영 및 시스템에 대한 자체평가시스템 도입이 요구됨
 - 문화원연합회는 자체평가시스템과 매뉴얼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각 지방문화원은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인 자체평가를 시행함
 - 이를 위해, 1문화원 1전담 컨설턴트 체계를 통해 자체평가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함
- 자체평가를 통해 수집된 정보로 각 문화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자료로 데이터화 함
- 업무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각 사업별·직무별 업무매뉴얼을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 과정이 필요함

2) 사업기반확보

- 각 문화원의 인적자원과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하여 이를 활용한 공동홍보프로모션을 통해 재원 확보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연합회는 각 지방문화원을 통해 수집된 지역의 문화자원과 인적자원 정보를 소통시키는 허브역할을 통해 모아진 정보를 활용하여 공동홍보 및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후원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함
-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정보의 순환구조를 확보하여 각 문화원별 정보소통 및 문화원연합회를 통한 정보의 축적 및 지식체계가 구조화될 수 있도록 함
 - 한국문화원연합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지원체계의 재정립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통합시스템지원을 기반으로 정보의 순환구조를 확보하여 각 문화원별 정보소통 및 문화원연합회를 통한 정보의 축적 및 지식체계가 구조화될 수 있도록 함
 - 이는 향후, 지역문화 아카이브로 기능하여 국가문화자원의 데이터베이스로서 보존 및 활용되는 정보의 지식순환구조를 이루게 됨



[정보의 지식데이터화 체계]

※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아카이빙 기능을 단순히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이라는 공간적 경계의 개념에서 벗어나 전국의 지방문화원을 하나의 집합체의 개념으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각각의 지역문화자원으로 구획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의 민족문화자원을 발굴하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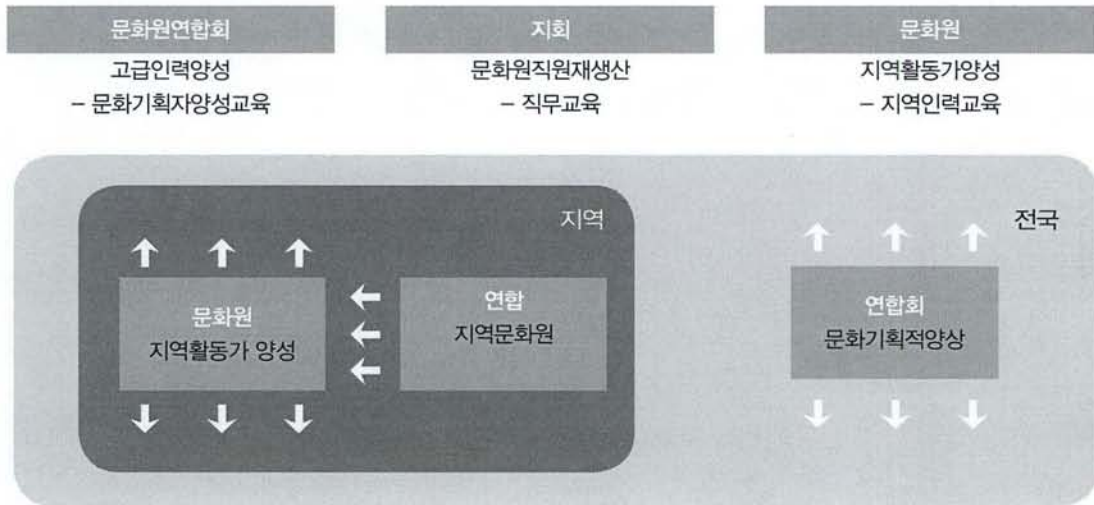
- 지역문화아카이브를 통해 지역문화자원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발굴과 동시에 민족문화를 발굴시키는 역할로서 지방문화원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방문화재단 및 지역 내 유사기관과의 역할 재정립과 동시에 지역 내 문화혜택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공동화 현상이나 세대별 미흡한 문화향유기회를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수집시스템의 구조적 체계 마련을 통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는 문화원의 자체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함
 - 정보수집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전통문화스토리텔링 콘텐츠 제공, 역사문화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업형의 수익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또한,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지역관광콘텐츠와 연계하여 수익사업에 기여하는 등의 자생력 확보에 기여함

3) 인적자원관리

- 문화원연합회는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재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인적관리가 효율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

- 각 지방문화원은 창의적 사업이나 교육을 통해 지역의 활동가 인력을 양성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이들의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자생·발전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 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참여형 교육 및 지식공유를 통한 '지역주민의 전문인력화'로 지역활동가를 재생산 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의 순환구조 마련



[인적자원 양성구조]

-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적인 활동들이 문화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과 계기를 마련함
 - 주민들의 일상적인 활동들이 문화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원이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소통의 공간으로 역할을 함
 - 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활동들이 발화될 수 있도록 '향토문화지킴이'등과 같이 주민 공동의 커뮤니티로서 문화원이 인식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용인향토문화지킴이 시민모임은 용인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을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직접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 2000년 발족된 시민모임으로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답사를 통해 보존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연구활동과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지역홍보모임으로서의 활동함

4. 네트워크강화 전략과제

※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전략적 과제들을 견인하기 위한 선도 사업으로써 지역 및 사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과제를 수행함			지역사회 LOCAL	지역거점 BASE	협력구조 HUB
		우선순위사업			
		선도사업	●	●	●
		핵심전략사업			
		기반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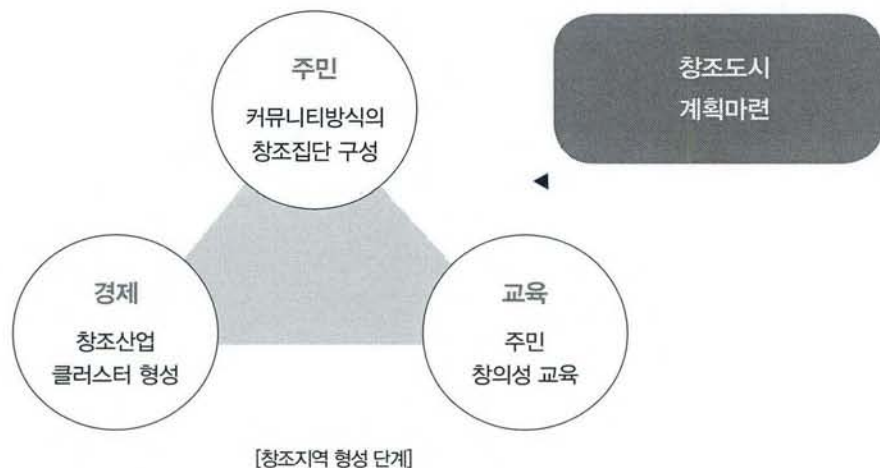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선도사업	- 교류협력사업발굴 - 문화원간 교류 사업 및 협력 구조 지원 -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지역문화박람회 등을 통해 지역문화를 소개하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홍보 하거나, 시상하는 등을 통해 지역네트워크를 형성	- 지방문화원 지역내 문화거버넌스사업을 통한 지역 리더쉽 확보 '지역문화사업전시회'와 같은 기회를 지방문화원이 개최하여 지역 내 문화자원의 수요를 파악하고, 거버넌스에 참여할 민간단체 및 시민조직이 공동으로 사업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지역사회	
	- 제3섹터 개발사업 - 지자체와 지역산업체의 단계별 동반사업 - 지역과 지역기업체와의 동반자 개념을 구축하는 공동작업 -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 경제 및 지역산업 측면에서의 지역활성화를 도모	

[네트워크 강화 전략과제 내용 및 구조]

- 창조적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을 위해,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의 점-선-면 전략을 통해 지방문화원 전체의 발전을 도모
 - 각각의 '점'으로서의 지방문화원이 지역의 기타 문화관련 조직 단체와 만나는 '선'을 통해, 거버넌스 및 제3섹터 구축의 '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문화원이 타 지역의 지방문화원과 교류하는 '선'을 통해 광역단위 및 전국단위 지방문화원 사업의 '면'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함
- 점-선-면 전략을 통한 궁극적인 목표는 지방문화원과 문화원연합회의 연대를 통한 지역활성화의 효과촉진, 주민 및 민간조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창조지역 형성에 있음

1) 제3섹터 개발사업

- 문화원과 문화원연합회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의 제3섹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와 지역산업체의 단계별 동반성장을 통해 1사 1문화원 사업을 넘어 지역과 지역기업체와의 동반자 개념을 구축하는 공동작업이 됨
 -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1사 1문화원 재능기부'를 통해, 기업은 직원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넓혀주고, 지방문화원을 문화를 통한 재능기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1사 1교 재능기부'를 통해, 대학 및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에 문화봉사를 실현함
- 교육청·문화재청·과학기술부 등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체계를 구성하고 지방문화원이 이를 이끌어나감
- 창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제반사업들을 통해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 경제 및 지역산업 측면에서의 지역활성화를 도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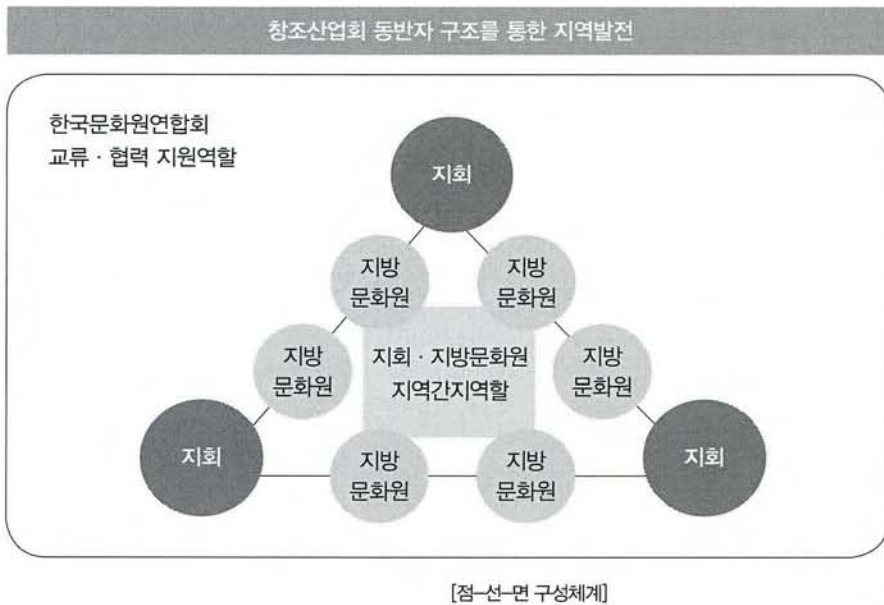


※ '창조도시'의 저자 찰스 랜더리(Charles Landry)는 '주민의 참여에 의한 자생성에 기초를 둔 도시개발'을 다루며 도시재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가 말하는 창조적인 도시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단결해서 스스로 치유와 회복, 진화를 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역량이 모여서 창의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위한 개방성이라고 말한다.

※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며 이러한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창의력의 세 가지 요소로 기술·인재·관용을 꼽았음. 이는 거대지역이 기술리더가 되어야하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인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팀플레이어로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함을 의미함

2) 문화거버넌스

- 지방문화원 발전전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사업을 ‘점-선-면 전략’에 따라 구성하여, 각각의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문화원연합회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반자 구조를 이끌어냄
 - 각 지방문화원이 지역 내에서의 간사역할을 통해 문화거버넌스 사업을 수행하고, 문화원연합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함
 - 지방문화원의 지역리더십 확보, 지역발전의 간사기능 및 문화원간의 협동과 공동작업을 도모하여 문화원 전체의 위상을 강화함



-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사업전시회’를 통해 지역 내 문화자원의 수요를 파악하고, 거버넌스에 참여할 민간단체 및 시민조직이 공동으로 사업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협력단체 및 후원기관 초대를 통해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후원 및 기획 홍보 등 거버넌스 활동을 전개하는 계기를 마련함
 - 네트워크 전략과제로 박람회 형태의 ‘전국문화원창의상품박람회’ 또는 지역예술작품에 대한 아트페어(Art-fair), 논의의 장인 포럼(Forum) 및 워크샵, 다양한 방식의 지식공유형파티(리빙라이브러리Living library, 렉처쇼Lecture Show, 페차쿠차 등)를 지원할 수 있음

3) 교류협력사업

- 교류협력 사업은 각각의 '점'에서 '선'으로의 점진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친교와 연대,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정보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함
-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문화형성을 목적으로 지역문화박람회 등 지역문화를 소개하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거나, 시상제도(문화원의 날 시상제도와 별도) 등을 통해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을 넘나드는 지방문화원과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지방문화원의 역량발전을 도모함

5. 환경 및 자원분석을 통한 전략과제

※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강점 및 자원, 환경요인들을 고려하여 전략적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사업들을 운영함

	지역사회 LOCAL	지역거점 BASE	협력구조 HUB
우선순위사업	●		
선도사업			
핵심전략사업	●	●	●
기반사업	●		

	지역사회(지회)	
우선 순위 사업	• (지)문화여가·복지사업 – 문화여가를 통한 주민복지사업 • (지)세대간 통합 사업 – 3세대 간 교류 등 추구 • (지)다문화인지 사업 – 다문화가족이 살고있는 지역주민들이 이들과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	
핵심 전략 사업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 주민문화공간형성사업 –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문화공간 형성 및 운영주체발굴 • (지)문화귀촌사업 – 지역책임형 문화기획자 사업 및 문화활동가 채용사업 등	• 생활문화사업 – 주민들을 통한 생활문화, 지역사를 통한 향토문화를 활용한 문화자원발굴 및 개발
	지역사회	
	• 전통문화거점화사업 – 장소성을 활용한 전통문화의 창조산업을 지원하고 디지털라이징콘텐츠 및 방식을 통한 문화외교 실행 • 이종문화융합지역사업 – 문화를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와 외부문화의 융합을 이끌어냄	
기반 사업	지역사회(지회)	
	• (지)문화인력을 활용한 지역재생 및 창조지역사업 – 지역재생을 위한 인력자원 발굴 및 협의체 구성으로 지역재생을 통한 창조지역거점사업 지원	

[환경 및 자원분석을 통한 전략과제 내용 및 구조]

- 지방문화원의 강점과 시대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특성화 사업을 발굴함
 -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 문화마케팅 및 지역브랜드 사업
 - 지역사회에 퍼져있는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조명
 -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들어내는 창조지역 사업
 - 주민들의 실질적인 문화여가를 끌어내는 매력적인 문화복지사업
 - 인력양성 및 양성된 인력들의 활동공간을 유희공간과 연결하는 사업

	분 류	내 용
1	지방문화원 고유과제	• 전통문화거점화사업 • 생활문화사업 • 향토문화사업
2	지역문화사업의 미래지향적 과제	• 지역재생사업 • 창조지역사업
3	기존문화원 기성사업의 보완·강화 과제	• 세대간 통합사업 • 다문화인지사업 • 문화여가복지사업
4	사회변화와 시의성에 따른 과제	• 이종문화융합사업
5	문화정책상 필요에 따른 기획 사업	• 문화공간형성사업 • 문화귀촌사업

[환경과 자원분석을 통한 전략사업]

5.1. 지방문화원 고유과제

1) 전통문화사업

- 장소성³³⁾을 활용한 전통창조사업
 -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통합적 지식서비스 구축하고 이를 디지털 채널을 통해 국제교류와 문화외교를 수행
 - ▶ 국제교류 활동의 국내방문
 - ▶ 반크 민간외교단과 같이 자발적으로 생성된 민간외교단 활동

33) 방문가능한 스토리의 공간

- ▶ 엘리자베스여왕의 하회마을 방문과 같은 외교적 국민방문
- 해외를 유통망으로 한 지역특성화 브랜드를 통해 우리지역 근·현대 무형문화자원 발굴 및 가치화 사업을 수행

2) 생활문화사업

- 주민문화를 통한 우수생활문화사업
 - 도시의 유형, 인구규모, 역사배경 등 지역별 기본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생활문화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문화동아리 사업지원을 통해 주민자생적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간 네트워킹을 발굴하여 지역예술가와 지역주민의 공동작업을 지원함
 - 우리 마을 전통문화자원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사업을 통해 마을이야기를 개발하거나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고유의 축제를 개발함
 - 공간제공, 지역문화기획자양성프로그램 제공 등 지역 주민들의 자체 문화프로그램들이 주민들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기반 제공
 - 지역민들의 특성에 따른 문화교육 및 문화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공의 장소로서 문화원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

3) 향토문화사업

- 향토문화자원의 재발굴 및 재활용을 통한 향토문화사업
 - 지역문화자원 조사와 함께 지역주민의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만의 차별화 전략을 구축하고 이를 지역 고유의 브랜드로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콘텐츠를 통해 지역 고유의 축제를 개발하거나, 향토문화대중화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화된 관광상품·디자인상품 등의 부가상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관광업계 및 사업계를 지원함
 - 실시간 전국에서 만들어지는 주민생활문화의 사례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주민문화의 원천을 확보하여 생활문화의 사례창고를 형성함
 - 이는 지역 경쟁력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역사의식 및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취로 이어짐

5.2. 지역문화사업의 미래지향적 과제

1) 지역재생사업

- 지역문화마케터 양성과정을 통해, 관광이나 특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 '작은지역 재생 프로젝트'등 구체적이고 작은 범위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이들을 통한 지역의 재 활력화를 이끌어감
- 문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 및 확보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재생을 추진함
- 지역예술가 및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2) 창조지역사업

- 주민과 예술가, 기획자, 아마추어 인력의 창조인력 양성기지로 문화원이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하고, 창조도시설계워크숍 및 창조도시 시범사업 을 통해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창조지역 거점사업을 수행함

5.3. 기존문화원 기성사업의 보완·강화 과제

1) 세대간 통합사업

- '어르신문화학교'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대간 교류·3세대 간 교류 등을 추구하는 다양한 시범사업 을 시행함
 - 기존의 우수성과였던 '어르신문화학교'를 '어르신문화대학'으로 확장하여 운영
 - 경험이 풍부한 은퇴세대가 문화학교에서 교육받는데 머물지 않고, 행사운영 및 공연단체 설립 등 스스로 계획을 세워 봉사할 수 있도록 지방문화원을 통해 은퇴세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교생실습 형식의 문화대학 출강 등)
 - 은퇴세대가 지역 내 세대통합기능을 함으로써 가족 및 지역공동체에서 '어르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지역멘토로 양성하고 지회를 통해 멘토를 파견하는 문화멘토사업 운영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사업으로 각 지역별 다양한 어르신문화학교 사업들이 기획되어 운영되고 있음. 2010년 김천문화원은 어르신문화학교를 통해 38명의 전통예절지도자로 양성하였으며, 2011 속초문화원은 '속초실버프로듀서'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특징을 활용한 포토타리 등 창조적 지역문화활동을 유도하였으며, 2012년 이천문화원은 이천시의 대표적 지역문화유산인 도자문화를 바탕으로 어르신문화학교를 기획하여 운영함

2) 다문화인지사업

- 다문화가족구성원 및 다문화당사자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이들과 통합할 수 있도록 문화를 통해 교육하는 다문화인지 사업을 시행함
 - 기존의 다문화사업이 이주민 대상의 정착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효용성 및 성장의 한계를 가짐
 - 다양성과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의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정'대상의 교육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지역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의 다문화사업을 추진함

3) 문화여가를 통한 주민복지 사업

- 가족여가활동에서의 공공자원 활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적 가족여가프로그램(아트테인먼트arttainment,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여가형 문화 프로그램 개발하여 보급함
 - 문화여가의 사례공모를 통해 사례발굴 및 축적을 바탕으로 대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지역의 환경자원을 활용한 에코투어, 지역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에듀투어, 지역의 생활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전통문화즐기기 등)

※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11)에 따르면, 여가활동을 하는 공간 중 주로 이용하나는 실내공간으로 종교시설(14.0%), 식당(11.9%), 영화관(9.4%), '헬스클럽(6.7%)으로 나타났으며, 실외공간으로는 근린공원(21.7%), 산(15.9%), 아파트 내 공터(15.2%), 운동경기장(7.1%), 하천변 체육공원(6.6%), 재래시장(6.2%), 낚시터(4.0%)등으로 나타나 건강과 자기계발 등과 관련한 여가를 목적으로 여가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5.4. 사회변화와 시의성에 따른 과제

- 문화를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와 외부문화의 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중문화지역융합사업을 시행함
 - 미군주둔지역, 항구도시, 독일인마을, 서래마을, 대학로 필리핀주말시장, 안산다문화거리 등 민족과 국가를 넘어선 문화가 지역사회 내에서 충돌하면서 창조적인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중문화 발생 지역에 문화기획사업을 전개함

※ 축제, 공공예술, 협력프로그램, 전시회, 상품개발, 캠프 등 다양한 형태를 지원하되, 1차 년도에 워크샵 및 교류, 교육 등을 통해 지역내 수요조사와 관계형성사업에 소요지원을 하고, 성과가 좋은 곳을 선별·발굴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함

※ 지방문화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사업을 관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 내 민간단체·주민조직·예술가 등이 공동으로 다양하게 본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함

5.5. 문화정책상 필요에 따른 기획 사업

1) 문화공간형성사업

- 지방문화원이 공간활용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활동가들이 그 곳을 운영하도록 지방문화원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업임
 - 원사가 없는 지방문화원의 경우,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선발함
 - 기존의 생활친화형 문화공간사업이 하드웨어를 리모델링하는데 집중하고, 지역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운영비를 충분히 지원한지 못한 점을 극복하는 사업임
- 생활친화형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운영주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내 문화동아리를 모으고 '방'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간의 기능을 동아리방·공방·사랑방·발표무대 및 마당 등으로 나누어 사업을 지원함
 - 지역 내 유휴공간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발굴하여, 리노베이션한 후 지방문화원이 대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일본의 동사무소 공민관 공동운영사례

2) 문화귀촌사업

- 교육을 통해 양성된 문화기획자나 청년창업인력 등을 지방문화원이 관리하여 사업비대신 고용계약을 하고 다년간 지역사회에서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는 지역문화간사 파견제도를 시행함
 - ‘지역책임형 문화기획자’, ‘문화활동가 채용’ 등 창조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프로젝트 사업비 대신 2~3년 간 인건비로 지원하는 문화기획자 지원사업을 의미함
 - 추가적으로 이들이 사회봉사, 지역문화해외교류활동, 지역내 창업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선별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함
 - 지역문화간사들이 지역 내 유휴공간과 연결하여 활동하도록 하는 지원함
-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에 머물지 않고 고용까지 연결하는 문화기획자양성통합과정으로, 지역 내 교육 및 고용창출·사업발굴·창업유도촉진 및 활동지원·수익창출·사례홍보에 이르는 절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컨설팅단을 유지함

V. 기대효과

-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회, 지방문화원의 비전과 목표공유를 통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공동의 발전 기반 구축
-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한 지방문화원의 인프라 및 시스템 등 발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지방문화원 각각의 자생력 강화
- 지역문화자료 및 지역인적자원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교류·협력체제를 통해 문화원 고유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문화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들을 통해, 다문화·고령화·문화여가복지정책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문화를 통해 적극적·자발적으로 대응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경기도문화원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발행인: 정상중

편집인: 최영주

발행처: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6층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

인쇄: 2012년 12월 31일

발행: 2012년 12월 31일

디자인·제작: 비타민큐

이 책은 2012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